

친구끼리

1995년 3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 포진한 여성의 문제를 읽어내고

여성학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넓히고

남녀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저항해내고

그 작은 실천으로

동아리내 성차별적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질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끼리

두 번째 이야기

총여학생회

우리다 드림

/친구끼리/가 벌써 두번째 자료집을 낸다.

벌써 라고 하면 당사자들은 화낼지 모른다.

그만큼 '그녀들'과 '그들'은 열심히었다.

무엇에? 이 자료집이 대답이 되리라.

동아리가 흔들린다는 말은 예전부터 있어왔고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래서 무엇이 동아리를, 동아리 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한 물음들이 이어졌다.

그러나 과거의 중핵에 대한 부채감과 그것이 외화된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그러한 염려들은

동아리 내부에서 은밀히(?) 꿈틀대던 고민들을 받아안지 못했다.

용감한 몇몇 선배들에 의해 불쑥,

우리역사에 '혹'처럼 솟은 /친구끼리/.

이젠 우리역사에 건강한 문제의식과 열린 사고로

동아리를 풍부화 시키는 '복주머니'가 아닐까?

우리 역사의 여학우 모두가 '내가 여성임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라고,

우리 역사의 모든 학우들이 '내가 역사인임이 진정으로 자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힘써 노력할 때다.

- 우리역사 회장 류용재 -



내가 가진 문제를

나만의 언어로 풀어가려고 노력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그 동안 나의 문제가

결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공론화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힘도 많이 얻었고

어떤 가능성조차 엿볼 수 있었다.

친구끼리 모임에서 논의되었던 생활속의 작은 이야기들,

끊임없이 대안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고민을 알려내려는 노력들이 축적되어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억압의 실체를 찾아내는 단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각자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의 극복을 위해

심도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지금

친구끼리와 같은 소모임들이

그러한 실험의 한 형태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친구끼리 김혜





친구끼리 세미나

우리의 이야기

- 여성학이란 /6
- 안토니아스라인 /13
- 가족이야기 /22
- 동화다시쓰기 /32
- 연애관과 결혼관 /42

페미니즘사상 /51

기획글

로자 룩셈부르크와 여성의 삶 /88

사랑의 코드의 상대성과 그 해결에 관하여 /92

'생식중심의' 성을 '정치적인' 성으로 /97

동아리내 성차별적 문화 꼬집기 /104

97년 여성 관련 9대사건 /108

영화이야기 /119

책이야기 /127

여성학추천도서 /129

편집후기 /134



친구끼리 세미나



여성학이란 것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기 초 교양 과목을 선택할 때 새로운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성학을 신청했었던 것이 여기까지 오게된 발단이다. 여성학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이 날 깨게 만들었다. 여성학, 한마디로 깨는 학문이다. 적어도 남성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여지껏 가족, 학교 생활, 길거리에서 등등 남탕 빼고 어딜 가나 여성을 볼 수 있고, 한 사회 속에서 한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남성들과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또 그것을 남성, 여성 모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더구나 양쪽 성 모두 힘든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서로를 그렇게도 잘 모르는지... 아무튼 여성학은 내가 여지껏 보아왔던 주위를 보는 시각을 2배로 확장시켜준 깨는 학문이었다.

여성학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있다. '여성학의 목적은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위치와 권력을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조화롭게 사는 데 있다'라는 말. 이 말은 여성학이 자칫하면 편협하게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한다. 또한 이 말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물론 지금도 이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남성도 피해를 입은 기형 인간이라는 것을 말

해준다. 정말 매력적인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

친구끼리에 들어가며

- 뽕그이 올림 -

보면 나도 피해자이다. 나도 소시적 아무 생각 없는 등신 같을 때, 이성 친구를 사귄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 느껴보는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 등등으로 엄청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가부장적 사회의 쓸데없는 산물인 것이었다. 하물며 여성은 오죽할까?

나의 엄청난 여성학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적표에는 D가 찍혔다. 참고로 숙제 3개중 2개를 친구끼리 자료집에서 베꼈다. 3.4학년쯤 재수강 할 예정인데 그때는 여성학 대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친구끼리에 열나게 참여 할 께다. 또 후에 후배들이 여성학을 들을 때, 소모임 책자만 베끼기만 한다면 A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나의 목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당연시 해온 상황하에서 여성이 아니고는 여지껏의 여성의 굴곡된 생각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 소모임을 통해 엄청스러이 깨짐을 통해 여성을, 남성을, 그리고 인간을 절실히 느껴보려 한다.

여성학은 허공에 붕 뜬 학문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가장 현실과 맞닿아 있고, 살면서 계속 부딪쳐야 할 학문이다. '친구끼리'에서의 허물 없는 대화를 통해 나의 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을 느껴보고 싶다. 이론이 아닌...

인간은 발생 초기부터 다른 인간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으며, 현대처럼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에선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적 관계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할 수 있겠다. 농경, 사냥, 채집, 어로 등 그 어느 것을 생존 수단으로 하든, 인간은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각 개인들은 집단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든지 이처럼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 개인들간의 사회적 역할 관계를 반영하는 문화가 성립하기 마련이다. 어떠한 기능적인 장점을 가지고 성립되었든지, 인간에 의해 성립된 문화는 세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반대로 인간을 주조하고 재생산하게 된다.

여성학이 뭐야?

- 연진희 -

그렇다면 질문, 한 사회에서 규범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 외 문화적 측면들은 언제나 올바른 것인가?

한 세대의 문화가 다음 세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옳지 않은 것, 폐지해야 할 것 등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예를 우리는 접해 왔다. 물론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눈으로 한 시대의 문화를 평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사회의 유지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결속을 위해 수행했을 모든 기능적인 측면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문화의 성립과 쇠퇴의 반복의 역사를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다.

첫째, 인간은 그 시대의 선(善)이라 불리는 일을 행하면서, 다음 세대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악(惡)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겠다. 다음 세대의 시각이 보편적인 진리라는 확증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이 시대가 아닌 다음 시대, 다른 사회의 눈으로 이 시대, 이 사회의 문화를 바라볼 이유가 있겠는가?

두 번째, 위에서 내가 말한 사실만 다룬다면, 다음에 잇따르는 질문에 답할 수 없으며 결국 문화의 상대성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허우적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에 답하기 위해 한가지 질문을 더 던질까 한다. 문화가 존재하는 목적인 무엇인가?

문화의 올바른, 그릇을 평가하는데 기능성, 효율성으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애초에 기능성이라는 개념은 논리의 비약일지 모르나 인간을 중심으로 둔 개념이었다 생각된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더 풍부하고 더 유용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추구했던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기능성이 탈(脫)인간적인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과연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인간적이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자신 확신할 수 없다. 포이에르바흐가 인간을 '유(類)적 존재'로 파악하고 '인간'을 하나의 형이상학으로 규정해 버린 오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인간적'이라는 개념에 최소한 반영해야 할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 하에서 자신의 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따라서 문화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인간에겐 의식이 존재한다. 그 의식은 물적 존재 위에서 형성된다고 생각된다. 자신이 처한 외적 환경과 완전히 독립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의식이 존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적 패러다임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이에 순응하든, 저항하든 그 틀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인식 기능의 대부분이 시대와 또래 집단에 순응하는 데 활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몇몇 개인은 그 안에서 편안하고 자유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순응이 다른 개인에게 억압으로 다가갈 수 있음과 그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자신이 원하지 않던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외면적인 순종을 가장할 때 그 개인은 끊임없이 내면에 잠재된 본성과 투쟁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탈 인간적인 문화는 인간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전에 날카로운 시각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변화시키려는 개인의 자각과 실천이 필요하다.

여성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 문화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이두 아이콘 총서에서 발행한 Feminism 이라는 책에서는 feminism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또 다른 집단으로서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에 도전하고 여성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비굴하게 복종케 하며, 차선의 위치에 머무르도록 하는 모든 권력 구조, 법률, 관습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이 가정 생활의 모든 짐을 떠맡은 채 집에서 무보수로 노예같이 일하는 반면에 남성들로 하여금 공적 영역인 업무, 스포츠, 전쟁, 정치 등을 담당하게 하는 이 세상의 분업 형태에 도전하는 것이다.

협회의 개념으로서 여성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올바를 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개념은 페미니즘이 조직화된 개념과 운동으로 떠오르던 초창기의 개념으로 다소 낙후된 개념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 동안 인류가 공유한 문화의 대부분이 가부장적 질서를 갖추고 있고, 그 속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분업화가 내재되어 있다는 지적은 옳다. 법, 결혼, 가정, 성생활, 노동, 예술, 대중 문화 등 이러한 분업은 이루 셀 수 없도록 우리의 삶 구석 구석에 퍼져 있다. 그리하여 한 세대의 견고한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여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다. 그러나 그 분업화의 희생물은 남녀 모두이다.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해서 남성들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더욱이 여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와 자격을 획득하는데 한정되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도 자본가 계급이 누리는 특권을 달라고 싸워야 한다는 가정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의 자유로운 삶이다. 사회적 성(Gender)의 개념에 기반한 역할 규정, 그에 기반한 국가 조직과 제도, 폭력성 그 모두에 저항하며 '나'에게,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움을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여성학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고자 하는 인간들을 위한 문화 만들기, 라고…….

〈최소한, 끊임없이 나의 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성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나만의 언어로 풀어가려고 노력한지 벌써 2년이 넘어 간다. 그동안 나의 문제가 결코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점에서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공론화하고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힘도 많이 얻었고 어떠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여성학은?

- 혜영 -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더불어, 자고로 인간이란 여자, 남자가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녀공학을 왔던 나. 1학년 초기부터 술먹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외박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동아리

생활을 잘 해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역시 여학교와 공학에는 차이가 있었다. 내가 설자리가 이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은 나만의 특수한 경우였을까?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석연찮은 느낌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가 나의 여성학공부의 시작점이었다. 특히 동아리내에 친한 선배가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나에게 던져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은 거의 절망적이었다. 1학년 때는 "xx형과 헤어지면 동아리 생활을 어떻게 할거니? 2학년때는 "너 xx형 군대 가면 동아리 나갈거야?" "xx가 없어도 동아리 생활 잘 할 수 있니?" 등등의 질문들은 나를 화나게도 지치게도 했다. 또한 사회에서 곱지 않은 눈길로 보는 담배와 늦은 밤의 귀가는 나를 참 피곤하게 했다. 성폭행의 피해자가 내가 아는 한은 없다.(그것을 알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신경이 곤두선 채 집으로 가야하는 술한 밤도 성폭행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다.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라고.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런 잘못된 구조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구조에 물들고 싶지는 않다.

나도 처음에는 여성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입학전까지 나는 여성학을 '여자들이 모여 실천은 없이 거드름 피우는 것' 혹은 '사회의 명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이 한 번 건드려 보는 것'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뛰어난 여자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존경받지 않나? 하고도 생각했었다.

지금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여성학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도 못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던 점과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던 점(여학교를 다녔기 때문), 또한 현실에서 여자들이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점등이 작용해서인 것 같다.

남자들이 여성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여성학은 공부하지 않겠어'라는 말이 솔직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여성학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이다. 내가 생활하면서 '남성'들에게 느낀 불만은 여자를 연애 또는 성적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같다는 것과, 그들의 2중적인 가치관-공생활과 사생활에서의 일관된 모습의 상실-이었다. 이는 남자들도 성, 연애, 여성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에 대한 뒤돌린 사회구조를 바로잡는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짓밟고 올라선 남자들의 세계도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여성학에서 남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의 대상인 만큼 남자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문제제기〉

현재의 여성성(섬세,온화,다정다감 등),남성성(씩씩,듬직,적극적 등)이 어느 정도 고정적이라면-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 해도-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남성사회의 편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성이 존중을 받으려면 우선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은가?

제가 처음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접했을 때 이것은 여자보다는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정의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남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남성이라도 더 여성학을 접해서 깨우쳐(?)져야 한다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뿌듯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3년 동안 친구끼리와 학교의 수업 등을 통해서 현재(1997년) 드는 생각은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일단 잘라 이야기 하자면 아무리 부인하고자 해도 여성학은 여성들을 위한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진 남성들에 의해서 지금보다 평등한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얼마나 남성중심의 사고 방식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20년간의 제도교육을 통해서 어쩌면 여성들은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시각이 아닌 저와 같은 남성들의 시각에 젖어있

여성학에 대하여

- 철규 -

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구요.

제가 정의하는 여성학은 여성들이 그들 스스로의 시각으로 사회와 사물을 보고 좀더 평등한, 더 나아가서는 완전한 평등의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나름대로의 여성학에 대한 정의를 가질 때 생기는 문제는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남성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여성학의 몇몇 분야에서는 남성이 가지는 남성성은 옳지 못한 것이며, 극단적으로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은 레즈비안들 뿐이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려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또다른 억압(여성의 남성에 대한 지배)이 존재하는 사회가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성학은 여성들을 위한 학문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여성들이 불리하고 약자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학이 여성들을 위한 학문이 되어야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학의 방향입니다. 제가 바라는 방향은 또다른 억압관계를 또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억압관계를 풀어 버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여성학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학을 보지 않으면 여성학에서 제가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제 주위에 둘러싼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법을 배우는 것 이상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STAFF 각본, 감독 : 마린 고리스

촬영 : 빌리 슈타센

미술 : 해리 아멜란

의상 : 야니 테미메

◆ CAST 안토니아 역 : 빌레케 반 아메루이

다니엘 역 : 엘스 도터만

테레사 역 : 벨르 반 오베르프

◆ 줄거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네덜란드의 어느 마을. 안토니아는 어머니 일레곤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열여섯살된 딸 다니엘과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을에 들어서면 올가의 카페 담벼락에 "환영. 우리의 해방군" 이라고 갈겨 쓴 낙서가 보인다. 나치를 몰아낸 미군을 환영했던 이 낙서가 이제 안토니아를 맞이하고 있다. 권위에 찬 성당신부가 주재하는 일레곤다의 장례식이 열리고, 마을 사람들은 찬송가를 부른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이 깃든 장례식은 그저 하나의 행사일 뿐이고 다니엘은 할머니 일레곤다가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듯 노래하는 환영을 본다.

어머니의 농장을 물려받은 안토니아는 마을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처음엔 안토니아의 소꿉친구 크룩핑거만이 유일한 친구였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갖는다.

어느 동네나 하나씩은 있게 마련인 바보 루니 립스는 자기를 괴롭히는 동네 꼬마들을 혼내준 안토니아를 따라나서 그녀의 농장의 일원이 된다. 마을의 홀아비 농부 바스는 안토니아에게 청혼하지만 안토니아는 때때로 찾아오는 친구정도로 지내자며 거절한다.

다니엘은 창고에서 여자를 가축 취급하는 농부 단의 딸 디디가 그의 오빠 피트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곡식을 모으는 갈퀴리로 그를 찌르고 디디를 구한다. 미술학교에 다니는 다니엘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한다. 결혼도, 남편도 원하지 않고 단지 아이만을 원한다는 다니엘을 데리고 안토니아는 남자를 찾아 도시로 나선다. 미혼모 레타를 만나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 세 여인은 다니엘

MOVIE STORY

의 임신에 적합한 남자를 찾아 내고 하얀색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청년과 다니엘은 관계를 맺는다. 다니엘은 테레사라는 딸을 낳는다. 테레사는 4살때부터 이미 크록핑거와 철학을 논할 정도의 천재이다.

한편 디디와 루니립스는 결혼을 하고 레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안토니아의 농장에 찾아와 안토니아의 가족이 된다. 테레사는 학교 여선생님인 라라에게 영재교육을 받게된다. 집으로 방문한 라라는 테레사의 지도보다 다니엘과의 대화에 더 열성을 올리고 곧 둘은 연인이 된다. 얼마후 테레사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15년 전 여동생 디디를 강간하고 마을을 떠났던 피트가 아버지 단의 죽음에 맞추어 마을로 찾아온다. 안토니아의 가족에게 아직도 원한이 남아있는 피트는 어린 테레사를 강간한다. 안토니아는 복수를 결심충을 들고 피트를 찾아 나서지만 피트를 발견한 안토니아는 방아쇠를 당기는 대신 그에게 저주의 말만을 남기고 피트는 동생에게 살해당한다.

테레사도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레타의 아들 시몬과 사랑을 나누지만 역시 결혼을 않고 딸 사라를 낳는다. 동네철학자 크록핑거는 더이상 생각하기 싫다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한 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각자의 사연을 안은 채 세상을 등진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뒤를 이어 끝없이 삶과 생명을 이어나가듯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생명이 계속되듯 안토니아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Antonia s line 을 보고...

- 봉근이 -

으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작가는 영화를 통해 여성학을 남성, 여성의 관계에서 더 확장하여 어떠한 제도, 문화에 구속된 없는 자유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고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적으로보다는 사건중심으로 얘기해 보자.

첫째 결혼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안토니아의 경우에 바즈가 결혼을 제안했

을 때, 그녀는 결혼 즉 남성의 역할을 부정하고, 바즈와 동거 생활을 한다. 다니엘은 남편은 싫고 아기를 갖길 원했다. 결국 테레사를 낳았고 그녀는 테레사의 과의 선생님과 동성연애를 하게 된다. 테레사 또한 결혼은 거부한 채, 시몬 사이에 딸 사라를 낳는다. 더 나아가 그녀는 딸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미친 입술과 디디, 레타와 신부처럼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한 화면에 담아 범으로써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끔 한다. 결혼이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아니면 무작정 전해 내려오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또 하나의 질곡인지를, 결혼 적령기가 지난다고 집안에서 다그치는 막내 이모를 볼 때, 결혼이 무엇인지 적령기가 무엇인지 의문이 나게 한다.

둘째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기독교로 나타났지만 모든 종교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영화에서 나타난 종교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①사회의 이목 때문에 버티 아버지의 종부성사를 거부했다. ②예배를 드릴 때 남, 여가 갈라 앉는다. ③여성을 악으로 간주한다. (이스라엘의 패망 원인 등을 들며 얘기하는 신부의 모습.) ④신부가 고해성사실에서 한 여성을 강간했다. ⑤한 신부는 현실의 행복과 자신이 가르치는 사후의 행복에서 갈등하다 교회를 탈출한다. ⑥ 신교도와 미친 마돈나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종교라는 선 때문에 달만큼의 거리를 극복하지 못한다. 결국 마돈나가 죽자 신교도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자살을 하면서까지 사랑을 이루려 한다. 이 영화에서 본 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인간의 행복보다는 인간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방해물일 뿐이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대해 신은 자신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인지, 천사가 날개로 신부를 때리는 모습, 다니엘이 신부의 이중적 모습에 복수를 했을 때 성모마리아가 빙그레 웃는 모습 등의 회화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셋째 여성의 피해의식 또 그것에 대한 도전, 극복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①먼저 영화 전체에 걸쳐 있는 여성이 남성에게 못지 않은 노동을 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철조망을 두르고, 잡초를 묶고, 씨앗을 뿌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세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전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다니엘이 기존의 여성의 역할과 다른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③테레사의 경우를 보자. 그녀는 천재이다.(남자도 천재이기 어려운데...) 그녀는 학창시절, 늙고 남성인 교수에게 반항하며 기존의 가치와 형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점점 자라면서 오히려 남성을 선택하고, 자아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집중한다. 자신의 딸에게조차 무관심을 보이며 모성조차 거부하며, 모성애는 본능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다. ④디디는 자신의 오빠인 피터에게 강간을

당하고, 안토니아의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그 후 디디는 오빠를 보기만 해도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다. ⑤테레사가 피터에게 강간을 당한다. 그 후 안토니아는 피터에게 저주를 하고 결국엔 자신의 동생인 안에게 죽음을 당한다.

이 영화는 안토니아라는 거대한 포용력 있는 여성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이상 사회를 보여주고자 한다. 남녀의 인위적인 편가름은 물론이고, 종교, 법, 제도 등 모든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문화를 '인간적'이라는 잣대로 재어, 풀어헤친 극히 인간적인 사회의 축소 모델을 보여준다.

또 이 영화에선 시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맺음말에선 이렇게 말한다. '이 긴 가족사는 결론에 도달 했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도 끝은 없다.' 그리고 영화 곳곳에 시간에 대한 말이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사랑과 증오, 평화와 전쟁, 생과 사, 성장과 부패 등의 사건들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시간의 존재를 잊어 버린다. 하지만 시간은 시간만을 끊임없이 낳고, 우리의 인생은 이유없이 시작된다. 영원히 죽는 것은 없으며 무언가가 남는다. 이 춤이 우리가 출 수 있는 유일한 춤인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현재의 우리의 삶들을 사랑하고 즐기라는 것이다.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를 그것에 끼워맞추려고 한 쿤트의 실증주의 역사학을 랑케가 다음과 같이 비판한 것과 이 영화의 의미가 맞닿아 있는 것 같다.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의식을 뛰어 넘는다. 그러므로 결코 법칙은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시대는 다음에 오는 시대를 위해서가 아니다. 따라서 역사가는 존재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법칙에 역사를 끼워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원래 있었던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

다시말해 역사의 주체인 대중들도 역사는 큰 틀 속에 사로 잡혀, 역사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 정해놓은 인위적인 법, 제도, 전통에 억눌려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퇴화시키지 말고, 현재 우리가 추고 싶어 추고 있는 이 춤만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고 지극히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 크룩핑거는 쇼펜하우어, 아리스토텔레스 등에 지배되어 신을 거부하고 사회를 경멸하여 결국엔 생명탄생조차 부정하는 인위적인 사람이 되어 버렸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인위를 테레사처럼 부정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그 길만이 인간이 자유로와질 수 있는 길 이므로.....

에필로그 : BUT, 이 영화는 너무 이상적이고, 삶을 단순화시킨 것 같다. 그렇게만 살면 삶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안토니아라는 여성과 그의 딸, 또 그녀의 딸, 그들의 딸로 이루어진 여성 4대의 가계를 그린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그동안 각종 페미니즘 영화는 많아도 여성의, 여성이 주인되는 가계를 추적한 영화는 없었다. 남성 중심의 가족사는(심지어 마피아 가문까지!) 심심찮게 그려내면서 말이다. 감독 마린 고리스는 이영화에서 남성들에게는 자! 가부장제도는 한물 갔음을 인정하라. 어머니 자연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여성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리고 연대하라!'고 말하면서 좀더 확장되고 포용력 있는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폭력적인 남성의 질서에 반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그리는 영화. 자신의 세계에서 타자의 세계로의 확장을 그려내고 있다. 생산의 풍요로움과 수용의 자세는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 소원이 -

그녀의 농장에 많은 소외된 이들을 끌어들인다. 구체적으로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안토니아의 딸 다니엘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페미니즘에 대한 방해물이 된다는 감독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가져야 합법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어머니-전형적인 사회의 시작에서 바라보는 - 의 고정관념을 깨는 인물이다. 자신의 예술적 영감과 자유로움을 구속하는 남과여로 이루어진 폐쇄적인 부부관계를 당당히 거부하고 자신의 성적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사람 마저 테레사의 선생님인 라라-라라는 여성이다-인 것을 볼 때 기존의 사회적 역할로서의 어머니와 여성의 자리를 벗어난 가부장제를 부인한 상태에서 감독의 몇가지 대안중의 하나를 반영하는 인물이다. 물론 레즈비안주의외에도 가부장제를 비판하며 여성의 연대의 결과로 대체될 수 있는 페미니즘적 대안들로는 공동양육의 형태, 집단생활-키부츠를 연상시키는-의 열린모습과 그 가능성들은 영화전편에 거쳐 안토니아의 가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폭력적이고 타인의 희생을 항상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제적 상징물들- 예를 들면 디디의 아버지나 피트와 같은 인물들로 상징되는-과 계속 대비되면서 가부장제의 폐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성성이라는 것의 무한한 가능성과 새로운 '여성적' 문화의 풍요로움을 계속 그리고 있다.

자주 반복되는 장면인 보름달만 뜨면 울부짖는 '미친 마돈나'는 어긋난 사랑의 상처로 닫혀버린 자궁의 욕망을 (여성의 생리주기와 밀접한) 달의 주기에 맞추어 호소하는 여성의 무의식, 또는 종교에 껴박받아 억눌린 본능을 야성으로 해방하고 싶은 무의식을 상징한다. 크룩핑거의 죽음은 순수한 이념과 사상속에 살다 좌절하는 순진한 인간형- 마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이성의 절대우위를 주장한 서구의 (남성)주체철학의 이상처럼 보이는 인물이지만 감독은 그의 자살이라는 소외된 형

태로 그러한 서구주체철학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듯하다- 그의 종말은 비참하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노동하고, 탐구하고, 창조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사랑의 희열과 생명탄생의 감격을 누리며, 죽음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무연한 듯 흐르는 시간의 역사와 함께 조용히 맞이하는 안토니아의 죽음은 소박하지만 위대하다.

그녀의 삶 역시도 가부장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가부장의 이미지와 많이 대비된다. 후자의 이미지는 절대적 지배와 카리스마, 자신을 제외한 타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질서위에 구축된 것이라면 안토니아는 지배가 아니라 수평적인 공존을 이야기하며 경쟁과 정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해와 관용의 세계를 상징한다. 실제로 안토니아의 공동체를 보면 안토니아에서부터 가장 어린 테레사의 딸, 안토니아의 증손녀까지 누가누구에게 명령받고 종속되고 타인의 삶을 함부로 규정짓는 모습 대신 어른, 아이, 좀 모자라는 미친입술이나 디디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고 누구에게도 명령받지 않으며 다같이 슬퍼하고 다같이 기뻐하는,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으로 하루하루 시간의 흐름에,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마린고리스의 유토피아- 안토니아의 농장과 같은-의 현실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이 삭막한 가부장제와 경쟁의 질서속에서 지쳐만 가는 나에게 비록 영화라 할지라도 즐거운 상상 이상의 의미를 던져주었다.

단순히 가부장제에 대한 고발이나 쇼크요법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다소 허황된 꿈이라고 할지라도-이갈리아의 딸들 만큼이나 즐거운 꿈, 아니 그이상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한단계 더 발전된 가부장제를 뛰어넘은 여성적 문명의 의미와 가능성들을 찾게 해줄 수 있게한 영화였다.

영원히 죽는 것은 없어/ 언제나 무엇인가가 남는단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것이 탄생해/ 인생은 그런 거야/ 이유 없는 시작이지/왠지, 어딘지 모를.../사는 게 인생이니까/ 이 춤이 우리가 출수 있는 유일한 춤이지

시간이 시간을 지배한다/ 시간은 가끔씩 지친 거북이처럼 천천히 간다/ 가끔은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삶을 뚫고 지나간다/ 생과 사, 부패와 성장, 사랑과 질투를 무시하고 말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기에/ 우리는 시간을 잃는다

안토니아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읊은 독백이다.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자기 입 크기만큼 한 토막 베어 문

것이 인생이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그녀는 살아가는 것만이 그녀가 부여받은 시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인지 그녀는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해 예감을 가진다. 먹고 마시는 행위, 섹스, 노동 ..., 삶 자체를 긍정하는 그녀의 세계관은 수도원을 뛰쳐나온 수도사의 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인생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죽음의 행복과 조화시킬 수 없어 환속했다는 고백 말이다. 물론 안토니아스는 죽음마저도 삶의 자연스런 단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말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 진희 -

그런데, 인생의 긍정 속에는 안토니아스 나름의 기준이 있다. 인간이 몸을 내맡긴 자연의 모습만큼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안토니아스, 다니엘, 테레사는 기존에 존재해 왔던 인위적인 것들에 굳이 맞추어 살려고 하지 않는다. 남편도, 아들도 필요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더불어 선협적으로 주어져 있는 아내의 역할을 거부하는 안토니아스, 재혼이라는 제도를 통과하지는 않지만, 함께 노동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어려움을 풀어 가는 바즈네와 안토니아스네에는 따스한 사랑과 풍요로움이 가득하다. 다니엘과 테레사도 이런 안토니아스의 기질을 이어받아 성, 출산, 가족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거침없이 이를 실현해 나간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결코 억압이나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 여인네들의 공동체는 오히려 인위적인 관습과 제도를 소유한 정상인의 무리에 끼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 앉는다. 디디, 미친 입술, 박식한 염세주의자 크루핑거, 파계 수도사, 이방인 바즈네 사내들....., 미친 여자와 신교도는 생각의 차이로 달만큼의 거리만큼이나 멀었다. 라는 화자의 말처럼, 이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소위 '정상'이라는 탈을 쓴 디디네 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적이다. 아버지와 장남이 가정 내에서 행사하는 초월적, 폭력적 권력, 이에 침묵하는, 아니 소리 없이 애용하는 여인들, 살인, 강간....., 피터가족을 보면서, 정상적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의아스러웠다. 법과 제도로써 인간의 삶을 규격화시키는데 절대 권력을 행사해 왔던 남성들에게 안토니아스네 여인들은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묘하게도 사랑과 웃음과 섹스의 희열과 주체적인 자아 실현은 그 '비정상' 속에 있다.

안토니아스 라인은 안토니아, 다니엘, 테레사, 사라로 이어지는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 영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 왔던, 그리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가족과 전혀 다른 형태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생소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했다.(이 영화는 여성문제를 다른 다른 영화와는 달리 피해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다. 그저 당당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그리고 있다)

우선 이 가족에는 일반 가정(가부장제 사회)에서 보이는 의무라든지,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토니아, 다니엘, 테레사는 모두 남편이라는 존재를 원치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고

- 혜영 -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관계를 찾음으로써 이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안토니아는 버디와, 다니엘은 테레사의 가정교사와, 테레사는 어릴적 친구 시몬과 특별한 사이가 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좀더 복잡하다. 남녀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과 해야 할 것들이 주어지고 이는 마땅히 사랑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된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현재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로 성의 의미이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성생활을 해나간다. 흔히 성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두려 하고 이를 벗어나면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가한다. 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한 육구의 배설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의 한 형태가 아닐까? 사랑없는 가정생활 내에서의 성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또한 남자들의 대부분은 결혼 후에도 한 번이상 외도(단순히 여자와 하룻밤을 자는 것을 포함하여)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도덕은 이미 그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닐지?

셋째로 주류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안토니아의 가족에서는 권위적인 가장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냥 서로가 어우러질 뿐이다. 그러나 영화 속의 피터의 가족은 어떠한가? 남자들은 큰 소리치며 여자들은 숨죽여 복종하는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형이다. 피터에게 디디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한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강간과 가부장제와의 상관관계로 인해) 디디가 가족내에서 피터와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자랐다면 강간이 일어났을까? (피터가 나중에 나타났을 때도 군복을 입고 있다)

가족 내에서의 권력배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안토니아의 가족에서는 가족 구성원 스스로의 결정을 중시한다.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것의 결정은 산

모 자신이 결정한다. 문득 일전에 재미있게 보았던 '목욕탕집 남자들'이 생각난다. 가족의 정점의 서있는 할아버지, 그리고 수직적인 질서들은 과연 남성,여성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을까?

넷째로 모성애의 의미이다. 영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다정한 애정의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감정이 이 가족을 묶어주는 듯 하다. 테레사는 사라에 대해 무관심하기조차 하다. 여성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다는 모성애가 영화에서 표현되지 않는 것은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에서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았다.

나의 가족 얘기를 해 보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어머니-평소에는 엄마라고 부른다-이다. 정말로 평범한 공무원의 아내인 우리 어머니 또한 가장 평범한 서울 중산층의 전업 주부이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가족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은 나와 내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부터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내동생이 이전 처럼 어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어머니는 집안에서 큰 일을 하나 잃으셨던 것이다. 요새는 다시 많은 참견을 시작하고 계시지만 우리 둘 모두 머리가 커져서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입지가 작아져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같지 못하신 것 같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가족을 위한 50여년 어머니의 삶이 가족이 아닌 어머니 자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두 아들이 건강하고 '멋지게' 컸다는 뿌듯함, 자신의 소유는 비록 아닐 테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 주는 편안함, 그 두가지 이상 어머니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가족은 ...

- 철규네 -

사람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러한 자기희생적인 끊임없는 희생을 보면서 나눈 또 어쩌면 나의 부인될 사람으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는 농림수산부 공무원이신 우리 아버지-평소에 내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이 있으리라 추정됨-차례다. 우리 아버지도 점차 나이가 드심에 따라 내가 초등, 중 학교 때 본 무소불위의 권력도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융통성 없으시고 무드 없고 - 어머니가 그러시는 데 지금까지 결혼하셔서 외식을 한 번도 해본적이 없으시다고 함 -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싸나이이시다. 우리 아버지와 T.V를 같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아버지의 여성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신지 알수 있을 것이다. 짧은 치마 입은 여자, 가슴이 많이 파인 옷을 입은 여자, 담배피는 여자, 술주정 하는 여자 모두 우리 아버지에게는 미친년으로 통한다.

아주 어렸을 때 나는 이답에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처럼 저런 남자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요즘 문득 문득 나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마다 깜짝 깜짝 놀라곤 한다.

이상이 울 엄마, 아빠에 대한 짧은 프로필이다.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마다 느끼는 것이 두 분 모두 진정한 행복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잊으신채 화목하게 사신다는 것이다. 그런 화목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끊임없는 희생, 가족의 생계에 대한 아버지의 부담일 것이다.

그런 나의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해드릴 수 있는 말과,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4명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51세이고, 어머니는 49세, 누나는 나보다 2살 많고, 난 나이다.

먼저 대충 우리 가족에 대해 말해 볼란다. 아버지는 공교 선생님이다. 27세때 강원도에서 교직 생활을 처음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는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한 도에서 전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춘천, 강릉, 영월 등지로 다니면서 생활하였다. 누나 6학년 때, 내가 4학년 때 자식 공부시킨다고, 아버지를 강원도에 남겨두고 엄마, 누나, 나 이렇게 셋이 서울로 이사를 왔다. 지금도 아버지는 계속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오신다. 87년 9월 13일에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 며칠 있으면 이런 생활이 10년 쯤 된다.

나의 가족이야기

- 봉근이네 -

◆ 아버지 ◇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딱 꼬집어 어떤 사람이라고 하긴 어렵다.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분이지만 알고 보면 골수 보수주의자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다시 말해 아버지의 전통적 어머니 역할을 본다면) 걸보기엔 밥도 가끔 하시고 여러 집안일을 챙기신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 하나가 기억난다. 영월에 살 때였는데, 엄마랑 옆집 아줌마랑 제천에 고추를 사러 갔었다. 기차가 늦어 저녁때가 지났었다. 그때 우리 집은 아빠가 밥을 해서 누나랑, 나랑, 아빠랑 밥을 다 먹고, 아빠는 엄마 밥도 한 공기 떠서 아랫목에 넣고 이불로 덮어 났었다. 옆집 아저씨는 아이들과 짜장면을 시켜놓고 자고 있었다. 그 집은 그날 우리 집과 비교해서 부부싸움이 났다. 아버지는 그 외에도 집안의 여러 일을 자주 챙기시는 편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엄마 대신 일을 하실 뿐 스스로 하

시지는 않는다. 또 아빠랑 가끔 얘기해 보면 남녀의 역할, 남성상, 여성상이 뚜렷하게 맘속에 자리잡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한번은 난 이런 여자와 결혼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개성이 뚜렷하지 않은 여자(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뜻은 한가지 주장만 관철하지 않는 저 줄 수 있는 여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애고 있는 여자, 집안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그 외 개학 무렵 아버지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씀드렸었다. 동아리 생활이랑 집회 얘기들을 가능한 한 솔직히 말씀드렸었다. 그 때의 반응 또한 이해는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를 바라시는 말투로 얘기하셨다.

하~~ 이런 얘기를 글로 쓰기엔 너무 길고 표현도 잘 되질 않으니, 세미나때 말로 하기로 하고, 아버지께 대해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가화만사성이라 해서 가정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아버지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첩의 자식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서도 그렇고, 할머니가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않는 형제에게서도 별다른 정을 느끼시지 못하신다. 즉 가족이란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시지 못하고 자라났다.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하셔서도 세 동생 학교를 다 보내셨다. 그렇다고 형제가 장남인 아버지를 잘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버지께 큰 정을 가지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아버지는 먼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신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시고 엄청스레 정 많고 다복한 어머니의 가족을 부러워해서 어머니를 택하신 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안정(즉 보수)을 아버지의 가치관의 중심에 두신 것 같다 자식에게서는 조금 더 나아가 안정 속의 발전(?)을 기대하시는 것 같고.....

♥ 어머니 ♥

이젠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해 볼란다. 어머니... 어머니는 한마디로 희생적인 전통적인 어머니 상이다. 두 자식에게 어머니의 모든 삶을 바치셨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머리가 좀 썩었다고 느꼈을 때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었다. 두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에게 건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러웠고 다른 아줌마들 처럼 엄마도 엄마의 인생을 즐겼으면 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일부러 밉보이기도 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그건 엄마가 50년을 살아온 가치관이었다. 조금 될 알았다고 엄마한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래서 난 내 개인적인 생활과 집안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도 많이 어렵다. 딸은 직장 다니고 아니고 아들은 대학을 다녀 나름대로 자식을 다 키운 어머니는 요즘 우울하시다. 딸은 직장 생활이 뭐가 피곤한지 먹고 자기만 하고, 아들은 매일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아침마다 돈만 가지고 도망간다.

여태껏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으니 자식들이 웬만큼 큰 이젠 공허하시다. 고등학교만 나오신 어머니는 전문적인 능력이 없으시다. 취미생활도 하지 않으신다. 아직 취미 생활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 하신다. 엄만 며칠 전 직장에 나갈 거라고 했다.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것갈 공장에. 엄마는 그곳에서 다른 아줌마들이랑 얘기도 하고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 자위하셨다. 누난 반대했지만 난 일이 엄마 몸에 쉽다면 가시라고 했다. 직장을 다니시면 엄마의 외로움증에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웬지 쓸쓸했다.

어머니의 그런 성격은 외할머니에게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딸만 일곱을 낳았는데 외할머니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곱 딸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다. 그래서 외가 쪽은 친가 쪽과는 달리 명절 때만 되면 수십 명의 가족들이 모여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다복하게 지낸다. 참고로 2년전에 돌아가신 외증조할머니도 증손자인 나에게 가지 신경을 쓰시는 정 많은 분이셨다.

지금도 외할머니는 고추 몇 자루를 들고 버스 타고 일곱 집을 다 다니시고, 어머니는 아직도 내 밥위에 반찬을 놓으신다. 외증조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계속 외할머니, 어머니 옆에 계실 것이다.

◆ 누나 ◇

참 하나밖에 없는 나의 형제이다. 옛날엔 엄청스레 싸웠다. 이젠 좀 친하다. 누난 어릴 때부터 나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았다. 콩나물 하나라도 덜 먹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은근히 아들에 신경 쓰시니까. 누난 중학교 올라오면서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공부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래도 포기하진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해 내면서 착실하게 살았다. 하늘이 감동했는지 4년제 대학 다 떨어지고 간호전문대학에 들어가 3년 다 마치고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있다. 돈도 많이 번다. 한마디로 복 받은 복녀다. 누나가 공부를 잘 못한 탓으로, 난 중3때와 고3때 고액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사실 난 다니길 절대 거부했음. 바보나 그런데 다닌다고 생각했음. 억지로 이끌려 갔음.) 내가 재수를 해서 고3을 두번 겪은 관계로 누난 대학 때도 잘 놀지도 못했고, 통금 10시라는 시각을 거의 맞췄다. 안정을 원하시는 아버지와 희생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누난 나름대로 자신을 죽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

지금 누나의 꿈은 남편 멋진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돈도 많이 저축하고 살도 열심히 때려 한다.

♣ 나? ♣

난 패륜아, 프락치, 이중인격자다.

우리 가족은 현대의 가장 지배적인 핵가족의 전형이다. 부모님, 나를 포함한 동생들까지 꼭 다섯의 인원. 한 번도 집안의 어른들과 함께 복적거리는 큰 집에서 살아본 경험도 없고-아버지는 7명이나 되는 자식들중 유일한 아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거의 맨손으로 시작해서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위치를-커다란 사회적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다-점하고 사는 도시소시민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가족이야기

먹고사는 것이 커다란 일상의 문제였던 시대. 아버지는 50년대에 태어나 60년대, 70년대를 힘차게(?) 살아온. -지금은 명예퇴직과 감봉의 칼날아래 온통 푸대접을 받고 있긴 하지만- 거창한 꿈보다는 그저 남들과 같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자식교육시키고 시집장가보낸 뒤 최소한 남에게 손벌리지 않고 사는 것이 지금의 삶의 목표이신 분이다. 어려운 가정사정 때문에 흔히 말들하는 외동아들로서의 대접같은 것 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열악한 경제적 여건하에 고학으로 대학을 나오고-그당시 집안의 경제적인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들었다-맨손으로 시작하여 성실하나로 자수성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이 평균치에는 그다지 뒤지지 않는 결과로 살 수 있게 되신, 그 시대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겠지만 과거에 대한 자부나 노력하나면 무엇하나 불가능할게 없다고 믿었던, 그리고 믿고 계신 전쟁세대, 새마을 운동세대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인텔리 -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 로서의 면이 가족 내의 민주적인 분위기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지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다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들에 대한 커다란 기대와 엄청난 교육열정도(남들보다는 조금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특히 어린나이에 시집을 와 - 당대엔 가난이 죄였다고 한다 - 가정주부로 이날까지 변변한 사회활동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신 어머니는 그런면에서의 불만을 자식들에게 기대하신 경우가

다. 아버지에게 결혼초에나 그 이후에도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쇼핑같은 사소한 것까지 의도적이었던 아니었건간에 의지하셨고 그저 자식들 크는 것 보고 가족들의 뒷바라지가 전부였던 분이다. 그러던 어머니가 종교-교회일이 요즘 어머니의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에 심취하게 되신 것은 아버지와 자식들에 대한 실망, 스스로의 위치에 대한 문제제기-내가 이날 이때까지 이집안에서 해온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에서 비롯된 허탈함과 괴로움의 도피처로 선택한 것이 종교라는 출구가 아니었나 생각해볼 뿐이다.

부모님과 나를 포함한 동생들과의 관계는.... 나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와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다. 어려서부터 절대 곁으로 드러나는 가부장적인 권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그냥 곁으로 볼 때 아버지는 상당히 가정적이고 집안에서 큰 소리치며 온가족을 공포에 떨게하는 분같아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어머니를 자신만이 가족들에게 오해받는다는 이유로 더욱 감감하게 만든 요소이기도 하지만-그런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해계 모니를(?) 인식하고 있어서 었는지도 모른다. 최종결정은 - 물밑이라해도 - 아버지가 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는 그러한 문제들은 경제력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늘상 반농담. 반진담으로 - 내가 특히 소위 결혼적령기라고 얘기들하는 졸업시즌에 가까워진 이후로 남자친구의 존재에 대해 진지하게 탐문(?)하시려는 모습-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호위호식하는게 너 편할거라하시긴 해도 가끔씩은 진지하게, 특히 아버지와 다투실 경우 "반드시 직업을 가지고 너자신은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을 꼭 갖추라"고 신신당부를 하신다. 당신이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일지라도 사실 가방을 꾸리는 제스처어가 단지 제스처어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계셨던 어머니였기에 경제력이란 어머니에게 부재했던 "힘"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어머니가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력이 갖추어졌다해도 과감히 결단을 내리실 수 있었을까?

우리들의 교육에 대하여.... 우리 가족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내 동생들로 인해 시작됐다. 어느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엇나가기 시작한 동생들의 책임을 추궁하며 호통치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난다. 왜 동생들의 행동들이 전적으로 어머니의 탓이었다고 돌려져야만 했을까? 자식들에 대한 교육의 대소사는 어머니에게 돌려놓고 부재했던 아버지의 책임은? 어머니가 그렇게 묶여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들 때문이었지만 - 어머니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 역할에 대해 한 번도 교육받지도 검증받지도 못한채로 맡겨진 과중한 책임, 단지 우리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이중으로 책망받을 수 밖에 없

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결혼 자체에 대한 질문,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성에 의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맡게 될지도 모를 어머니라는 역할에 의의, 철이 들면서 내가 집에서 스스로 하기 시작한 것은 식후의 설거지였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의문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거부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치부된다. 가족내 나뉘어진 남녀간의 분업.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는 내게 어떠한 말도 하질 않는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여기 부엌, 가정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가?

얼마전 엄마가 아침 일찍 내게 전화를 거셨다. 조용조용 한결같이 목소리를 낮추신 채 말이다. 엄마는 대뜸 내게 과외비를 받게 되면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셨다. 나중에 갚아주신다면 말이다. 의아스러웠다. 엄마는 아이보는 아르바이트를 4년째 해 오고 계신다. 하루종일 아이를 보고 나면 엄마는 가족들 저녁상만 간신히 차려주시고 쓰러져 주무신다. 그렇게 아이보는 일이 힘든데 비해 한달에 20만원씩 받는 월급은 사실 박하기만 하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 천만원이 다 되어간다. 그런 엄마가 내게 1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사정은 이러했다. 막내 이모가 올 가을에 결혼을 하시는데 아빠가 축의금으로 10만원만 내겠다고 하신 것이다. 좀 친분이 있다 싶어도 5만원 정도 축

나의 가족이야기

- 진희네 -

의금을 내는데 엄마의 친 혈육의 결혼에 10만원만 내겠다고 했으니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는가. 우리집이 넉넉하진 않아도 아빠의 놀라운 재테크 기술(한국 사회에서 보통의 노동자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모으는 방법은 안먹고 안쓰고 죽어라고 돈을 모은 다음 대부를 받아 집을 산 뒤, 평수가 큰 집으로 자꾸 이사를 다니는 것이다. 일단 집이 생기면 돈은 그 다음부터 알아서 새끼를 친다.)과 지독한 근검절약 정신으로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만큼은 모면했다. 아빠는 정성만 표시하면 된다면, 속마음은 아내의 집안에 당신이 버신 돈을 주기가 끔찍할 정도로 싫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는 비장의 무기를 드셨다. 엄마가 당신이 버신 돈으로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아빠가 엄마의 통장과 도장을 꼭 전체 내놓지를 않으시는 것이다. 아버지의 논리는 이러하다. 그 돈은 비록 부인이 번 돈이지만 그 돈은 부인 맘대로 쓸수 있는 돈이 아니다. 난 지금까지 자식과 가정을 위해 죽어라고 일

만 했다. 내가 버는 돈은 다 생활비, 아이들 등록금으로 나가는데 왜 아내는 자신이 벌었다고 자신의 맘대로 쓰고자 하는가. 결국 우리 엄마는 당신이 버신 돈에 손도 못댄채 아빠에게 그 권리를 다 빼앗기고 말 것인가. 아니면 아빠가 잊고 있던 그 돈의 목적을 한 번 더 상기시키실 것인가(원래 그 돈은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싶으신데 아빠가 위자료를 주실 것 같지 않아 이혼 뒤 독립 자금으로 쓰려고 저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짧은 하나의 일화가 우리집의 역사를 다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에 짓눌렸던 한 불행한 남자. 가족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소비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노동에 대가를 받아 본적이 없기 때문에, 화폐로 환산되지 않는 아내의 노동을 생계유지를 위한 또 다른 노동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남자. 그래서 자기의 어깨만 휘어진다고 생각했던 쓸쓸한 남자. 나아가 돈을 매개로 부인이나 자식의 삶을 자신의 가치관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남자. 그래서 가족들에게서 등돌림 받았던 남자. 돈이 아까워 골프나 스키는 고사하고 낚시나 등산같은 취미하나 변변히 없었기에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삶의 즐거움을 찾았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절묘하게 결합해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인물이다.

또한 우리 엄마. 남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주글주글해지고 꽤색해 가는데 별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더 예뻐지는 우리 엄마(사실은 푼돈이라도 벌어서 자신을 위해 조금이나마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면서부터 엄마는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아빠가 휘두르는 경제적 무기 때문에 화장품 한 번 변변한거 써보지 못한 우리 엄마. 아빠의 인색함과 독선과 바람기에 대들다가 이불속에 파묻힌채 맞던 엄마(아빠는 자식들에게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수없이 이혼을 결심했으면서도 남편의 벽 밖으로 나가기를 무서워했던 우리 엄마(난 우리 엄마를 소심하다고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적어도 아빠의 폭력성은 남편없고, 돈없는 여자가 사회에서 감수해야할 다른 남성들의 폭력보다는 견딜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혼 시기를 막내가 대학만 가면, 자식들이 시집장가갈때까지만 하고 미루다가 지금까지 이혼 못하고 있는 우리엄마. 아빠가 항상 나쁘기만 한것도 아니고 가끔씩 사는 잔 재미도 주기에 그냥 그렇게 사는 우리 엄마. 일주일에 두 번 과외 가면서 한달에 50만원 받는 딸에 비해 하루종일 아이보는 중노동을 하면서 겨우 20만원 받는 우리 엄마.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삼남매는 절대로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라왔다.

덧붙이는 말: 엄마는 엄마처럼 살자 말라고 늘 내게 말씀하신데 반해, 우리 아버지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며 반항하는 자식들의 말을 듣고 충격받으셨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시며, 그리고 탄식하셨다. 녀들이 언제 봉황의 깊은 뜻을 알래, 쫓쫓...

우리 집에는 6식구들이 모여 산다. 내년이면 환갑을 맞으시는 할머니, 집안 장남으로 고생 많으셨던 아버지, 덕분에(?) 같이 고생해 오신 어머니, 그리고 언니, 오빠와 나이다.

나는 어렸을 때-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도-할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았다. 가끔 집에 들르시는 할아버지가 반갑기보다는 낯설고 서먹했다. 함께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안 후에도 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어려서였으리라. 할아버지가 다녀가시고 나면, 엄마와 할머니와는 마찰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빼앗기신 후,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함인지 할머니는 유독 당신 아들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셨고 그로 인해 나의 엄마는 꽤 시집살이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집에 계셨었다. 중풍에 걸리신 후에야 말이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다른 여자와 살다가 병에 걸린 후에야 돌아오신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많이 미웠을 것이다.

나의 가족이야기

- 혜영이네 -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리신 후부터, 6식구의 생계를 책임지셔야 했다. 직업을 위해 서울로 상경하신 후 아버지의 도움으로 삼촌들은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했다. 어디 아버지 뿐이라. 나의 어머니도 같이 사는 시동생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특유의 장남의 성격을 가지셨다. 과묵하시고, 엄격하시고, 권위적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없음에 질려 재미있고 다정다감한 남자가 좋다는 말쑥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성격은 20대 초반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 그러시던 아버지가 요즘에는 우리들(언니, 오빠와 나)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신다. 퇴직을 앞두고 쓸쓸하시리라. 가족과의 정보다는 생계에 쫓겨 여태까지 살아오신 이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나의 아버지가 아닐까?

나의 어머니는 내가 생각해도 참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다. 할머니가 유별나셔서

인지 며느리들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고 트집을 잡으시는 일도 많았다. 요새야 안 것이지만 젊어서는 이혼할 생각도 많이 하셨다 한다. 나같아도 그럴 것이다. 넷이나 되는 시동생들, 시어머니, 병이 드신 시아버지. 엄마에게는 너무도 많은 짐이 주어졌다. 요즘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많이 돌아다니신다. 그런 후에 엄마는 활기를 찾으신 것 같다. 진정한 자신의 일을 갖는 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가족제도가 얼마나 여자에게 많은 억압으로 다가오는지 나는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깨닫는다.

환상동화 속

옛날에 환인부인(桓因婦人)의 둘째딸 환웅(桓雄)양이 있었는데,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사람의 세상을 탐내고 있었다. 이때 그 어머니가 딸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사람들을 널리 유익하게 해줄만했다. 이에 환웅양에게 천부인(天府印) 세 개를 주어 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양은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에 있는 신단수(神檀樹) 밑에 내려와서 그곳을 신시(神市)라 하고, 자칭 환웅여천왕(桓雄女天王)이라고 했다. 그녀는 바람과 비와 구름을 맡은 신을 거느리고 곡식과 인간의 수명, 질병, 형벌, 선악에 관한 일을 주관하며, 모든 인간들의 3백 60여 가지 일들을 주관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속에 살고 있으면서 항상 환웅여천왕에게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여왕이 신령스러운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모양으로 변할 것이다.' 했다. 곰과 범이 이것을 받아먹고 21일 동안 조심했더니, 곰은 남자의

속 단군신화

- 뽕그이 -

의 몸으로 변했으나 범은 조심하지 못해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다. 웅남(熊男)은 혼인할 사람이 없으므로 날마다 신단수 밑에서 아이 갖기를 빌었다. 이에 환웅이 거짓 몸으로 변해서 그와 혼인하고, 잉태하여 딸을 낳으니 이가 곧 단군여왕점이다. 그녀는 요가 즉위한 지 50년만인 경인년에 평양성(平壤城)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白岳山) 아사달로 옮기니 궁홀산(弓忽山)이라고도 하고, 또 금미달(今彌達)이라고도 한다. 나라를 다스린지 1천5백년 만인, 주나라 무왕(武王)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 단군할머니는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 선녀가 되었는데, 나이는 1천 9백 8세라고 한다.

마치며> 단군신화가 생성이 되었던 청동기 시대에는 처음으로 계급 분화가 있었다. 그 때부터 부계사회 즉 남성중심의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 현대의 잘못된 성차별 문제와, 그것을 사회화시키는 사회 곳곳의 요소의 원인을, 그당시에서 찾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폐가 있다. 하지만 남성의 우월성을 역사적 요인에서 찾으려, 또한 그 사실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단군 신화를 각색해 보았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님은 큰 고만에 싸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지 10년이 흘렀음에도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임금님은 자신의 할아버지 때 부터 왕실 전속 마법사로 있어왔던 칼가노스를 부르기로 했지요.

부름을 받은 마법사는 왕비와 임금님의 손을 잡고서 한참 동안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초조해진 왕은

"도대체 문제가 뭐요?"

심각한 표정으로 요정은 말했습니다.

"폐하, 폐하께서 그 동안 함께 즐겨오셨던 수많은 궁녀들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임금님이 소문난 난봉꾼이라는 건 결혼 전 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한갓 마법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서 임금님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거야..... 내 원 참....."

"혈통을 잇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폐하께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감입니다."

결에서 가만히 이야기만을 듣고 있던 왕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열여섯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는 이날 이때까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석녀로서 받아왔던 수모를 생각하면 십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심각해진 왕은 마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방법이 없겠소? 내가 온갖 부정 축제에 처녀로부터 시작하여 신하의 부인들까지 거칠 것 없이 섭렵해온 이 시대의 한량으로서 전대의 선왕들에 비추어 하나 부끄러운 점이 없건만 자식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 대가 끊기는 것을 둘째치고 - 나의 남성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평판이 무엇이 되겠소? 내 나의 이제 겨우 쉰 네 살인데 나의 그런 무능력이 알려진다면....."

"좋습니다. 그럼 부인이 어떻게든 아이를 생산하시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소, 남의 자식이라도 좋으니 대외 선전용이 꼭 필요하오."

남의 자식이라는 말에 좌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씨내리를 들이십시오! 사람은 제가 책임지고 고르겠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 소원이 -

자신의 정력을 과시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 잡혀 있던 왕은 철저한 비밀 보장을 약속받고 모든 걸 허락했고 왕비는 수모의 눈물을 흘리며 저항을 해 보았지만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강요아래 자신의 말을 책임지는 마굿간 지기에게 겁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곧 왕비가 임신을 했음이 드러났고 10개월이 흘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왕의 분노는 곧 왕비에게 떨어졌습니다. 임신중독증에 산후우울증까지 겹쳐 침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왕비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박을 맞아 흠씬 때까지 얻어맞은 채 궁궐에서 쫓겨났고 마법사 칼가노스에게도 체포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왕의 폭력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하긴 했지만 자식은 딸로 점지하는 '저주'를 건 것이었습니다. (왕은 예전에 칼가노스의 '에첩'을 빼앗은 일이 있었습니다.)

왕은 다시 '열 다섯 살'의 공녀를 맞아 결혼을 했고 공주는 무럭무럭 잘 자랐다. 어린 공주는 날이 가면 갈수록 총명에 총명을 거듭하여 주위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공주에게는 모든 일이 다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주였으니까, 몇가지 공주의 품위에 어긋나는 아주아주 '사소한' 몇가지 일들을 제외하고 - 정식 교사에게 공주는 수학, 과학, 철학이 아니라 수놓기, 피아노치기, 화장하기, 예쁘게 웃고 울기 등을 배웠고 부과목으로 좋은 아내가 되는 법, 튼튼한 사내아이를 생산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물론 조숙한 공주는 스스로 몰래 다른 공부를 하긴 했지만 다른 책들을 보는 것이 들킬 때마다 유모 또는 교사에게 "그런 건 '머리가 약한' 공주님께 어울리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드보일드한 세상살이는 사내들 몫이랍니다. 공주님은 그저 예쁘게 하고서 그런 위대한 남성들의 '선택'을 받아 곁에서 상냥한 내조자로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면 되는 거랍니다." 라는 말들을 지겹도록 들어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금지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궁궐의 맨 위 꼭대기 방에 절대로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두다리를 가지고 있던 공주에게 그런 금기가 무슨 소용이랴.

어느날 꼭대기 지붕말 방으로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몰래 훔쳐나온 열쇠 꾸러미로 하나씩 열쇠 구멍에 끼워 보았지만 제대로 맞는 것이 없어 공주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쇠는 하나 밖에 남질 않았는데 이것마저 되질 않으면.....'
"찰라!"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 가장 조그만 열쇠가 들어맞았습니다.
거기는 어두컴컴한 골방이었는데 수많은 고서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있었다. 몇 개를 대강 뒤적뒤적 해보면서 제목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였습니다.

"공산당 선언..... 자본론..... 태백산맥....."

그 수많은 책더미에서 한아름 책을 찾아 안고 자기방으로 돌아온 공주는 그날 밤부터 열심히 독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주의 고민은 계급투쟁이 되었고 이런 봉건적인 사회행태의 모순을 깨야 한다는 강렬한 필요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계속 허전한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붕말방을 몰래 찾아간 공주는 한무더기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의 관련 서적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이것들은 지붕말방에 쌓인 금서 중에서도 특A등급을 달고 있는 그 불온 문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탐구열을 식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연히 발견한 '왕비의 일기'. 밤새 그 일기와 서적들을 읽고난 공주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억울하게 쫓겨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베개를 적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새로운 자아정체성의 정립에 골몰했습니다. 이전에 맑스의 책들을 읽으면서 답답함들의 정체들은 그 주어들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었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은 사실 공주로서가 아니라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자신에게 주입하려했다는 것에서 괴리감을 느꼈음을 깨달았습니다.

'난 여태까지 허상속에서 살아온 거야!'

공주는 자신의 책상위에 놓여있었던 수많은 지침서들 - 현모양처 되기, 좋은 어머니란 - 등의 책들을 모조리 방안 난로속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몰래 암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고 혁명을 위해 마음에 맞는 동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주의 변화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던 유모의 미행으로 인해 이 일은 왕에게 알려지고 말았고, 공주는 포박을 당한 채 끌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혈육도 아니었고 저지른 일들이 껄뻘하여 당장 사형에 처하고 싶었으나 혈통을 이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만류로 차선책 - 공주에 대한 신비로운 소문을 내어 출입을 통제시키고 그러고도 찾아오는 골빈 아무 왕자하고나 결혼을 시켜 버리자는 - 을 선택하기로 하고 공주를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공주는 마법에 걸려 숲 속의 음침한 성에서 용감한 왕자님이 구하러 올 때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다'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금의 폭정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온 백성들에게 공주는 암행을 통하여 상당한 지지를 확보해두고 있었고, 이 소문이 전해지자 이것이 조작된 허위라는 사실을 궁궐 소식통을 통하여 알게 되어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 궁궐로 쳐들어 왔습니다. 이 백성들의 주력부대를 한 북면의 여성이 이끌었는데 전국 곳곳

는 허겁지겁 달려들어 잔뜩 배를 채운 후 주위를 돌아보았다. 벽 한쪽에 일곱 개의 작은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일곱 개의 침대에 가로로 누워 잠이 들었다. 깊게 잠이 들었던 그는 눈을 파고드는 눈부신 등잔불에 그만 잠을 깨고 말았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못생기고 추한 일곱 명의 난쟁이 여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엉덩이가 커다란 여자, 가슴이 납작한 여자, 곰보인 여자, 뼈드렁니를 가진 여자, 들창코인 여자, 잔주름이 가득한 여자, 발이 큰 여자, 여자들은 너무나 기뻐했다. 물론 자기들끼리 함께 일하고 수다떨고, 소풍가는 것도 좋았지만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을 보자 신선한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한 번도 자신들의 외모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던 난쟁이 여인네들은 왕자의 입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비웃음과 조롱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 처음엔 부끄럽고 당혹스러웠지만 점차로 아름다움에 대한 일방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왕자가 우스꽝스럽게까지 보였다. 그들은 왕자의 비웃음을 꺾등으로 넘겨 버렸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왕자가 집안을 어지르거나 하고, 설거지도 빨래도 식사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여인네들이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더욱이 자신이 여인네들을 책임지겠다고 큰소리치며 활을 들고 숲속으로 나가 번번이 빈손으로 돌아올 때는 참을 수가 없었다. 여인네들이 갈아 놓은 밭만 망쳐 놓았고 짐승들을 성나게 해 더 이상 염소젖도, 알도, 산양 털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밖에서 큰 일이나 한 것만냥 집에 와서는 꿈짝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인네들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후 왕비는 국경 지방에서 편지를 한 장 받았다. 왕자가 숲에서 실수로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는 내용이었다.

인어 공주

- 해영 -

아주 옛날, 깊은 바다 밑에 아름다운 인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밑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보물과 진귀한 보석 같은 것들이 가득 했습니다. 진주며 산호며 갖가지 조개, 물풀들, 물고기로 가득한 바다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이 곳에 바로 인어들이 살고 있던 것이죠.

이 인어들의 세계는 사유 재산이 없는 관계로 재산을 둘러싼 다툼도, 그에 기반한 계급도 온갖 범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분배 받는 세계, 우리가 흔히 그리는 유토피아가 이 곳이었죠.

이 곳에는 얼굴도 예쁘지 않고, 키도 별로 크지 않고, 그다지 날씬하지도 않은 우리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각자의 개성이 나름대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 사회의 이상형에 맞춰 가야 한다는 부담,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여주인공 해영의 장점은 사고성에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해영이의 따뜻한 마음씨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 반하여 그녀가 있는 곳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는 가끔씩 풍랑을 만나 가라앉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바다 위 인간들이 쓰는 물건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해영이는 이 물건들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밖 세상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소재였기 때문이죠. 해영이의 할머니는 가끔씩 바다 밖 인간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해영은 이 순간을 참 좋아했습니다. 아직은 세상 밖으로 나가기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녀는 2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먼저 세상 밖을 경험해 본 그녀의 언니들이 바깥 세상은 탐욕과 시기,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며 환상을 버리라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스무 살 그녀의 생일이 지난 뒤 해영은 바다 밖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그녀의 눈 앞에는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파티를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인어들의 세계에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광경이 인어의 눈에 비춰진 것입니다. 객실 안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옆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술시중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남자는 한 여자에게 추근대고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여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남자들의 시중을 드는 여자들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인어 해영의 가슴엔 이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꾸밈음의 물결이 출렁 거렸습니다. '이 따위 세상에 내가 환상을 품고 있었다니, 정말 내가 바보였어.' 인어 해영은 마음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물 속 자신들의 세계를 향해 헤엄쳐 갔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에 기대어 배 속 광경을 구경하던 인어 해영의 모습을 왕자가 보고 만 것입니다. 왕자는 해영의 묘한 분위기에 반했습니



다. 왕자(인간)세계의 여자들은 모두 주눅이 들고, 자신 없어 하는 면이 많았고 시대의 유행에 휩쓸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의 분위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인어 혜영이의 모습은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한 번 밖에 보지 못했지만 왕자는 혜영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육지로 돌아온 후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인어 혜영을 만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요. 마침 소문난 마술 할머니가 주위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그 할멈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마술 할멈은 두가지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왕자가 영원히 인어가 되는 방법과 (사랑을 위해서) 하루 동안 인어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습니다. 왕자가 24시간 이내로 돌아 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인어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한 번 바다 밑 구경을 한 뒤 결정하기로 마음 먹고 인어로 변하는 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 밑 세계의 혜영 인어를 찾아 다녔죠. 물결이 그를 혜영 인어에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는 혜영 인어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바다 속 세계를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인어 세계 사람들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오래 살 수 있었고, 누가 누구에게 군림하지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 남을 위하여 사는 모습은 그가 여태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왕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노력을 하세요. 책을 만들든, 언론을 장악하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면 인간세계는 무너질 겁니다. 당신의 작은 노력이 인간 세계를 구원할 수도 있어요.”

왕자는 이 말을 듣고 희망에 찼습니다. 자신의 위치라면 이러한 노력의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인어 혜영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신이 만들 나라를 향해 힘차게 헤엄쳐 갔습니다.

남녀의 성을 바꾼 이야기

- 철규 -

xxxx년 x월 x일

오늘 그녀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섣불리 결혼은 생각되지 않는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은 큰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그녀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 낳고 기르면서 오손도손 행복

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도 부모님이 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오손도손 살고 싶다. 그리고 대학교육까지 받은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지는 않다.

사랑하면 그런 희생은 감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잘 모르겠다.

xxxx년 x월 x+1일

아주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와서 남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의 이러한 제도와 관습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있는 세상의 여자들에게 화가 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는 남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xxxx년 x월 x+2일

회사에서 내가 곧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나보다. 부장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이제 곧 결혼하면 회사 그만 두어야지. 남자들은 좋겠어. 집 지키고 애나보면 되니 말이야.” 평소에도 굵지 않은 시선으로 나를 보던 그녀는 비꼬았다. 결혼하면 회사 생활도 한층 더 힘들어지겠구나.....

xxxx년 x월 xx일

드디어 결혼을 결심했다. 어쩌면 내가 세상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남자의 운명이겠거니 하고 그냥 살지는 않겠다. 난 회사에도 계속 나갈 것이고 집안에서 그녀와의 관계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접어 두었던 Manism 공부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의 꿈은 부모님, 여우같은 마누라, 토끼같은 자식과 한평생 오손도손 사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꿈이 무어나고 물어보면 나는 간단히 이렇게 말해버린다. 하지만 한 번도 여자의 입장에서 이 꿈을 바라본 적은 없었다.

이번 ‘성의 역할바꾸기’라는 친구끼리의 과제를 통해 이러한 나의 소박한(?) 꿈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이 소중하듯 그녀 또한 그녀의 부모님이 소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것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나의 글에서 등장하는 ‘나’는 결국 사회 체제에 굴복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만다. 이것은 현실의 ‘내’가 가지는 한계와 통한다.

여러분들은 이 한계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런 생각도 해 보다니 뽕그이 자식 징그럽게도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 아이들 치맛자락 들추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암튼 옛날 기억은 접어 두고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 과연 어떤 아낙네와 같이 살지, 또 어떻게 살아 볼라는지를..... 그리고 결혼은 한다는 전제하에 쓰겠다. 동거나 독신, 나아가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에, 결혼이라는 굳어진 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아낙네랑 멋지게 살 지에 대해 생각해 볼란다.

생각해 보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난 다소곳하고 조용한 여자에 호감이 갔었다. 그냥 좋았다. 그래서 그당시 내가 좋아하던 텔런트는 선우은숙, 전인화, 전도연 등이었다. 물론 나이는 아줌마만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 그런 기준으로 호감가던 내 나이 또래의 여인네도 있었으니까.

재수할 때 부터 대학 와서 약 4개월 간 동안에 조금 바뀌었다. 먼저 편안한 여자, 그리고 어떤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그곳에

나의 연애관 결혼관

- 뽕그이 -

미칠 줄 아는 여자 이렇게 두가지만 갖추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편안한 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이고, 다음에 말한 기준은 어머니를 보면서 생각한 것이다. 당신의 삶을 찾아 볼 수 없이 오직 자식의 삶에 당신의 인생을 거신 어머니를 볼 때, 나의 아낙네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지금의 어머니의 위치를 이해할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치를 조금의 흔들림 없이 지키신 어머니가 자랑스롭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의 분위기가 바뀐 지금에서 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가진 여성을 나의 아낙네로서 거부한다. 다시 말해 나의 어머니가 가진 공동체를 위한 철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나는 거부한다. 어떤(not any but some)일이든 자신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기준에 맞는 아낙네와 한 번은 가까이 지낼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 아낙네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것이었다. 그 원인을 수백번 생각해 본 결과, 내가 말로 만든 몇 줄의 글자로 된 기준에 맞는 아낙이었지만, 이성끼리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였다. 내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뿐더러, 그 아낙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대학물을 몇 개월 먹다 보니 이렇게 두가지 조건을 가진 아낙네가 무척이나 많았다. 모두 내 아낙네로 삼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생각했다. 어떤 기준을 더 잡아야 하나.....

그런데 차차 알 것 같았다. 비슷한 관심사가 있어서 서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후에는 그냥 느낌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아직은 나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 곳에 고민할 곳이 많다고... 아직은 아낙과 같이 있는 것은 능력 밖이라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사는 와중에 누군가 자연스레이 눈에 띄일 거라고... 그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아낙은 정말 멋진 아낙일거라고 자위하면서 시린 옆구리를 담배의 온기로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한 여인네가 다가 왔다. 취향도 참 독특하지.....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나도 호감이 가던 여인네라 뿔 듯 기뻐했지만, 아직 내공이 덜 쌓였다고 생각 했기에, 또 내공이 덜 쌓인 상태에서 여인네를 가까이 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쪼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눈물을 머금고 말했었다.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담에 내공이 다 쌓이거든 보자.' 라고 말했다.

아쉬비.....

지금은 가을이다. 대학 오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가을의 황량함을 가슴 시리도록 느낀다. 백양로의 수많은 여인네를 뒤로 한 채 담배만 늘어가는 나..... 언제나 내공이 쌓일려나.....

생각해 보면 난 너무 기형적으로 살아왔다. 중학교때 어려서, 고등학교때 남자학교라서 아낙네들을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재수할 때만 해도 아낙네의 눈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재수하면서 많이 컸쥬. 그래서 연애관과 결혼관을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까지 쓴 것도 결혼관인지, 연애관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낙을 쉽게 쉽게 가까이 하기 힘든지도 모르겠다. 암튼 내공만이 빨리 쌓이기를 기다릴 뿐이다.



연애에 관한 단상

- 이선민 -



I. 들어가며

“연애를 잘하고 싶으면 여성학을 공부하라”

이 말에 대해 선뜻 ‘동의한다/동의하지 않는다’의

반응을 표명할 수 없게 되는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안타

까울 때가 있다. 우선 이 말이 ‘연애’라는 것이 무묘한 남녀들이 경박하게 의미없

이 시간 등을 소비하는 행위라고 전제한 후,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자극적인 연애

무용담 정도로 비아냥거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와 별반 다를바 없이, 기사도에 입각해 (어디까지나 권력은 남

자가 쥐고 있으니) 여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 서비스차

원에서 여성학과 관련된 말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그’

들의 뻔한 의도를 알기때문이다. 가끔 이 말은 급진주의 페미

니스트들의 문제제기와 관련된다. 연애, 사랑, 결혼이라는 것

또한 가부장사회의 남-녀의 관계를 권력관계를 그대로 반영하

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사랑’이라는 허위로 포장되어 평등해보

일지 모르나, 사실 관계는 ‘남성우위·남성중심의 질서’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성의 시각에서 관계를 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한다.

II. 마치 사랑-연애는 ‘사적인·여성고유의·평등한·이상적

인 관계’들로 규정되며 그 안에 머무르는 여성들은 험난한 가

부장사회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짜증스러운 환상(이것은 현실

이기도하다)이 우리의 머리속에 가득하다. 그러나 Kate Millett가 헨리 밀러의 『북

회귀선』을 분석하면서 남-녀의 성관계조차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찌들어있다고 말

한 것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실의 연애관계들은 남성중심의 ‘보이는/보이

지 않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폭력들에 의해 휘둘러지고 있을 뿐이다.

III. 연애, 남녀관계의 문화가 ‘강간문화’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지.

강간이라고 해서 페니스를 질에 삽입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거칠게 남성중심주의·이성애주의 등의 가부장제의 쓰레기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아주 온화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의 의사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관계설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남성적 욕구와 기호들에 의해 상대방의

동의와 배려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말함이다. 유사 이래의 이런 빈곤한 사랑·

성·연애의 각본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로맨스, 자연스런 사랑의 욕구, 남성적
박력, 황홀한 경험, 통과 의례 등으로 적당히 포장되어 관계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다.

IV. 5년 동안 연애하면서 손만 잡아줬다는 커플의 이야기에 대해 대개의 남자아
이들이 그 남자의 무능력을 탓하는 실소를 보내온 것을 들어야 했다. 뒤이어 남자

친구로부터 성관계를 맺기를 ‘요구’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여자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단 연애관계에 입성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남자들이

여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난 이것이 남자의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라던지,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사실 남자아이들은 연애관계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

이 그들의 목표-사랑의 절정¹⁾이라고 오해하고 있고, 성기크기로

인격을 평가하는 사회·성적인 능력으로 남성을 평가하는 사회에

서 ‘성관계여부=능력’이 되어버린다.

또한 여자의 처녀성을 중시하는 잘못된 사회에서 여자를 ‘소유

2)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같다. 그들

의 논리로 ‘사랑하기에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불

성설인데, 그들이 정녕 그녀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녀가 하고싶

지않다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면서까지 ‘시키지’는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이것은 그녀가 그와 성관계를 ‘맺고/안 맺고’의 결과론적

인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되는데, 대부분의 그녀들은 ‘그가 떠

날까봐’라는 두려움으로 그와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자라면서 고분고분하기를 배워왔고, 그는 그녀를 소유하고 지배해야한다는 것을

익혔기에³⁾. 뿐만 아니라 연애관계 밖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현실이 존재하기에 ‘사

랑-연애’ 그 자체가 평등한 인간적인 관계가 되기 힘들다. 현실의 그런 불편함들이

연애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는 역도 성립한다.

사실, 이런 오해들이 풀리지 않는 한, 막연히 ‘그녀도 좋아할 꺼야’ 아니면 ‘사랑



1) 일례로 사랑의 표현 (관계의 표현)에는 단계가 있다. 이것은 ‘손을 잡는다 - 어깨에 손을 올린다 - 키스한다 - 예뻐한다 - 성관계’로 도식화된다. 이 단계는 철저히 위계질서화 되어있기까지인데, 손을 잡는것은 감정이 덜
녹아든 유치한 표현이고, 성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이다. 마지막 단계인 성관계는 마치 사랑의
절정이자 목표·지향점이 되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남성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2) ‘그’들에게 있어 여자를 소유하는 것은 사랑과 관계의 완전한 소유이기도 하고 그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 자리잡는다.

하니까' 등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은 '사랑-연애'를 더 험뻑게 만든다.

V. '사랑-연애'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근대의 결혼이 교회·정부에 의해 고안된 것도 기복있고 요동치는 이러한 감정들을 제도로 묶어두고, 그들을 관리하기위함이라는 말이 설득력있게 들린다. 문제는 '영원성이 있느냐/없느냐'가 아니라 '영원성'이 유포시키는 수많은 환상들이다. 거기에 두 남녀의 배타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성립되는 연애관계는 결혼이라는 틀로 '묶어두고 관리되지 않으면' 다시 배타적인 관계들로 갈라지게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라는 틀로 입성하여 감정이 소위 '식어서' 헤어지게 되면, 그 둘은 영원히 '원수처럼' 또는 '소 닭보듯' 지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종말은 다소 끔찍하기까지 하다.

VI. 끝으로

무책임하게, 연애관계이건 아니건 인간들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기대해본다.

‘관(觀)’이라는 것.....

가치관이나 인생관 같은 얘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누구나 하나 정도는 정리된 '관'을 가지도록 요구받지만 연애관이라니... 처음 이 글을 쓰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저 행복하게'라는 딱 두마디의 문장이었다. 내게 사실 어떠한 구체적인 연애관이라는

연애관과 결혼관

- 소원 -

게 있었을까? 결혼관은 차치하고서 말이다.

특히 여성학적인 시각으로 연애관을 바라본다는 건... 내게 아주 낯설은 작업일 수 밖에 없었다. 페미니즘이라고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애기로는 가장 배격해야 하는 대상중에 하나가 낭만적 사랑이라고들 하던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적인 분석부터 들어가야 하나?

3) 여성에게는 성과 관련하여 무지와 빈곤의 상태가 미덕으로 여겨졌기에, 그녀들은 성/그녀의 성적 욕망에 관해 말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여성은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속에 속해본적이 많지 않았기에, 최유와 강암의 상황은 그녀의 말문을 닫아버린다. 그에 반해 남성은 '침묵은 동의' 내지는 '종으면서도 괜히 내숭떠는 걸꺼야'라는 근거없는-그들은 그녀들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질문을 하고 동의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자기중심적 망상속에서 관계의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다. 이런 일반화적인, 수직적인 권력성정은 모든 인간관계를 힘겨게 만들뿐이다.

그 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굳이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이 있다면 그저 서로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되려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생각만큼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다. 개별 인간들-완전히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서 어느정도 자신의 확립된 도그마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개별 간에 만남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거라는 건 금방 떠올릴 수 있지만 말이다.

‘아름다운 구속’ 이라고 모모 가수가 부르던 노래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 누군가는 이 역설적인 단어의 조합이 바로 사랑의 본질을 꿰뚫는 거라는 얘기를 할 법도 하지만, 내 생각엔 사랑이 일단 서로를 구속하는 것으로-불론 본인들은 그것을 처음에는 구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 그것이 관성화되어 서로에 대한 일종의 강요나 의무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것은 주의를 해야할 것 같다.

약간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서...

앞에서 잠시 언급한 '낭만적 사랑'이 그렇게 배격되는 건 남녀 사이에 초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권력관계라는 것을 가장 교묘하게 감추는 기제로서 작용하기때문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맞는 말인 것 같다. 세상의 모든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고 의식여부와 상관없이 한쪽의 성이 다른 한쪽을 억압한다는 것은 - 가부장제를 통하여 (이는 단지 가족제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전 분야가 이러한 형태로 조직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 인정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남녀 사이에는 이러한 모든 것이 초월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현실인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정말 그렇다면 두 남녀의 만남을 통하여 재생산되는 가족과 그것이 구성하는 사회의 억압과 권력관계가 철폐되어야 맞는 이야기일 텐데 그 순환고리는 끊기지 않고 확대재생산되고 있으니 정말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사실 누구나 사랑에 대해서만은 - 우리나라에서 가족이 일종의 성역 비슷하게 간주되는 것과 같이 -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고 문제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 역시 그 과정은 쪼끄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관계에 대한 깊이있고 솔직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난 '대화'에 방점을 두고 싶다. 두 사람간에 솔직한 대화. 무엇이건간에 대화하려는 노력과 그 시도들은 중요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6년전, 한 선배가 내게 물었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 때, 난 거만하게 웃으며 짧게 내뱉었다.

“feeling이요.” 그리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언어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철학적 생각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랑은 “feeling”이 전부라고 생각해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이 “너 애인 있나?” 라고 물으면 한참을 주뻛거리다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라고 말할 땐, 그가 누구인지 그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최영미 시집 인용)”고.

- 연진희 -

그렇다.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애인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을 ‘애인’으로 불러야 하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개인적 친밀감, 내면의 공유, 생활의 공유, skinship 등등을 ‘사랑’의 요소로 꼽는다면, 글썽, 나는 (skinship을 제외하고) 앞에 열거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나는 나를 둘러싼 각각의 사람들과, 각각의 느낌과 각각의 생각을 나누는, 다른 색채의 관계를 경험한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각각 나의 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전부’를 이해하는 사람과 공간을 찾지 못해 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건 처음부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나의 일부나마 진실 되게 공유하고 있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사랑하는 관계’의 특수성을 sex(폐쇄적 관계 내에서)라고 친절히 가르쳐 준다면,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skinship만으로 ‘그’와 ‘나’의 관계를 다른 관계와 비교해 볼 때 그 관계의 차이가 얼마나 다를 것이며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내게 ‘성’은 ‘사랑’을 규정해 주는 절대적 잣대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만은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말이 지닌 신비성과 폐쇄성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관계의 주체들이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성적 충동’을 느낀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길들인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삶을 자신의 잣대로 뜯어고치려는 건 폭력이다. 내가 ‘Leaving Las Vegas’의 두 연인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알콜 중독자와 창녀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살아가는 방식을 긍정해 주는 모습 말이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조차)

‘사랑’의 고유성도, 폐쇄성도 받아들일 수 없고, 나의 삶의 방식이 타인에 의해

수정되기를 바라지 않는 나로서는 ‘결혼’이란 제도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과제이다.

나에겐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진다. 결혼 제도에 대한 부정, 아니면 제도 안에서 무언가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의 생각이 구체화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만해도 나는 낭만을 꿈꾸는 소녀였다. 드라마 속 캠퍼스를 동경하며, 그 안에서 그려지는 남녀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에 나를 대입했던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우습지만, 지금은 그런 낭만이라는 것이 지극히 비현실적이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사실 드라마에서처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눈이 맞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으며, 아님 소설에서처럼 첫 눈에 뿜 가는 관계가 가능이나 할까? 설사 가능하다 해도, 그러한 감정은 그야말로 순간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연애라는 관계에서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허망함을 지적하고 싶다.

나의 연애관에 대하여

- 혜영 -

사람사이에는 그것이 어떠한 관계이건간에 참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테니까.

한 여자(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한 남자(여자)가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그(그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이 많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큰 의미를 갖을 수도 없을 것 같다.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소위 친구같은 연애를 지향한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 싹트는 사랑이 진짜가 아닐까?

결혼이라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내 연애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자면, 누군가의 회생을 밟고 선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잘 알고 위해주는 관계, 자신의 배우자를 인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관계가 되는 결혼생활을 해 나갔으면 한다.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꼭 결혼이라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이다. 지금의 결혼 제도는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는 관계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슬기롭게 주위 사람(시댁식구)들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면 좋겠지만, 나의 극단적인 성격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도 같다.

그러나 앞으로, 나만의 삶이라 불릴 수 있는 부분-직업과 사생활-은 지켜가겠다는 원칙만은 고집하고 싶다.

연애를 할 때 기본은 상대방이 '여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연애를 한다는 것이 서로에게 억압으로 다가와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이 서로를 서로에게 희생하게 하거나 구속되면 안된다.

그렇다고 위에서 언급한 것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의 연애관

- 철규 - 내가 서두에서 얘기하는 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거나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희생이 되겠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도 희생과 희생이 아닌것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없다. 하지만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그 경계를 구분하고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니, 쓰면서도 굉장히 어지러운증을 느낀다. 연애에 대해 스스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서로의 걱정거리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서로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개성을 존중한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취미를 가진다.
상대방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

「페미니즘사상」

로즈마리통의 「페미니즘사상」으로 세미나한 내용을 본문정리와 Discussion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내용은 7장실존주의페미니즘을 제외한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제1장 자유주의 페미니즘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사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본주의의 실현과 남성중심의 세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유주의 사상에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국가개입배제를 주장하는 자유의지론 자유주의자와 복지와 평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로 분류된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의 궤적을 따라 두가지로 나뉘는데 각 주장에 따라 시대적으로 차별성을 보이는 이론과 정책들을 주장하게 된다.

18, 19, 20세기 각 시기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메리 월스톤크래프트, 존 스튜어트 밀 & 해리엇 테일러, 베티 프리단)를 중심으로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살펴보자.

18C 자유주의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교육

18C에는 산업 자본주의 세력이 노동력을 사적인 가정에서 공적인 작업장으로 끌어냄으로써 부르주아 계층의 기혼 여성들이 가정에 묻혀 버렸다. 그럼으로써 여성은 사회로부터 소외되며 감성적인 동물로 인식되게 되었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기본적으로 규정된 전통적 남녀 성별 역할을 부정하고 감성적인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통해 이성적 여성으로 변모시킴으로써, 자유주의의 이성의 영역을 남성에서 여성을 포함한 보편적인 인간으로 확장시켰다. 하지만 사회가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통해 얻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자율성은 가정내에서 소진될 것이다. 다시 말해 18C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한계는 사회억압에 대해 순종적이라는 것이다.

19C 자유주의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시민권과 경제적 기회)

밀과 해리엇은 총체적인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개인 효용의 극대화라고 전제하고, 여성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여성이 직업을 갖게 함으로써(공적 영역에 투입됨으로써)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권에 대한 탄원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가정을 여성의 영역이라 파악하여 여성에게 공적, 사적 영역의 임무를 모두 강요했기 때문에 공적 영역으로 나갈

수 있는 여성은 부유한 중산층 이상의 여성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계급적인 한계를 그대로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여성의 영역을 사적영역으로, 남성을 공적영역으로 고착화시켜 남성이 사적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20C 자유주의 페미니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취급의 장점과 약점)

베티 프리단은 '여성의 신비'에서 여성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획득을 위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모두 활동하는 슈퍼워먼이 되라고, 밀과 해리엇의 주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의견을 개진한다. 하지만 25년후에 쓴 '제2의 단계'에서는 여성을 작업장으로 편입시키는 일과 남성을 가정으로 유입시키는 일을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는 작업을 옹호하였다.

다시말해 '여성의 신비'가 여성들을 남자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촉구한 반면, '제2의 단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양성적인 인간이 되는 날까지 성차이를 인정하도록 촉구하였다. 로자런드 로젠버그는 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하고 있다. "만일 여성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특별한 이익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그 집단이 열등하다는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차이점을 부정한다면 여성운동이 흔히 그랬듯이 여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결국 '제 2의 단계'에서는 페미니즘을 인본주의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비판

먼저, 공동사회주의자의 비판을 살펴보자.

첫째, 모든 사상은 운동이라는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하는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것은 운동으로 물화되지 못하고 개인의 차원으로 축소되었다.

둘째, 남성의 덕목과 인간의 덕목을 동일시하였다.

셋째, 생물학적 성차이가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렵다.

넷째, 사적 영역에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여성적 특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럼으로써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을 감성적, 히스테리칼한 영역으로 격하시켰다.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의 비판을 살펴보자.

첫째, 이성을 자유주의의 판단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육체/정신의 이분법이 나왔고, 그에 따른 성역할을 비판하였다. 다시말해 여성의 활동을 육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영역의 종사로만 격하시킨 것과, 남성의 자아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행위자로 인식한 것을 비판하였다.

둘째, 인간을 이성적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추상적 인간으로 정의한 것을 비판하였다. 그들은 인간이란 관계와 삶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어지는 것이라 말했다.

셋째,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결론

첫째,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인본주의의 실현이다.

둘째, 인본주의의 실현은 교육, 법제도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는 사회 전체의 개혁을 통한 자본과 여타 요소들의 동원이 필수 불가결하다.

DISCUSSION

Q&A

〈Q.1〉 은하 :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인간상은 성적차이가 불식된 중성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성적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새로운 재구성인가?

다슬 : 태어날 때부터 성별 구분 없는 무성적 교육을 시킨다면 중성적 성으로 길러지고 성적인 남성/여성 구분에 의한 차별은 사라질 것이다.

로자 : 구체적으로 '중성적' 교육은 무엇인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라라 : 아이에게 성장과정에서 남성적 성질과 여성적 성질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되어야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남성적/여성적 가치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브레히트 : 하지만 그러한 중성적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기존의 사회구조 자체가 고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의 현실적 가능성이 의심스럽다.

루카치 :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의 양성성이란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서 중성성이 아니라 사실 현존하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전제로 하여 언급하는

것 같다.

토토로 : 중성은 경험되어 지지 않은 것인데,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단일성(완전한 개성을 가진 양성성의 존재)의 제시와 다수의 성 존재(개인의 특성을 스펙트럼하는 과정 인정). 하지만 그러한 단일성은 성취되어 질 수 있을까?

민수 : 현실적으로 남성/여성 생물학적 구분과 관계없이 다른 성의 특성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적으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관순 : 양성성의 여성의 발현은 자연스럽고 신비한 것으로 여겨지나 양성성의 남성성에 의한 발현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져왔다. 즉, 누구에 의해 나타났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 열등한 것으로 나타나는 양성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봉창 : 양성성을 자질로서 인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양성성의 가치를 다양한 인간 본성 중 하나로 복원하고, 그러한 속성이 어느 특정 성에게 귀속된다는 관념 탈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작업이 교육, 문화 등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구 : 그러한 발현이 생물학적 성차의 구별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양성성이 아닐까?

태수 : 차이자체를 불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태내에서조차 관습적-문화적 영향을 받는다(태내교육). 실상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이전조차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존중과 두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어야 하며, 선부론 단일화는 개인을 무시한 폭력이 될 수 있다.

승원 : 실상 이러한 부문은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식의 개혁-혁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한 남성/여성 이분법 철폐의 선언은 무의미 할 수 있다.

<Q2>제희 : 차이의 인정이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열등한 집단으로 규정지어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남녀차별의 오류로 다시 빠질 수 있다.

로즈마리 : 위의 관점을 인정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의 맹점으로서- 그러나 여성이 사회의 여타 제도로부터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석 여성할당제 등을 비롯한 여성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마찬가지로 남성내에 존재하는 차별도 인정해야 한다

푸코 : 궁극적으로 인간의 차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전체 논의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 집단의 총학 출마 같은 것이 될 수 있겠다.

잔다르크 : 개인의 차이로서의 인정이 필요하지만 여성이라는 집단의 차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차이의 인정이 어느 한 쪽을 기득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생리, 출산휴가가 그 예이다.

도연 : 남성/여성의 성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차이가 관습에 부딪치고 이를 위해 여성성을 복원하고 이를 보완키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완해 준다고 보호를 받는 여성 집단이 열등함

을 느끼고 남성은 우월감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이 우월, 열등을 타파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어렸을 때 부터 성적 차이에 대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석규 : 보완에 대한 열등함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되는 인식이 필요하다. 어렸을 때 부터 양쪽의 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앵겔스 : 제도적 평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고, 악영향만 미친다. 제도마련은 생물학적 성차를 인정하고 똑같이 경쟁하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비너스 : 20% 여성할당제 역시 남성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가부장적인 조직을 강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설립이 아니라 여성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

니체 : 필요하다. 성폭력 방지법에 대한... 여자가 경쟁해서 국회로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남성들 중심의 국회가 구성되는 이런 주제에 대한 해결이 능동적이진 않다. 제도밖에 있는 목소리가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필요하다.

푸르스트 : 법의 효용성을 인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카뮈 : 필요하지만 한계들 역시 존

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참여 이후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생물학적)의 목소리는 모두 여성적인가 하는 문제역시 제기될 수 있다.



제2장 맑스주의 페미니즘

맑스주의 이론과 맑스주의 페미니즘 개관

맑스의 유물적 사관 “물질의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지적 생활의 일반적 과정을 조건지우며,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처럼 이 사회의 성별분업구도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구도는 사회속에서 ‘생산’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를 규정짓는 자본주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노동’의 범주속에서 여성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노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 시켜 자본가에게 임금을 댓가로 판매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교환체계가 아니라 생산양식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그렇지 못한 노동계급간의 권력의 문제가 담겨있다. 마찬가지로 교환이 아닌 권력의 억압으로서의 여성의 노동이라는 것은 여성의 사고와 ‘여성의 본성’을 형성하게 된다. 여성이 가진 것이 없기에 매매춘과 출산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불평등한 임금계약을 맺는 것처럼) 선택의 자유라기보다 강요에 가깝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서술에 의하면 “생산양식과 생산력간의 모순관계로 모든 사회는 자체내의 붕괴가능성을 갖는다.” 앞의 가능성을 갖는 자본주의 사회는 ‘소외’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이 개념을 공유한 사람들은 ‘계급’을 형성한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계층형성과 관련해 물론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경험(가사노동의 문제, 사랑과 봉사의 이데올로기)속에서 여성은 계층을 형성한다고 밝힌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자. 맑스주의가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사회구조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처럼, 맑스주의 페미니즘은 “남녀모두에게 그들이 완전한 인간의 잠재력 실현을 허용할 사회구조와 사회적 역할들을 여성, 남성이 함께 건설한다”는 해방적 개념하에 성별관계와 사적유물론 사이의 내적 연관성과 차이점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엔겔스의 저서를 중심으로 한 맑스주의 페미니즘의 여성 억압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고찰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람들의 물질상

황의 변화가 어떻게 가족관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애초의 모계의 혈통에서 생산력의 발전과 가족의 이용 등으로 분업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생산의 우위를 점하는 남성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성별노동분화는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가지며 여성의 일은 이전보다 가치가 낮은 일로 하락하게 된다. 이것이 모계에서 가부장사회로의 변화과정이다. 성별노동의 분화와 함께 형성된 일부일처제는, 남성이 경제력을 독점하여 경제력을 상실한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정서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성된 가부장제는 有産남성과 無産여성의 계급구분결과이다.

이러한 일부일처제의 결혼과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사유재산을 둘러싼 사회제도임을 가정할 때, 여성들은 우선 남성들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한다.

여기서,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인 “모든 여성의 공적 산업으로의 재투입과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가 도출된다. 엔겔스는 노동계급의 사유재산의 결핍은 일부일처제에 대한 남성의 동기-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의 출산-를 제거하고, 노동계급의 여성의 사회적 노동을 통해 남성노동자와 함께 계급의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남/녀는 평등한 성·사랑을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노동계급의 가족/결혼이 유산계급의 그것보다 가치가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여기서 그는 물적토대만으로 ‘모권’의 전복과 여성 억압의 기원들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그는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노동의 성적분업은 “성행위에서의 노동의 구분”이라고 지적하며 성적분업과 관련한 여성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의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분명한 것은 이성애제도에 뿌리박고 있는 노동의 성적분업은 적어도 사유재산제도만큼이나 여성의 억압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의 맑스주의 페미니즘-가사노동논쟁과 관련하여..

맑스주의 이론은 여성의 출산이나 성의 문제보다는 그 기본틀인 노동의 문제, 즉 여성들의 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여기에서는 간단히 가족내의 성별분업적 노동의 가치문제(가사노동논쟁)를 축으로 최근의 이론을 소개하려 한다.

산업화와 상품생산으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사회는, 산업사회 이전의 생산의 장소였던 가정을 공적인 작업장에 대립되는 개념인 ‘사적인’가정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공적인 작업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임금을 받는 ‘생산적인’ 남성들

제2장 맑스주의 페미니즘

과 대조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간주되었다. 엥겔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산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발생하는 오류였다고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여성들과 아동들도 노동인구로 전화(轉化)될 것이라는 당시의 주장은 자본의 기호에 맞게 노동인구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다수의 여성들이 그의 예상과 다르게 사적공간인 '가정'내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들의 노동의 문제-가사노동의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여성의 일은 하찮은 것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한 '소비'자이다. 이 견해에 마가렛 벤스톤은 여성은 본래 생산자이고 소비자는 부차적 역할이라고 말하며 가족내의 그녀의 생산활동에 대해 그녀의 노동의 산물이 상품화 될 수 없는 것이 여성의 노동에 대해 부당한 시각을 만들게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녀의 견해에 의하면 가사노동의 사회화 없이는 여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런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갖는 의미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성의 일은 모든 다른 노동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은 구체적 잉여가치를 창조해낸다는 논리를 근거로 국가(정부와 자본가 계급은 궁극적으로 여성의 착취를 통해 이득을 본다)에게 "가사노동임금"을 지불하자는 주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가사노동만 전담하는 가정주부보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하류계층의 맞벌이부부와 독신자들에게는 부담만을 안겨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주부가 되고, 계속 가정주부로 남도록 '권장'하는 상



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낳았다.

이것은 여성 스스로에게 다른 일을 할 기회를 박탈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의 경향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며, 남성들은 여성의 일을 할 압박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여성들은 남성의 일을 할 동기를 잃은 채 성별분업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가사노동임금제에 반대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다. 여성 내부에 계층의 문제를 단순화시킨 채 맑스주의적 입장의 '계급'으로 여성의 위치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내의 노동만을 강조한 나머지 작업장에서의 여성노동인구를 필요로 하는 자본의 입장을 놓치고 말았다.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의 문제뿐 아니라 가정 밖의 작업장에서 노동의 성별분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동일한 노동임에도 성별에 따른 다른 임금을 받게되고, 또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한 낮은 평가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게된다. 비교가치는 가사노동임금문제와 유사하게, 또 다른 고정된 성별적 노동-여성적 직업의 대가로 높은 임금이 주어질 경우, 그 직업에 여성이 안주하게 될 수 있다-을 만든다는 우려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정된 노동의 가치 설정을 흔들어 놓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맑스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에 대한 언급은 별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드물게 논의하거나, 설령 하더라도 성과 일(노동)을 동등한 범주로 비교하려는 성향을 가진다. 이것은 재거에 의하면 "계급과 성별에 의한 지배를 모두 똑같은 구조로 설명한다. 여성의 성에서 연유하는 특수한 형태의 억압들은 맑스주의속에서 맑스주의적 처방으로 해결될 뿐이다."

맑스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매춘과 결혼에 대한 맑-페적 분석에서 매춘부의 문제와 아내의 문제를 정도 차의 문제로 밀고나가 버린다! 매춘과 결혼을 포함한 모든 매춘에 대해 싸우는 것은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품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와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 여성의 처지를 목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맑스주의가 여성해방을 보장하려면, 가부장제가 단순히 자본주의와 불완전하게 교차하는 체계가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체계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맑스주의 페미

니즘은 맑스적 혁명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없는 것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가족내의 문제부터 성별 분업의 문제까지 그들의 경제학적 수사로만 논의한 것들에 대한 비판은 있다. 공/사의 분리 구도, 가정/작업장의 분리, 재생산/생산의 연관성, 성별 분업의 문제와 노동의 가치문제는 (물론 경제의 문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지만) 단순하게 자본주의 하의 문제로, '일'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여성과 노동의 문제 (성별분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전의 관념과 행태를 깨렷했다는 것은 분명하다(육조의 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자!).

문제는 맑스주의 페미니즘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없는 여성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고, 여타의 문제의식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3장 급진적 페미니즘 출산과 어머니역할

들어가며

급진적 페미니즘의 갈래는 상당히 다양하며 그것을 하나로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어느정도 공유할 수 있는 기본내용은 여성억압이 최초의,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뿌리깊은 인간의 억압형태라는 것이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는 여성억압의 어떤 양상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예술, 정신성, 음식, 생태, 출산과 어머니역할, 성별과 성활동 등의 주제중 하나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 책에서 논의대상으로 삼는 지점은 성별과 성활동, 그리고 출산과 어머니역할에 연관된 부분이다. 이들은 여타 페미니스트, 즉 자유주의나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에 비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의 육체를 통제하고자 시도하는 방법에 집중했다. 또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특히 남성들이 여성 자신이 아닌 남성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의 성활동을 구축한 방법을 명백하게 묘사하였다.

출산의 의의

「성의 변증법」에서 슬라미스 파이어스토운은 가부장제, 즉 여성억압의 기원이 생물학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사회적으로 분업화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재생산역할이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거에서 먼저 남녀의 구분된 성역할을 제거하고 양성문화를 지향할 것을 주장했으며, 가부장제가 부과했던 성의 역할을 제거하고 가부장제의 신화로서 존재하는 출산의 허구성을 뒤집어엎음으로 가족의 필요성조차 해체된다고 말했다. 비슷한 논조의 마지피어시는 이러한 파이어스토운의 주장을 「시간의 벼랑에 선 여인」이라는 소설을 통해 형상화시키면서 성역할 제거를 위한 기술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생물학적 차이를 제거하고 공동체양육을 이야기했다.

위의 두사람이 자녀출산을 여성억압의 원천으로 바라본 반면 다른 이들은 돌을 비판하면서 출산을 여성해방의 원천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먼저 여성에게 출산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출산 전과정을 통제하는 남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출산의 능력은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유일한 의존의 원천이기 때문에- 주장하였다. 또한 여성억압의 원인을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비판하며 문제는 생물학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생물학에 대한 남성의 통제-출산기술에 관한 남성의사들의 전과정 통제-에 의해 생기게 되

었다고 주장하였다.

아드리엔 리치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고유한 능력을 남성이 두려워하고 가부장제의 변성과 존속을 위해서 어머니의 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인식한 결과, 출산과 양육과정에 대한 남성의 통제권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불법 낙태 수술로 사망했음'이라는 글씨판을 달고 있다.
임신중절을 합법화 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

그러므로 리치는 여성들이 만일 임신과 분만의 책임을 떠맡게 되면, 이러한 경험들은 수동적 의미보다는 적극적 의미를 뱉 수 있다고 하였다.

안드레아 드워킨 역시 여성의 출산능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남성은 여성을 독특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성적으로, 출산으로서 남성에게 봉사하는 계층의 구성원으로 평가해왔다고 하였다. 가부장제내에서 여성은 생계뿐만 아니라 생활자재를 위해 남성에게 의존하고 그들의 육체를 양도하는 매춘형여성과, 매춘형여성에게 비해 쉽게 대치될 수 없으며 후계자 출산이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배려'를 해야만 하는 농사형여성으로 나뉘었다고 보았다.

후자는 여러 가지로 남성에게 비효율적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새로운 출산능력의 발전과 더불어 매춘형과 농사형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며 이로인해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라 분업화·기능화된 대상으로 대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 지배력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산기술이 여성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어머니 역할 : 사랑할까, 포기할까?

생물학적인 어머니와 사회적인 어머니 사이의 구분이 엄격하게 주어져 있진 않지만 제거와 같이 <어머니역할>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양육하고 돌보는 관계"

로까지 확장시킨다면 한 개인이 사회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존의 가부장제사회는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동일하게 그 아이를 키우는데도 가장 적합하다고 가르친다.

몇몇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신조가 어머니의 신체와 에너지에 대한 과중한 요구라고 보고 생물학적 어머니역할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웠다. 어머니가 될 필요성은 여성이 "난소와 자궁을 보유"했다는 생물학적인 기원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머니가 되도록 조건화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즉, 모성애는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발된" 것이며 어머니로서의 능력 역시 학습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일대일 양육방식,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담된 - 어머니만이 자식을 잘 키울수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 양육방식을 비판하고 사회적 양육, 집단적 양육의 바람직함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급진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가부장제의 이념들을 계승시키는 장소인 가족의 해체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다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였고, 여성은 가부장제에 대한 분별없는 도전의 행위로 분만뿐만 아니라 아이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자신에게서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문제는 모성에 자체가 아니라 가부장제가 그것을 구조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억압의 기제로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분만 그리고 육아의 <온전한>지배권을 가지게 될 때, 더 많은 어머니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생물학적 모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DISCUSSION

Q&A

〈Q.1〉 카오루 : 출산기술의 발전으로 여성이 출산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이 남녀의 차이를 제거하여 여성에게 더 큰 힘이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스카 : 모성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가. 현재 우리에게 있어 모성의 의미는 과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미사토 : 여성억압의 원천은 출산이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출산·어머니 역할이 사회적 평가를 받아오지 못했다. 모성의 신비화속에서 모든 여성들이 가부장제에서 필요로하는 어머니로서 일괄적 사회화·개인의 특성에 관계없이 생물학적인 원천만으로-가 이루어져왔다.재평가가 반드시 요구된다.

도우박사 : 모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모성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그것이 가부장제 내에서 어떻게 억압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모성을 자녀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포함하는 공동체, 여타 인간들을 향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유대라는 사회적인 방면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의 긍정적인 역할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우림 : 과거에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거의 통합된 모습을 보였다. 현재의 단절의 결과 부성이 약화되고 이러한 여성의 출산능력이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계승의 역할로 규정지어진 가정의 의미를 여성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모성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가부장제를 전복시킬수 있는 사회화-양육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를 전담할수 있다.

쥬쥬 : 어머니로서 타인과 관계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부장제적 사회내의 인간관계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 경쟁의 대상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타자와 나를 분리시키고 대상화시키는 것이 가부장제 내에서의 기본적 관계설정이라고 한다면, 출산을 담당하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훨씬 더 풍요롭고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을 생활로 삼고 대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어머니는 현 가부장제내의 한계적인 인간관계의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4장 급진적 페미니즘

밀레트는 여성억압의 기원은 가부장제가 구조화시킨 성/성별 체계에 있다고 본다. 이것은 흔히 생물학적 결정론에 입각해 남성은 지배적·공격적역할을 여성은 종속적·수동적인 역할로 규정되는 상황이다. 밀레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각의 긍정적인 여성성(예를 들어 부드러움...), 남성성(일반적으로 적극성이라 칭해지는 성향)등의 조화를 통한 양성성에 주목한다.

밀레트의 양성성과 달리 프렌치의 양성성은 실제로 여성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프렌치의 양성 개념이 여성의/여성적인 성질은 그대로 둔채, 대부분의 남성의/남성적인 특질에 대한 문제제기와 재해석이 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녀는 지배자(자연을 파괴하는 이미지로서의 남성)에 대한 대응세력으로서의 여성성을 강조한다.

데일리는 성별 양극성에 대한 기존의 문제제기방식이 남성성/여성성이 보존 가치가 있는 개념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며 전통적인 여성적 특질에 대한 재해석을 시작한다. 그녀에 따르면 '여성다움'이라는 것은 실제 여성적인 특질과 아무 연관성 없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틀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찬양되는 여성다움-착하고, 유순하고, 암전하고...-이 아닌 가부장제적 언어가 여성을 경멸하는(추한 노파, 노처녀...)용어에서 해방적인 의미를 찾아낸다. 니체의 가치체계전도의 문제의식은 데일리의 의미로는 가부장제가 여성들에게 '악'이라고 주장한 것은 실제 여성들에게는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급진주의자들의 성/성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적 역할과 여성의 성적욕구의 억압에 대한 것으로 구체화된다.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성활동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공격적-수동적이라는 남녀의 역할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남성은 성활동을 통해 여성을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강간, 성추행, 포르노 등을 통해 남성이 여성의 육체를 소유하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 성활동을 하게된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Pornography

페미니즘 이전의 포르노 논의는 '시민자유주의vs문화보수주의'로 압축될 수 있다(97년 여름 한국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1970년대가 되어서야 여성의 시각으로

포르노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는데 포르노는 단순히 성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성애적 관계속에서 여성에게 행사되는 남성의 권력이라는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다. 포르노를 보는 것 자체가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해도 포르노에서 여성이 불구화되고 저급한 존재로 재현되는 상황과 포르노가 갖는 코드화된 사랑-성의 공식은 남성중심적이기 때문에 대개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를 반대한다.

Lesbianism

여성자신의 성활동을 여성 스스로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페미니즘과 레즈비어니즘은 대강의 의견일치를 보기도 하나 그 자체가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묶일 수 없다. 가장 일반적으로 급진주의자들이 레즈비어니즘을 가부장제적 질서를 벗어난 여성공동체의 승인, 여성이 여성에게 애정을 느낀다는 것, 이것은 한편 남성에게 성을 포함한 여성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해방적인 의미로 바라본다.

급진주의 페미니즘 비판

A.Jaggar에 따르면 급진주의는 생물학 자체를 고정된 가정으로 삼고 인간본성에 대한 결정론적 입장을 취한다. 생물학 자체는 역사적·환경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다. (유물론적 생물학)여성의 신체·심리에 대한 소유여부자체가 여성의 선택으로 절대화된다는 가설은 여성/남성의 다른 생물학적 특성자체가 바람직/비바람직하다는 논리로 빠져들게 되고, 이것은 급진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생물학적 결정론과 남녀 위치만 바뀐 상황으로 귀결된다.

또한 능동/수동, 이성/감성, 정신/육체의 이분법이 '좌변은 우등함을 우변은 열등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여성의 타자성을 위시해 주변적 의미들을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그 이분법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존재자체가 선하다는 가정과 관련해 여성의 생물학적 기반에 대한 본질주의적 입장 뿐 아니라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선하다는 것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본질주의로 회귀하는 정치적·분석적 위험이 있다. 가부장제의 불가피성·본질성의 가정은 변화가능성을 봉쇄해버릴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자민족 중심주의·서구중심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부장제는 오히려

려 다양한 분석틀로 해부되어야만 한다.

급진주의가 이런 비판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성활동이 권력의 문제로 여성억압적일 수 있다는 것,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간의 페미니즘 논의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들이 말해준 여성의 육체가 여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 또 여성 스스로 여성을 긍정하는 방안들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DISCUSSION

Q&A

〈Q1〉 쿤데라 : 프랜치는 남성을 자연파괴의 이미지로 상정해놓고 가부장제가 이러한 자연파괴의 결과로서 출현하였다고 본다. 또한 여성은 자연친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가부장제 이전의 자연과 남성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형도 : 가부장적인 이분법에 의해 남성의 가치를 공격적, 경쟁적, 지배적, 소유적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여성적 가치에 과잉된 의미부여나 신비화는 경계되어야 할 듯 싶다.

〈Q2〉안나 : 급진주의자들의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나, 성활동등 그 동안 사적인 것들로 간과되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소위 공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생략되어버려 사적인 것들이 그야말로 사적인 것들로 끝나 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동주 : 오히려 그녀들이 말한 것은 사적/공적 이분법을 넘나드는 것이 아니었을까.

타란티노 : 이것은 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연결될 수 있다. 푸코가 말했듯이 성은 사회적·역사

적·구조적인 산물이다. '성'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스필버그 : 정치화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들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정치화되어야 할 '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이 있는 것 같다.

말로 : 그러한 경계를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름할 것인가? 이 논의는 시민자유론자들의 입장과 구조주의자들의 입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은 개인적 사생활로서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결국 이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롬 : 현실 생활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분명히 사적 영역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대안적 이데올로기를 산출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공간으로서의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개인들의 규정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할 듯 싶다.

〈Q3〉딜타이 : 포르노를 비롯한 성과 관련된 표현물에 대한 검열-검열철폐(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버마스 : 일단 모든 검열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성화시키면

시킬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르디외 : 단순히 그 상황을 '검열 vs 검열철폐' 두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난 한국의 여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여자를 조금이라도 더 벗기는 것이 더욱 진보적(?)-검열은 철폐되어야하기에-으로 간주되는 상황들... 이것은 남성적 방식과 남성적 기호들에 의해 성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혹은 은밀하게 유포되는지의 문제일 뿐이지, 문제의 본질인 포르노가 갖는 정치적 효과 등을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의 왜곡된 성적 환타지에 의해 더 많은 억압적 상황에 방치될 수도 있다. 그 어디에도 여성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용 : 일단 표현의 자유나 검열이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포르노가 갖는 사회적 함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포르노 자체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포르노에는 여성을 물신화시키고 대상화시키는 남성의(카메라) 시선들이 존재할 뿐이다. 포르노가 유포시키는 포화된 성적 이미지들은 전형적인 사랑과 성(이성애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이고, 나이중심적인 성관념들)의 각본을 더욱 고착화시킨다. 또한 포르노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은 철저히 남성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실제 포르노

시장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매매, 구타, 협박에 시달린다고 한다.

물론 검열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 싫지만 이런 문제제기 없이 선불리 검열철폐를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호머 : 문화라는 것은 다양한 층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문화자체보다는 문화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할 듯 싶다.

삼포 : 문화/예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소비하는 주체에 대해 주안점을 두는 것으로 접근 방법을 옮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소비과정에서 이데올로기적 개입을 해야 할 듯하다.

〈Q4〉에코 : 다양한 성활동(새도매저키즘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사드 : 여성들이 정말 그 행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가에 대해 말해져야 한다. 여성들은 그녀들의 성적욕망을 말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혼란받지 못했다. 언제나 성과 관련하여 무지와 빈곤의 상태가 미덕으로 여겨졌다.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봐리 : 이것은 한편 모든 관계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동의"라는 것을 항상 수반해야 한다. 동의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제5장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스트들은 프로이트에게서 억압적인 사고경향뿐만 아니라 해방적인 사고를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것을 페미니즘에 접목시킴으로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으로 발전시켰다.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근원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먼저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로이트는 어린이들은 분명히 성심리학적인 발전단계를 거치며 성별(gender)은 성적인 성숙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유아의 남자, 여자는 성활동을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조되는 성별역할로 귀착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년들은 페니스를 가진 반면에 소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년소녀가 남근기의 콤플렉스를 해결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사내아이의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머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소년은 어머니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거세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소년들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이로써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콤플렉스를 해결하게 된다. 소녀들은 소년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콤플렉스를 해결한다. 소녀들 또한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지만 갖출 것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아버지로 넘어가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어머니)을 잃게된 상실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페니스의 궁극적인 대체물인 아기를 원하게 된다.

소녀들은 외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를 거치면서 능동적인 성적 목표로 수동적인 성적 목표로 바뀌면서 <자아도취적>이 되고, <허영>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심의 피해자가 된다. 이는 소년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로써 소녀들은 양심적이지도, 예의바르지도 않다.

프로이트에 대한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비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보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반대하며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열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은 여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베티 프리단은 정신분석학이 정신분석학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의 작위적인 해석에 불과한 사회과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프로이트의 성활동-생식적 성

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공적영역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주장한다.

파이어스토운은 프로이트의 성활동에 대한 무정치적 해석에 대해 비난한다. 그리고 페니스는 실제물이 아니라 그것을 상징하는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성들을 여성성의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의 구조 모두에 융합시키려는 노력도 비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레트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하고 남근 선명개념이 남성의 자기중심적인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출산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페니스 대체물을 소유하려는 병적인 시도로 해석하는 정신분석학의 입장을 비판한다.

정신분석학의 페미니즘적인 추적

여기에는 4가지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분석 방법이 있는데 그 첫번째가 프로이트주의에서 생물학적 결정론의 흔적을 제거시키는 것이고, 둘째가 외디푸스 콤플렉스 대신 어머니-자식 관계가 밀접한 외디푸스 이전의 시기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여자의 도덕성의 강점을 강조하고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비가부장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A. 프로이트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페미니즘의 거부

여기에는 3명의 페미니스트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여성의 성별 정체성과 태도를 형성하는 경험적, 문화적 영향력 강조한다.

1) 알프레드 아들러

인간의 공통적 특질로서 유아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우월함을 얻고자 투쟁하는 것이 인간의 발전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노이로제는 여자들이 우월성을 얻기위한 노력이 좌절됨으로써 생겨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카렌 호니

개인이 자라나는 환경을 강조한다. 여자의 열등감은 거세에 대한 인식보다 사회적인 종속을 실감하면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여자들은 페니스 때문에 남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3) 클라라 톰슨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은 사회적 개념으로 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세사람은 첫째로 남성의 편견과 지배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고, 정치적 분석을 제공했으며, 둘째로 인간 발달의 통합이론을 제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는 개인으로부터 비롯하여 개별적으로 발전하고, 자연과 문화사이의 공유영역에서 성장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B. 이원적 부모노릇에 대한 페미니즘의 찬반론

디너스타인과 초도로우는 개인으로서 많은 잘못된 점이 여성이 어머니 노릇을 전담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1) 디너스타인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이유를 외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찾아내고 그 필요성은 6가지 성별배열을 인도한다.

1.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소유욕이 강하다.
2. 여성의 육육적인 충동성이 표현되지 않는다.
3. 성적 흥분과 개인적 감정은 여성에게는 함께 묶여져 있어야 한다.
4. 여성들이 개인임을 거부당하고 '그것'으로 간주된다.
5. 육체에 대한 일반적인 이중감정에 연유한다.
6. 남성은 공적인 세상으로 나가고, 여자는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이런 파괴적인 성별조합은 육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돌림으로써 생겨난다고 주장했다.

2) 초도로우

외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소년들은 어머니와 완전히 분리되지만 소녀들은 어느 정도의 유대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소년을 공적 영역으로만 내몰고 소녀가 어머니의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점-여성과 남성의 상호관련성 능력의 격차-의 해결 방안은 이원적인 부모 노릇이라고 주장한다.

3) 비판

이들은 정신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의 외적인 변화에는 충분한 관심을 기

울이지 못했고, 단편적인 예만을 들었다. 그리고 또한 '이원적 부모노릇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원적 부모노릇은 남성들에게 더 많은 세력을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친화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찬반론

1) 캐롤 길리건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도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남성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길리건의 한계

분석을 과도할 정도로 단순화 시켰고, 여성의 보호 윤리는 여성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여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D.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향하여

1) 미첼

미첼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하면서 현대의 핵가족 제도가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오늘날의 구현체라고 주장한다.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의 터부와 여자의 교환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더이상 이 두가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사회적 불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 한계점

미첼은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했다. 오토너는 여기에 반대해서 잘못된 것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구조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그 구조에 부착한 남성과 여성의 '가치 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별 수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원적 부모 노릇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미첼은 성별은 깊이 뿌리박힌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역시 외디푸스 전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장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사상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상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성질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의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원 체계 이론과 통합 체계 이론이 그것인데, 이원 체계 이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별개의 사회 형태이고, 각각이 독립적이나 이 둘의 결합은 여성의 억압을 증폭시킨다는 것이고, 통합 체계 이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체계 이론

가부장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1) 가부장제를 이념으로 분석하는 입장

대표적인 이론가인 줄리엣 미첼은 가부장제를 비물질적으로 설명한다. 가부장제는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생물사회학적, 이념적 요소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비록 가부장제의 경제적 측면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측면들은 '성심리학적 드라마의 다시 쓰기'를 통해서만이 변경될 수 있다. 이점에서 미첼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자들과의 제휴를 시도한다.

미첼은 여성의 지위와 기능은 생산과 출산, 자녀의 사회화, 그리고 성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출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성숙-가족-생산과 공적 생활의 부재-성의 불평등'에 얽매어 있다. 자녀의 사회화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어머니 역할을 전일제로 담당하고 있다. 오직 성활동 분야에서만 여자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외면적으로 그러할 뿐이다. 미첼은 여성해방을 향한 진전이 이렇게 느린 이유로서 가족이 경제적 기능은 물론, 이념적, 그리고 생물사회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혁명에 맞먹는 정신혁명(무의식을 변형시키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후에 미첼은 좀더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을 개진한다. 미첼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인간 정신 깊숙히 묻혀 있다-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생성된 여자들의 심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불변이다-고 확신했다. 그녀에 의하면 가부장제의 이념적인 양상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양상은 두개의 별도의 영역

울이지 못했고, 단편적인 예만을 들었다. 그리고 또한 '이원적 부모노릇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원적 부모노릇은 남성들에게 더 많은 세력을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친화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찬반론

1) 캐롤 길리건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도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남성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길리건의 한계

분석을 과도할 정도로 단순화 시켰고, 여성의 보호 윤리는 여성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여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D.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향하여

1) 미첼

미첼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하면서 현대의 핵가족 제도가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오늘날의 구현체라고 주장한다.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의 터부와 여자의 교환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더이상 이 두가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사회적 불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 한계점

미첼은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했다. 오토너는 여기에 반대해서 잘못된 것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구조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그 구조에 부착한 남성과 여성의 '가치 수'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별 수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원적 부모 노릇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미첼은 성별은 깊이 뿌리박힌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역시 외디푸스 전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장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사상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상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에 대해 의식하지 않는 성질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의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원 체계 이론과 통합 체계 이론이 그것인데, 이원 체계 이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별개의 사회 형태이고, 각각이 독립적이나 이 둘의 결합은 여성의 억압을 증폭시킨다는 것이고, 통합 체계 이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체계 이론

가부장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1) 가부장제를 이념으로 분석하는 입장

대표적인 이론가인 줄리엣 미첼은 가부장제를 비물질적으로 설명한다. 가부장제는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생물사회학적, 이념적 요소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비록 가부장제의 경제적 측면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측면들은 '성심리학적 드라마의 다시 쓰기'를 통해서만이 변경될 수 있다. 이점에서 미첼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자들과의 제휴를 시도한다.

미첼은 여성의 지위와 기능은 생산과 출산, 자녀의 사회화, 그리고 성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출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성숙-가족-생산과 공적 생활의 부재-성의 불평등'에 얽매어 있다. 자녀의 사회화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어머니 역할을 전일제로 담당하고 있다. 오직 성활동 분야에서만 여자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외면적으로 그러할 뿐이다. 미첼은 여성해방을 향한 진전이 이렇게 느린 이유로서 가족이 경제적 기능은 물론, 이념적, 그리고 생물사회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혁명에 맞먹는 정신혁명(무의식을 변형시키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후에 미첼은 좀더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을 개진한다. 미첼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인간 정신 깊숙히 묻혀 있다-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생성된 여자들의 심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불변이다-고 확신했다. 그녀에 의하면 가부장제의 이념적인 양상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양상은 두개의 별도의 영역

울이지 못했고, 단편적인 예만을 들었다. 그리고 또한 '이원적 부모노릇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이원적 부모노릇은 남성들에게 더 많은 세력을 부여해 줄 뿐 아니라, 여성 내부의 친화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 여성의 도덕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찬반론

1) 캐롤 길리건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도덕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남성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길리건의 한계

분석을 과도할 정도로 단순화 시켰고, 여성의 보호 윤리는 여성을 해방시키기 보다는 여성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D. 외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페미니즘적 재해석을 향하여

1) 미첼

미첼은 기본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하면서 현대의 핵가족 제도가 외디푸스 콤플렉스의 오늘날의 구현체라고 주장한다.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근친상간의 터부와 여자의 교환이 필요하였는데 이제는 더이상 이 두가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외디푸스 콤플렉스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사회적 불필요성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2) 한계점

미첼은 외디푸스 콤플렉스가 여성의 해방을 위해 궁극적으로 해체되어야 할 것으로 상정했다. 오토너는 여기에 반대해서 잘못된 것은 외디푸스 콤플렉스 구조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그 구조에 부착한 남성과 여성의 '가치 수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별 수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원적 부모 노릇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 미첼은 성별은 깊이 뿌리박힌 속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역시 외디푸스 전체에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장 사회주의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맑스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사상의 집합체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사상은 맑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에 대한 의식하지 않는 성질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합하게 되는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억압의 완벽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다. 이원 체계 이론과 통합 체계 이론이 그것인데, 이원 체계 이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별개의 사회 형태이고, 각각이 독립적이나 이 둘의 결합은 여성의 억압을 증폭시킨다는 것이고, 통합 체계 이론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원체계 이론

가부장제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1) 가부장제를 이념으로 분석하는 입장

대표적인 이론가인 줄리엣 미첼은 가부장제를 비물질적으로 설명한다. 가부장제는 경제적 요소 뿐만 아니라 생물사회학적, 이념적 요소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비록 가부장제의 경제적 측면들이 변화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측면들은 '성심리학적 드라마의 다시 쓰기'를 통해서만이 변경될 수 있다. 이점에서 미첼은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자들과의 제휴를 시도한다.

미첼은 여성의 지위와 기능은 생산과 출산, 자녀의 사회화, 그리고 성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생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남자들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출산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성숙-가족-생산과 공적 생활의 부재-성의 불평등'에 얽매어 있다. 자녀의 사회화에 관한 한, 여자들은 아직도 어머니 역할을 전일제로 담당하고 있다. 오직 성활동 분야에서만 여자들은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외면적으로 그러할 뿐이다. 미첼은 여성해방을 향한 진전이 이렇게 느린 이유로서 가족이 경제적 기능은 물론, 이념적, 그리고 생물사회학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경제적 혁명에 맞먹는 정신혁명(무의식을 변형시키는)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후에 미첼은 좀더 정신분석학적 이론들을 개진한다. 미첼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인간 정신 깊숙히 묻혀 있다-거세 콤플렉스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의해 생성된 여자들의 심리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불변이다-고 확신했다. 그녀에 의하면 가부장제의 이념적인 양상과 자본주의의 경제적 양상은 두개의 별도의 영역

이기에, 우리는 자본주의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맑스주의 전략을, 가부장제를 타도하려면 정신분석학적 전략을 이용해야 한다.

2) 가부장제를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들의 역사적인 지배에 물적인 근거를 갖는 사회내의 관계구조로 파악하는 입장

대표적인 이론가 하르트만은 가부장제를 "물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위계적이긴 해도 남자가 여자들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남자들간의 상호의존과 결속감을 확립 내지 창조하는 남자들간의 일련의 사회관계"로 정의 내렸다. 여기서의 물적 근거는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남성들의 통제(가부장제의 성별분업을 통한)이다. 남자들은 여성이 중요한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고, 여성 스스로가 성활동과 출산능력을 통제하는 것을 막는다. 하르트만은 남자들이 끊임없이 여자들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자본주의와는 상관없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는 서로 다른 짐승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체계 이론에 대한 비판

통합체계 이론가 이리스 영은 가부장제를 이념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성의 무력감을 야기하고, 여성들에게 가부장제가 물적체계인 자본주의만큼 억압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이원체계 이론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가족을 분열시키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관계, 가족 외부에서의 여성 억압의 특징을 간과한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영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체계 이론을 발전시키게 된다.

통합체계 이론

1) 노동의 성별 구분

영도 이원 체계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은 성별의식이 없는 범주이기 때문에 여성 억압의 분석 내지는 검증에 적합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계급분석보다 좀더 구체적인 분업분석을 사용한다. 영은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성별을 상당히 의식한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는 남자를 제1의 노동력으로, 여자를 제2의 노동력으로 규정짓는다. 여기서 이를 추동하는 것은 가부장제이다. 물론 그녀는 가부장제가 자본주의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녀는 가부

장제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더욱 더 여성의 억압을 공고히 하는 것에 주목했다.

2) 소외

엘리슨 재거 또한 영과 마찬가지로 계급 외에 다른 개념-소외-을 여성 억압의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소외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과 사람들과부터 유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재거는 여성들이 성활동, 어머니 역할 등에서 소외된다고 보았다.

첫째, 여성은 자신의 육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둘째, 여성들은 타인에 의해 어머니가 되고, 몇 명의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지가 결정되어 진다.

셋째, 여성은 출산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소외당한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출산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넷째, 전문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육아로부터 소외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통합체계 이론 비판

1) 노동의 성별 구분의 한계점

영에 의하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폐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성들을 제2의 노동력에서 제1의 노동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가부장제가 남자, 여자의 본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한 영원하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영은 자본주의 가부장제가 단일체계이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의 여자들의 승리가 사적 영역으로 넘쳐 흘러갈 것이고 그 반대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적 학대에 대항하는 투쟁들이 단지 가부장제 구조들만을 침식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더 많이 발견된다.

2) 소외개념의 한계점

재거 자신이 인정한 비판점은 모든 여자들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 재거는 많은 종류의 여성들이 종족적, 인종적, 개인적 차이를 해쳐 나가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결론

현재,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한가지 개념 아래 맑스주의적 안목 뿐 아니라 급진적, 정신분석학적 안목들은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여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다양성의 회생을 담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DISCUSSION

Q & A

〈Q.1〉카레넌 : 가부장제와 역사적 발전 단계에 놓인 사회구조와의 관계에 관하여.....

안나 : 사회구조는 크게 경제적 토대를 중심으로 한 하부구조와 이데올로기, 정치, 문화 등의 상부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부구조가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질적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설정할 수 있지만, 공시적 측면에서 상부구조의 각자 영역은 자신의 고유한 구조와 역사적 발전 상황에 따라 독자적인 발전메카니즘을 가지고 작동한다. 가부장제 역시 모든 경제적 토대의 영향을 직접적이고 단일하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한 범주를 형성한다.

데리다 : 가부장제의 최소한의 정의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방식이 개인 상호관계, 조직 구성 방식, 문화 등의 형성까지 확산된 형태'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가부장제의 형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각 발전단계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제8장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프랑스 페미니즘은 후기구조주의 이후의 흐름에 동참하며 나타난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New French Feminism 이라고 보는 것은 시몬느 드 보바르의 실존적 페미니즘과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엘렌 쉼수스, 루스 이리가레이, 줄리아 크리스테바 등 이들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맑스주의, 실존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들과 비교하여 이론적 배경이나 관심분야, 논의 방향이 상당히 다르다. 기존의 페미니즘이 일종의 변명이론으로서 여성들이 [무엇]에 의해 억압받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진정한 여성해방을 위해 여성들이 취해야 할 전략과 단계들을 제공하고자 했다면,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들은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과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같은 포스트모던 철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새로이 명명될 수 있으며, 진리와 실재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가설을 거부하는 성향으로 인해, 여성 억압의 실체를 포괄적으로 규명하고 통합된 해결책을 제공하고자 한 기존의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공공연히 비난의 화살을 던진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사상에 끼친 몇가지 주요한 쟁점들

A.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실존적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은 <제 2의 성>에서 말하고 있는 '타자성'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여성이 타자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아가 남성과 동등한 평등권을 추구하는-타자에서 중심으로의 전환을 꿈꾸는-보바르의 자유주의적인 소망과는 결별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타자성이 지닌 이점을 긍정한다. 타자성의 상황때문에 여성은, 가부장제(지배문화)의 중심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에게 지배문화가 부과하는 규범, 가치, 실행들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성은 지배문화의 이분법에 의해 열등하고 억압된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억압당한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타자성은 관대함,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존재방식, 사고방식, 표현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타자성이 극복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으로서 머무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B.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해체주의

타자성-주체(남성 혹은 남성주의적 언어, 지배문화 가부장제)에 의해 거부당하고 배척당했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해체의 주요 주제라 할 수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적인 담론은 우리의 상상속에서 형성된 흔들림없는 완전한 주체를 상징하고 있다. 이를 로고스, 즉 이성 혹은 신의 말씀('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창세기의 1장 1절을 상기할 것)이라 부른다. 아울러 서구 철학에서 개념의 생산은 위계 질서가 명확한 이항 대립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주체/객체, 정신적/육체적, 남성/여성, 문화/자연, 능동/수동, 이성/감성, 규칙/혼란, 존재/부재 등이다. 대립에 의한 의미생산을 통해, 좌변적인 것은 긍정적 가치로, 우변적인 것은 부정적 가치로 평가절하되어 왔다. 오랜 가부장제의 역사속에서 부정적 가치는 언제나 여성적인 것과 관련지어졌고, 따라서 로고스를 비롯한 좌변항의 개념은, 라캉의 개념에 따르면 Phallus (문화에서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며, 페니스의 은유적 표현태이다)의 세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주의는 이러한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언어·논리체계를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해체주의는 서구 철학이 신봉하는 두가지 가설, 즉 <자아정체성>에 대한 신념과 <진리>에 대한 개념에 도전한다. 일체화되고 통합적인 자아 개념은 자아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된다는 생각에 의해 도전받으며, 진리의 개념은 언어와 실재가 동일하지 않다는 생각, 오히려 실재는 언어를 회피하며, 언어는 실재에 의해 속박되거나 제한되기를 거부한다는 생각에 의해 도전받는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페미니스트들이 주목한 이유는, 여성들에게 열등한 속성들을 부여하면서 여성들을 끊임없이 대상화하고 착취하며 남성의 우위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서구의 철학적 전통, 남근이성중심주의적인 사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라캉과 데리다의 이론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언어'가 여성적인 것을 배제하는 방식에 주목했다.

1) 라캉

1960년대 미국의 여성 해방론자들이 프로이드를 공공연하게 비난하면서 출발했던데 반해, 프랑스에서는 정신 분석학이 개인에 대한 해방적 이론과 무의식을 탐구하는 길잡이를 마련해준다는 점을 당연시했다. 그리고 개인 해방론과 무의식의 탐구, 이 두가지 모두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억압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

한 것들이라 생각했다. 특히 프로이트를 재해석한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문화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자신을 재생산해내는지, 그리고 여성적인 것이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한 라캉 이론의 영향력이나 권위는 실로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긍정하든, 새롭게 재해석을 내리든 그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든 사회는 일련의 상호연관된 기호체계와 구조적 질서에 의해 규제된다는 레비-스트로스의 주장에 기초하여 라캉은 이 일련의 것들을 '상징적 질서'라 명명했다. 한 어린 아이가 사회속에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려면, 그 아이는 언어를 통해 사회의 상징적 질서를 내면화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가 사회의 언어규칙에 순종함에 따라 아이의 무의식은 언어, 즉 상징적 질서의 언어와 같은 구조를 띠게 된다. 따라서 상징적 질서는 개인의 통제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질서속에 적응하려면, '아버지의 법칙'이라 불릴 수 있는 이 상징적 질서를 내면화하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첫번째 단계는 상상계이며, 이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을 어머니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자신과 외부 세계 사이에 분리를 느끼지 않는다. 상상계에서는 차이와 부재가 존재하지 않고 동일성만이 존재한다.

두번째 단계는 거울 단계로서 이는 상상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대체로 거울 단계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전개되는데, 초기 단계에서 아이는 자신의 영상을 자신을 안고 있는 어른의 영상과 구분하지 못하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자아와도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이는 점차로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깨달아가게 된다. 거울단계가 중요한 까닭은 실제 자아가 영상으로 자신을 비춰봄으로써만이 그 자신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 있다. 라캉은 이러한 초기의 자아 형성 과정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들의 패러다임이 된다고 믿었다. 즉, 자아는 타자 속의 영상들을 통해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오이디푸스 단계로서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아이의 이 단계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자각하게 되며 거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어머니에게서 분리된다. 따라서 아이는 자신이 일부로 속해있던 어머니의 몸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상실을 경험한 후부터는 어머니를 향한 욕망이나 어머니와의 상상계적 일체감도 억압되어야 한다. 이 최초의 억압을 라캉은 소위 일차 억압이라 부르며, 이 일차 억압에 의해 무의식의 장이 열리게 된다. 상상계에서는 결핍이



없기에 무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 상징계로 진입하게 되며, '아버지의 법'이라 불리는 사회의 관습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습득한다.

그러나 여성은 해부학적인 성 구조상 어머니로부터의 분리가 완전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따라서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과정에 진입하지 못한다. 여아는 자신의 음핵을 거세된 혹은 작은 페니스로 간주하고 남근 선망에 사로잡히게 되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어머니를 증오하고 아버지의 페니스를 선망하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위치를 질투하게 되고, 아버지의 아이를 갈망하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욕망은 여아가 갈망하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인데, 여아는 대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욕망을 거둬들여 좌절당한다. 여아는 아버지의 남근을 선망할뿐, 거세 콤플렉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법칙'을 내면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그녀는 상징적 질서로부터 배제당하고, 그 질서의 주변부로 제한되며, 여성들은 자신이 느끼는 바를 그 어느 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여성들은 오이디푸스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므로 여성적인 것은 상징적 질서속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 프로이트에게 여성이 암흑의 대륙이었던 것처럼, 라캉에게 있어 여성은 영원한 타자였다.

2) 데리다

데리다의 의미 생성에 관한 이론과 글쓰기(말하기에 반하는 것으로서)에 대한 강조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데리다에 의하면 의미 혹은 의미생산은 이항대립이라는 정태적인 폐쇄회로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의미는 '기표의 자유로운 놀이'에 의해 생산된다. 이를 위해 소쉬르의 음소 개념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음소는 언어에서 최소의 변별 단위, 즉 최소의 의미단위로서, 음소는 이항대립 하나만으로 결코 의미생산을 이룰 수 없다. /b/라는 음소 자체는 /k/나 /h/와 다르게 지각되는 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bat/, /kat/, /hat/은 다른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지각되게 된다. 이 주장에 의하면, /b/는 언어내의 '다른' 변별적 요소+그것의 의미를 '지연'시키는 과정(일련의 /a//t/ 등에 의해) 의미화된다. 의미생성은 한 기표의 존재와 다른 기표의 부재 사이에서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이 데리다의 용어인 차연(differance)의 기본 의미이다. 즉 의미란 무한히 이어지되 현재 부재하는 다른 기표를 잠재적으로 지칭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될뿐, '초월적 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 기표는 이전의 기표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 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

의미생산 과정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초월적 기의를 부정하는 시도는 글쓰기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서구 철학 사상은 로고스를 중시했다는 사실속에서, 글쓰기 보다는 말하기를 더 선호했음을 알수 있다. 말하기는 말하는 주체의 현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말하는 사람은 자기 담론의 유일한 기원이 된다. 또한 말하기는 의사소통의 과정속에서 투명한 이해를 생산하는 의미의 직접적인 실현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말하기는 주체의 현존과 초월적 기의 혹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글쓰기는 현존의 이상을 파괴하고, 다양한 해석으로 인해 무수한 종류의 텍스트의 생산을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이항대립적인 의미생산 체계와 자기 현존과 초월적 기의에 대한 데리다의 부정속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남근이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공격의 실마리를 찾는다.

다음에 소개되는 세 명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을 살펴보면 이를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스트

1) 씩수스

씩수스는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것처럼 글쓰기속에서도 소외되어 왔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여성이 여성에 대해 써야한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있어 글쓰기의 역사는 남근중심의 역사이며, 이성주의에 입각한 역사였다. 남성에게 점유된 글쓰기 속에서, 여성은 항상 남자에 의해 반사된 존재일 뿐이며, 남성의 시각에 의해 억압되고 일그러진 형상을 얻게될 뿐이다. 여성들에게 글을 쓰라고 하는 그녀의 종용은, 남성이 지배하는 상징적 세계를 향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소리를 발하라는 실천적 슬로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는 글쓰기의 개념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남성적 글쓰기와 여성적 글쓰기를 구체적으로 대조해나간다.

씩수스는 남성적 글쓰기가 개념의 이원대립과 개념의 위계질서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남성적 글쓰기에 대해 반대한다. (예를 들어 해/달, 능동/수동, 문화/자연 등) 한편 남성의 글쓰기를 그들의 성적 활동의 특징에서 유추해내기도 한다. 즉 뾰족하고 단순한 남근, 단조롭고 목적지향적인 성행위처럼 그들의 글쓰기는 단조롭고 지루하며, 남성들은 상징적 질서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무질서를 두려워한 나머지 엄격하게 정의되는 구조속에 자신의 사고를 담으려고 애쓴다. 이에 비해 여성적 글쓰기는 욕망¹⁾으로부터 출발하며, 그들 성행위의 무한한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글쓰기 역시 자유롭고 다양하며 개방적이다. 특히 여성의 욕체는 이

러한 다원성과 동시성 이외에도 타자성에 대한 암시를 던져준다. 즉 여성은 임신에 의해 언제나 타자를 위한 자리를 자신의 몸속에 마련하고 있다. 남성적 정신분석이론이 가족을 분리시키려는 모습과 달리, 임신은 보이지 않는 타자와 강도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삶에 타자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성은 주는자 giver로서 자신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주어도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다. 남성이 자신의 지위, 명예의 모자와 왕관 등 머리와 연결된 모든 것에 집착할 때에, 여성은 거세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의 해방을 가져오기 위하여 인간의 모든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씩수스의 견해에 따르면, 여성적 글쓰기는 단순히 새로운 양태의 글쓰기가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규범들의 변형을 위한 선행적 움직임이고, 전복적 사고를 위한 도약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개인의 차원에서는 자신을 되찾는 일이며, 동시에 여성을 역사로 진입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녀의 주장은 기존에 억압받아온 '열등한' 특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가지는 혁명적인 힘을 강조했다.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생물학적 특성들에 기반한 남성적/여성적 글쓰기의 대립은 그녀가 비판한 이원대립, 위계질서에 기반한 남성적 글쓰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을 압도하면서 형이상학으로 변질된다. 물론 그녀는 남성의 개념과 도구들을, 그들의 자리를 점유하는 것을 지향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2) 이리가레이

이리가레이는 프로이트와 라캉의 사고에서 표현된 여성이 남성적 여성, 남근적 여성²⁾ 일뿐이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프로이트에 의하면 여아는 자신의 작은 음핵을 보고 자신이 거세되었다고 단정하게 되는데, 이리가레이는 이런 가설이 남성의 거세 공포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 여아는 '결핍된 남아'로 격하된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에 반해 '여성적 여성'을 제시하고 남성의 중개가 필요 없는 언어를 획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상상의 단계에 대해 라캉과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라캉에 의하면, 여성이 오이디푸스 현상을 극복하지

주1) '입의 욕망, 항문의 욕망, 목소리의 욕망, 이 모든 욕망들이 우리의 힘이고, 이들 중에 수태 욕망-바로 쓰고자 하는 욕망과도 같이-도 있다. 그 욕망은 타자가 아닌 주체로서 살고자하는 욕망, 부풀어 오른 욕체, 언어, 피에 대한 욕망이다.'(<메두사의 웃음>중에서) 씩수스에게는 여성이 아니라 욕망이 전통적인 서구 사상의 제한된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수단이었다.

주2) 이리가레이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 그들은 여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반사물, 혹은 영상과 초상을 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동일화', '거울화', '반사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못해 상징적 질서에 진입하지 못함으로써 상상의 단계에 뒤처지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이는 이러한 상상의 단계에 여성이 이용하고 있지 않은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적 언어가 무엇이라고 정의내리려 하지는 않는다. 정의내리려 하는 행위 자체가 남성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의 생식 기관과 성감대에 대한 묘사속에서 여성적 언어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여성적 성감대의 복수성, 다양성 등을 언급하면서 여성의 에로티시즘은 남성과 달리(그들은 페니스의 있고/없음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뿐이다)축각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무수한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여성의 언어는 자신을 하나로 동일화하지 않은채 끊임없이 자신과 타자를 교환해 나간다. 여성적 언어는, 여성이 지배이데올로기의 잉여물 이외 다른것으로 자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리가레이가 제시한 세가지 해방 전략³⁾중 하나이다.

이리가레이에 따르면 우리는 여성적 언어를 가진 적이 없으며, 남성적 언어의 구조속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그녀는 여성적 언어를 정의내리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남성 언어의 이성주의, 진리의 단일성에 반대할 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여성의 언어란 파편화된 남성 언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의없음에 대한 주장은 물론 여성의 언어를 형이상학으로 변질시킬 위험은 모면했는지 몰라도 여성의 언어를 남성 언어의 주변부에 계속 위치시키게 될 것이다. 남성 언어의 폭력적 위계 질서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시도는 존중되어야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정의내리지 않으려는 모습은 여성 언어 자체가 스스로를 발견하고 변화시키려는 의도까지 억압하게 될지도 모른다.

3) 크리스테바

썩수스와 이리가레이가 '여성적', '남성적'에 대한 개념을 생물학적인 성에 기반하여 유추해낸 것과 달리, 크리스테바는 상징적 질서로 진입하는 유아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즉 유아는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과는 별도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따라서 아이의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정도는 이러한 동일화의 정도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언어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에 대해, 남자와 여자를 가부장제의 울가미속에 집어넣는 행위라

주3) 이리가레이는 여성적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방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하나, 단순한 성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구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간 표현으로 확장된 단일하고 선형적이며 목적적인 남근의 성활동에 반한 여성적 성활동을 개발할 것. 레즈비언리즘과 자위행위는 남근을 잊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둘, 남자들이 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흉내내고 과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알소>를 이룰 것.



며 비판을 가한다.

한편 크리스테바는 '여자 자체로서의 여자'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다. 첫번째 이유는 '여자', '여성적인 것'과 같은 개념이 본질주의적인 형이상학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며, 두번째 이유는 '여자'라는 계층이 '여자'라고 불리기 이전에 사회적으로 성취되어야할 요구가 너무나 많은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이다. 지배 계층으로부터 배제된 이러한 존재조건이 동성애자들, 유태인들, 인종적, 민족적 소수 그룹, 그외의 '부적응자'들과 연대의 가능성을 창출한다.

여성에 대한 담론이 주변부화 된 것은 '저급한 것'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지배담론의 음모 때문이다. '여성적'인 것을 '저급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 이유는 거세 콤플렉스와 결부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이 점에서 라캉의 충실한 제자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주변부로 밀려난 담론들(광기, 비합리적인 것, 모성적인 것, 성적인 것)이 그들의 혁명적인 힘을 언어로 발산해야 한다고 믿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비판

다른 유파의 페미니스트들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대해 지적유희, 생물학적 본질주의, 대안적 세계에 대한 비전의 부재를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현 담론에 던져주는 의의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우선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도 서로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페미니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억압과 일반적인 억압사이의 관계를 구별하고자 노력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억압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페미니즘은 인본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성별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다원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며, '남자', '여자'의 범주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은 비단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또한 통합을 추구하는 인간의 역사속에서 불모화된 인간의 공동체에 대한 암시를 던져주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것이다.

■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사이의 연계성,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논의 전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페미니즘 사상>이라는 세미나 교재가 다소 이해를 위해선 불충분한 점이 있었으므로, <철학의 탈주/새길>,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한신 문화사>, <자고 라캉/ 문예출판사> 등의 보조교재를 취했다. 그리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이론가들에 대한 성원들의 평가를 글 말미쯤에 중간중간 첨부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여성의 삶

세계가 혁명의 열기로 충만했던 시기, 여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위대하다고 평가되는 인물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은 얼마나 될까?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녔건 간에 주변부화 되고 평가절하 되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부터 이 글을 시작했다. 이 글이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토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터무니 없이 서투른 글인 줄은 알지만 역사 속에서, 당대의 혹은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왜곡되게 그려지고, 감추어진 여성의 삶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이 여성을 조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감히 바란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일반적으로 더할 나위없이 성공적인 여성혁명가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독일 사회주의 혁명에서 웅변가, 선동가, 저널리스트, 팸플렛의 저자로 활발히 활약했다.

로자가 그 많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은 그녀가 자라온 문화유산이 다른 여성혁명가들과는 많은 점에서 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러시아화된 폴란드에서 저항적 분위기를 숨쉬면서 자랐다. 당시 교육받은 중상류 계급의 폴란드 여성들은 서유럽의 계몽되고 사회해동포주의적인 문화를 공유했다. 그리고 폴란드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 및 양심의 자주, 개인의 제권리(諸權利),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프랑스의 혁명적 이상들과 친숙했다. 또한 19세기의 급진적인 러시아 여성들이 남겨준 유산도 로자가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로자는 여성의 혁명참여를 환영하고 격려했던 혁명적 전통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녀의 주된 정치 활동의 장은 독일 제국의 사회주의 운동권-독일 사회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잘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율이 강했으며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다.- 이었다. 그녀는 당 주변부의 직책에서부터 시작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폴란드의 노동자를 조직하는 일에 탁월함을 보여준 그녀는 곧 '수정주의 논쟁'으로 그녀의 명성을 확고히 하게 된다. 사회민주당의 이론가들 대부분이 이에 말려들기를 꺼리고 있을 때, 로자는 이론적 무기와 확고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어 맑스의 고전적 원리들을 수정, 개조하려는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고전적 정통 맑스주의를 방어했다. 로자는 탁월한 논문과 웅변으로 국제사회주의 진영의 내부에서 자신의 명성을 쌓을 수 있었다. 1905년 러시아에서 폭발한 혁명은 그녀에게 힘을 솟구치게 하는 원천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로자는 1905년 혁명 이후 독일의 사태 전개로부터 점점 더 심하게 격리당하게 된다. 그녀와는 달리 독일 사회민주당은 혁명으로 인한 공포에 떨게 된 것이다. 이미 독일 사회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방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승리라는 명예스러운 의식을 위하여 살았다. 이미 개량화, 보수화 되어버린 사회민주당이 혁명의 열기에 끌어넘치 못한 여성을 배척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러한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민중들과의 접촉을 많이 가졌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최후의 투쟁은, 분명히 반혁명 세력으로 타락했으며 우익보다 좌익을 더 두려워하는 사회민주당 정부를 상대로 하여 싸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 봉기가 구독일 군부와 반혁명적인 사회민주당 관료의 연합세력에 의해 3일만에 진압당함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이상에 의해 고취된 독일의 혁명적

사회주의는 최후를 맞이했다.

위의 글은 '불꽃처럼 살다 간'이라고 흔히 묘사되는 로자의 삶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같은 시대의 다른 여성혁명가들과 많은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도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었으며, 여성 혁명가에게 강요되는 문화적 전통에 의한 어려움으로 제약받았다.

당시 독일에서도 여성의 혁명적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으나 이는 지극히 협소하고 제한된 성격의 것이었다. 진정한 독일 여성은 감정과 복종심과 모성애로 충만한 인격이었으며, 연약하고 상냥하고 단순한 영혼의 소유자이기에 사심없는 희생으로 그녀보다 지적으로 우월한 남편과 주인에게 봉사하는 그런 여성이었다. 지금은 과연 이러한 편견이 얼마나 깨뜨려졌는지! 독일 사회주의 진영조차도 이론적으로는 여성해방을 공약했지만 두 팔 벌려 여성들을 환영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대부분의 경우 이론적 주장과 실천적 행동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여성문제를 당내회의에서 논의할 때면 당원들은 농담조의 가벼운 언사를 사용하면서 경멸의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사회주의자건 아니건 간에 여성들이 정치적인 모임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독일 남성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그녀가 명성을 얻은 후에도 그녀에게는 악명과 악담이 따랐다. 그녀는 광적이고 위험한 선동가로 간주되었으며, 급기야 1899년 개최된 독일 사회민주당 총회에서는 야유까지 받게 되었다. 그녀의 나이와 외국인이라는 신분은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물론 로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지만, 그녀가 처했던 상황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절감하게 해준다.

사후, 그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그녀를 남성형에 부합되는 완벽한 정치가로 그리고 있다. 출세하려고 노력하며 정밀하게 계산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냉혹성이 그러한 정치가가 갖는 특징이다. 그러나 남성형에 부합되는 인물로 그린다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성형=중심성, 여성성=주변성으로 그려지는 구도하에서는 뛰어난 여성에게 특별히 남성성을 부여하고, 계속하여 여성성에 대해서는 평가절하 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녀는 혁명적 여성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감상적 신경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 역시 여성을 성녀 아니면 창녀로 구분하는 구도하에서 나온 것이 아닐는지. 대부분의 위대한 여성을 성스러운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그녀를 여성으로서 존중하는 것이라기 보다 하나의 초월적인 신적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근래의 또다른 연구에서는 그녀도 여성적인 측면이 있었고, 아기와 꽃, 옷과 가구를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가정을 갈망했다는 등으로 그녀를 인간적인 면모를 갖춘 성녀로 추앙하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 역시 진지하게 그녀를 조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본다는 명목하에 흔히 여성성으로 상징되는 성질을 그녀에게서 가져와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작업 또한 시대의 가치관과 역사가의 편견으로 진지하게 이루어지기 쉽다.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진지한 평가 역시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랑의 code의 상대성과 그 해결에 관하여

- Bitter Moon을 보고 -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게 될 때까지 우리의 감각 기관은 사랑의 테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영화, 노래, tv, 시, 소설 등을 통해 사랑을 접하고 꿈꾸는 이들에게 삶은 멋진 실험 무대이다. 그러나 불꽃처럼 강렬하고 애절한 사랑과 환상적인 성적 쾌락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파트너와 함께 공유하는 사랑의 일상 속에서 혼란에 빠지곤 한다.

‘도대체 그 사람이 내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이런 게 사랑일까?’, ‘우리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가 봐.’, ‘이전 내가 상상하던 섹스가 아냐.’ 등의 고백은 연애를 한다는 주위의 친구들에게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이다. 어떤 이에게 느끼는 매력을 사랑으로 정의(定義) 내리는 과정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는 행위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사랑에 대한 서로 다른 code를 지닌 채 code의 실체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영화 ‘Bitter Moon’에서는, 이처럼 사랑과 성이 서로 다른 code로 읽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상상과 소망이 만들어 낸 사랑의 구조물을 파괴하고, 그 공백을 메울 새로운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결혼 7주년을 맞아 인도 여행을 가는 젊은 영국인 부부가, 배에서 또 다른 부부(휠체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남편과 관능적인 아내)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휠체어에 의지한 남편이 영국인 남편에게 자신의 부부 생활을 일방적으로 고백하면서 이들 4명 사이에는 갈등이 형성된다. 도입부에서 두 가지 정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번째는 인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영국인 부부는 인도를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반면 배에서 만난 한 인도인은 그들에게 인도를 빈곤과 더러움만이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설명한다. 인도에 대한 이러한 견해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는다.

이는 소설가(반신 불수 남편)와 그의 아내 미미가 사랑에 대해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음을 암시한다. 미미는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낭독해 줄 때 다음과 같이 말한다.

“I will listen to you forever.”

이 말은 사랑의 절대성과 영원성, 상대방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함축하고 있다. 반면 소설가에게 미미의 존재는 시들은 삶에 대한 상상한 자극과 활력을 의미한다. 자극은 본질적으로 유한적이다. 자극은 새롭고 보다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쾌락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이 자극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처럼 이 두 부부는 전혀 다른 code를 가지고 사랑에 대해 사고한다.

두번째는 고백이라는 구성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고백이라는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고해성사나 심문 등에서 보통 내밀한 부분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관찰과 분석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그러한 역학 관계는 완전히 뒤집혀 있다. 고백을 하는 소설가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가 오히려 듣는 사람의 의식을 엿보고, 해부하며, 그 변화 과정을 진지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그의 고백의 목적은 우선 영국인이 가진 성(性)에 대한 인식 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다. 영국인은 계속 중얼거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그렇게 점잖지 못한 일이…….’ 영국인이 새파랗게 질려 변태라고 외치는 행위에 대해 소설가는 여유로운 웃음으로 말한다. 성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성스럽다고, 그리고 그는 그 파괴의 결과를 흥미진진하게 기다린다. 그것은 자신과 미미의 종결된 관계에 어떠한 가능성이 더 잠재되어 있었던 지를 찾으려는 노력과 잇닿는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백이 끝나면 자기의 아내를 취해도 좋다는 조건을 걸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만



죽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한사람에 대한 피상적 인상보다는 내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성적 요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은 것이다. 영국인은 미미의 동물적일 정도로 원숙한 육체와 적극적인 접근에 대해 점점 긴장을 풀게 된다.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설가는 그가 선택한 모르모트에 대해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된다. 영국인이 아내의 시선을 깨닫자, 찢어진 도덕적 양심을 재빨리 감추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그가 갇힌 성의 구조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소설가는 분노하여 외친다.

‘자네는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어.’

이제 이 영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사랑의 본질적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소설가에게 사랑은 곧 성(性)이다. 성적인 쾌락을 주는 동안은, 미미의 모든 것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 사랑은 종말을 고한다. 심지어 그녀에게 온갖 가학적 행위를 행한다. 인격적인 모델은 물론이거니와 미미를 성행위의 대상만으로 취급한다. 사랑을 잃은 미미는 더이상 섹스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소설가는 미미를 자기 인생의 짐으로 치부하여 그녀를 비인간적이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때어버린다. 성적 매력을 잃음으로써 사랑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유지될 수 없는 상황. 사랑이란 감정은 성행위를 하기 위한 작은 출발점일 뿐인가. 아니면 성은 사랑이란 감정 상태에 따르는 부산물일 뿐인가? 사랑과 성의 포함 관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부분이다.

두번째로 성행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랑에 대한 코드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소설가와 미미가 성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쾌락이다. 특히 쾌락도 오르가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쾌락이 절대 선(善)인 이들에게

도덕이나 변태라는 관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성(性)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성스러운 것이다. 그런 만큼 성행위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탄력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소설가는 말한다.

“우리는 벌거벗은 채 함께 TV를 보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미미가 TV에 대고 오줌을 누지 않겠나. 난 그 때 말할 수 없는 오르가즘을 느꼈다네. 그녀의 오줌은 내게 나일 강이었지. 또한 갠지즈 강이었고 요단 강이었어.”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쾌락이 절대 선일 경우, 성행위가 두 인격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라는 점이 모호해진다. 쾌락을 향한 욕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인격이라는 존재 조건을 던져 버린다. 미미는 소설가를 의자에 묶어 두고 칼로써 공포감을 유발함으로써 쾌락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러 이들의 섹스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결국 수간(獸奸)의 흉내를 내보지만 헛수고다. 이는 소설가가 미미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인격적 존엄을 마음껏 무시하는 계기가 된다. 쾌락의 추구 끝에 인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일치하더라도 사랑에 대해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면, 갈등과 파국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영화는 동성애를 통한 조심스런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소설가와 미미를 통해 본 이성애적 사랑은 힘의 권력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학과 피학의 주체가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힘의 전쟁 속에서 인간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설가가 미미의 가학적 섹스를 통해 쾌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극이 더 큰 자극을 회구하게 되고 결국 사랑의 감정이 증발하자 남는 것은 가학-피학의 행위뿐이다.

힘의 우위를 소설가가 차지하게 되자, 미미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꺼이 노예가 되고자 한다. 그러나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녀의 내면은 계속해서 허물어지게 된다. 조금씩 부어오르는 몸, 짧아지는 머리, 생기 없는 눈. 이런 외적인 변화는 곧 망가진 내

면을 표현해 주고 있다. 상황이 반전되어 소설가가 반신불구가 되고 미미가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의 곁에 머물게 되자, 미미는 또 다시 가학의 주체가 된다. 소설가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한다. 이제 그들의 이성애적 사랑 속엔 권력 관계와 파괴된 인간만이 존재한다. 소설가가 영국인의 갇힌 본성을 자극하고자 했던 것은, 사랑의 종말까지 와 버린 그가 아직도 이성애적 사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르모트를 잘못 골랐다는 걸 깨달자마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 미미와 영국인 아내의 동성애적 행위였다. 보통의 영화나 소설에서 여성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 한 남자가 의도를 하면 그 자리엔 부인과 정부 사이의 질투와 경쟁, 악다구니만 남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받은 두 여자의 성행위 속엔 더 이상 가학-피학의 권력 관계도, 경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설가는 말한다.

"나는 이들을 지켜보았네. 그야말로 아름다움과 우아함의 극치였지... 나는 영원한 패배자라네."

물론 이성애와 동성애의 본질을 이처럼 명쾌히 공식화시키는 것은 오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성애를 격하하고 동성애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우리는 저마다 제각기 다른 사랑의 code를 지니고 있다. 관습과 동시대의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동질성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질성의 기반 위에서 각각은 주관적인 사랑의 상을 가진다. 이들 사이의 공감과 조화가 가능할 것인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사랑의 허울을 쓰고 벌어지는 힘의 관계와 파괴적 모습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code간의 조화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동성애는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절대적 해결은 아니다. 왜냐면 동성애에서도 힘의 권력 관계는 등장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피삽입자의 역할을 하는 남성이 동성애자 집단에서 차별을 받는 것)

III 기획론

성? 성! 성...

생식중심의 '성'을 넘어 정치적인 '성'으로

- 성교육을 중심으로 -

i. 들어가며..

해마다 여름만 되면 뜨거웠던 여름 날씨만큼이나 우리를 짜증의 도가니로 몰고가는 주제가 있다. 96년 여학생 출산 사건, 97년 '빨간 마후라' 사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10대를 악의 집단으로 규정해 대대적으로 마녀사냥을 행했다는 것과 사건의 해결을 모두 '올바른 성교육'에서 찾았다는 것에 있다.

선정적인 수식어¹⁾들로 시작되는 머릿기사들은 대한란의 시대의 구원해줄 도덕의 전도사로서 성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을 일제히 강조하기 시작했고, 성교육 교과서가 출현하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새로운 조국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라는 것은 '손을 잡는' 수준에 머물수만은 없게 되었다. 진일보하여, 키스를 해도 된다는 성인들의 넓은 아량이 암묵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도식화된 행위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선까지만이 허락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신 어른들은 자신의 과감성에 놀라며 전대의 도덕률을 우려먹는다. '인격적인', '올바른', '건전한' 이성관계.....

주1) 사실 10대들의 임신 사건(?)보다는 그것을 다룬 언론이 더 음란한게 느껴진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처리와 인터뷰질문들은 흡사 포르노에서 여성의 몸을 향한 카메라처럼 끈적끈적하고 집요했을 뿐이다. 한편 10대들은 성인의 성관계를 그대로 재현했음에도 '청소년은 순수하고, 보호되어야할 존재이다'라는 망상속에서 가혹한 비난을 걸며줘야했다. 결국 막강한 성인중심의 보편화된 가치관의 승리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귀결된다.



“사랑에 대한 욕구라니, 무슨 소리예요? 그 나이엔 아직 사랑에 대해 말해선 안된다고요. 아직 어려요. 철이 안들었다고요.”

이해한다. 사실 ‘성’이라는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해결 못할 상황인데, 게다가 ‘그’들의 빈곤하고, 저열한 상상력을 생각해본다면 그들로써는 오히려 할만큼 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성이란, 교육이란, 성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그 정도로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런 생각들... 한국에서 성교육을 받은 우리는

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크게 든다. 더군다나 ‘보호되었던’ 10대의 신분을 벗어나 동시에 ‘성’에 대한 강박관념들에서 벗어나 성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쟁취하게 된 역사적 시점에서 말이다.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설령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라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배워보겠다는 異想으로 대학에 들어왔으니 뭔가를 배워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라면 남·녀의 생식기 명칭과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과정, 성과 관련된 질병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박사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또한(특히 남성은) 각종 사교육-포르노, PC통신, CD, 도색 잡지 등의 각종 매체-을 통해 성에 관한 ‘진실’, ‘여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 자부할 것이다.

사실, 이 글은 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얘기함이 위함이 아니라, 성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현실에 유통되는 성의 각본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 그것의 대안을 생각해 보기 위함이다.

ii. 성교육, 우리시대의 성각본들

성교육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남녀의 생식기 구

조이다. 2차성징이라는 ‘학술적’ 용어를 배우게 된다. 생식기를 통한 남녀의 다름을 확인시킨 후(월경, 처녀막을 알게 된다),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결혼 한 후에만 임신이 허용된다는 강조를 한다. 월경은 임신을 위한 준비단계이며, 월경을 하게 되면 극도의 불안감, 심하면 도벽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해야 깨끗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자신의 회사 생리대를 선전한다. 또한 처녀막은 성관계를 맺으면 찢어지게 되는데, 이것의 여부가 처녀/아줌마를 가리킨다. ‘성=임신’이라는 것은 여학생의 신분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내 ‘성or성관계=위험’을 인지하게 된다. 끝으로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며 ‘남자는 늑대이니 조심하세요!’

‘자전거를 타다가도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던데, 어떤 여자는 처녀막이 찢어져서 첫날밤 이혼을 당했다더라.... 찢어지고, 피가 나야 처녀란... 순결=처녀막’ 사실 말이 좋아 전인격적 관계이지 이것은 ‘남성에 의한 정복’일뿐이다. 또 월경이 갖고 있는 두려움/임신의 가능성은 대단히 모순적인데 월경중인 여성은 비정상적이고, 월경을 하지 않는 여성(폐경기 여성)은 임신 능력이 없으므로 ‘여성성’을 잃은 존재로 비하된다. 얼른 보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음에도 이것은 ‘의학’, ‘과학’이라는 이름만으로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남성은 사람만도 못한 악의 무리(늑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몸가짐을 단속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암시를 받게 된다. 이것은 곧 여성의 순결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성의 성은 남성을 통한 결혼이라는 공적 승인을 통해 소유되기 전에 순결해야 한다는 ‘정조관념’으로 내재화되게 된다. 한편 악의 무리 남성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글러먹었기에(?) ‘여성이 알

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며 풀리는데로 살아가도록(남성의 성충동은 불을 내뿜는 활화산 같다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은 건강한 남자의 증거이다? 그러나 실제 조사는 77%의 남성이

기존의 성교육은 성적권력 관계의 불평등성을 유포시킨다.

성욕이 자제되고 조절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내버려두고, 권장된다.

결혼전에는 혼전순결이라는 이름으로 집중포화된다면 결혼 후에는 재생산(임신·출산)으로 모든 성교육이 압축되어진다. 즉 순결과 이성애적 성교를 기반으로 한 재생산이라는 성에 대한 사회적

성을 둘러싼 쾌락/위험의 이분법은

나이주의, 이성애 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와

교차하면서 성적불평등을 고착화 시킨다.

이상은 남녀의 신체 구조·해부학, 청소년기의 성, 임신출산, 미혼모의 주제들로 도식화되고, 거기다가 '행복', '이성적

행위', '인격적 관계' 등의 추상화된 언어들이 더해지면서 미국의 상태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혼돈의 상태는 '과학적' '중립적' '객관적' 등의 수식어를 달게 되면서 하나의 '절대진리'로 굳어지게 된다.

거칠게 말해 이런 잘못된 성교육을 통해 현재의 성의 정치학에 기반한 성의 불평등이나 그들이 경악해마지않는 '사건'들이 나오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성교육은 현 사회의 반영태로써 남성중심적이고 나이중심적인 편협함과 성적 권력관계를 통한 불평등성을 유포시키고 있다.

기존의 성교육 지침서와 성관념들은 아름답고, 건강한 성을 전제한 후, 성을 유희나 쾌락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인간관계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한다. 인격적 관계로서의 성관계가 구체적으로 남녀에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는지는 우리사회가 남성과 여성을 주조해내는 과정에 비춰봐야 알 수 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길 기대되는 남성, 부드럽고 수동적이길 기대되는 여성의 이미지들의 성(Sexuality)이라는 부분에도 여지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가장된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행복', '이성적 행위' 등의 언어는 현실적으로 성을 통해 매개되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측면을 무화시킬

뿐이다.

여기에다 성을 둘러싼 쾌락/위험의 이분법들은 가부장사회의 전형인 나이주의(성인중심주의), 남성중심, 이성애중심주의와 교차되면서 불평등적이고 여성억압적인 성(Sexuality)을 형성시킨다.

그들의 본분인 공부를 뒷전으로 하고 '쾌락에 탐닉'할 수 있기에, 청소년기의 성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통념들, 모든 것은 성인이 되면 가능하다. 단단히 봉인된 '성'도... 한국사회는 거의 '(생물학적)나이가 짝배인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결혼에 입성한 '성'은 아름답기만 한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오히려 잘못된 성적환상만을 갖게 할 뿐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성'이라는 자체는 위험으로 인지된다. '순결'을 지켜야한다는 가부장제의 기대들과 그녀의 욕망들이 혼재되면서 때로 그녀는 성적방종이라는 낙인을 등에 지고 살아야한다. 어려서부터 강제적 근친상간이나 강간에 의한 공포 속에서 성=폭력의 이미지를 내재화하게 되고, 성관계후의 임신·출산의 과정은 전적으로 몸을 잘못 놀린 그녀의 책임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사실 결혼한 여성도 '성'에 대한 위험스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 대개 오르기증신화를 바탕으로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연기를 해야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피임방법으로 낙태를 하기도 한다) 반면, 남성에게는 성관계는 '쾌락의 장'으로 인지되는데 남성의 성기에 극대화된 의미와 남성은 생물학



"이제 그 애긴 웬만큼 해뒀요. 어렸든 청소년들은 호모들의 품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한다구."

성관계 자체를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닌
사회문화적·심리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으로 성적충동이 강한 존재라는 믿음이 이것을 보장해준다. 이
처럼 다른 방식의 성을 습득하게되면 결국 여성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피임을 해야하고, 남성은 관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녀
에게 전가시킨 채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 남성중심의

쾌락원리는 질-오
르가즘 신화²⁾를
놓았는데,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에 삽입될 때 극대
화된 성적 흥분을-
이것은 곧 출산으

로 이어진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질-오르가즘 신화는 여성의
쾌락에 배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삽입-사정으로 이르는 출산
중심의 이성애적인 성관계를 옹호하게 된다. 출산을 위한 성은 정
상적인 성이고 그 이외에 성인 동성애나 자위행위 등은 비정상적
일탈행위가 되어버린다. 앞서 말한 손을 잡는 것에서 키스를 하
는 것을 허용해준다는 발상 또한 삽입-사정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사랑의 절정이라는 사고의 반영일 뿐이다.

iii. 나오며...

실제 성이 전인적인 것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위험/쾌락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성관계자체를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닌 사
회문화적·심리적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에 대
한 배려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모든 행위에 바탕이 되
어야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피임'이라는 과정에도 이런
생각들이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남성들이 성관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준비', '노력', '배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산물인 남성중심의 성관념들

주2) Hite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여성들이 음핵을 통한 성적 즐거움을 느낀다고 한다.
남성중심의 성활동을 옹호하는 가부장제사회에서(아직도 수많은 회교국가와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성년식의 과정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합계를 당하고 있다) 여성
의 성적 쾌락을 통제하기 위해 음핵 제거를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질-오르가즘이
하나의 신화라는 것을 보여준다.

을 바꿔나가기 위해 여성의 성적주체화로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이 원하는 바대로 그녀의 선택과 자기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상화된 가정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여성이
자기결정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이 더 이상 가치중립적인 개
념이 아니라 남녀의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인 것이고 사
회문화적인 개념이라고 했을 때 여성의 성 또한 여성이 위치한
구조적 문제-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경제권의 문제, 정치영역에
서의 여성의 법적권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성의 정치적 측면
과 제반의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성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식기를 자극하여 절정에 이르는
는 식의 시간 및 동작과 관련된 연
구라기 보다는 친밀한 신체적 대화
를 나누는 거지요.

성행위예술이 단지 숫
자로 평가되는 그림으
로 격하될 필요는 없잖
아요.



만일 남성들이 성
의 모든 의미를 육
체와 단절된 성기
에만 집중시키고
그 육체에 아무런
기쁨도 사랑도 주
지 않고 무시한다
면 그들도 얻는 것
이 없죠.



동아리내의 성차별적 문화 꼬집기

삼백근¹⁾ - 무엇이 문제인가?

해마다 4월들어 총연회가 열릴 즈음. 선배들은 쑥덕대기 시작한다.

"올해는 누가 제일 순진하나? 성질 좋은 놈으로 해야해."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고 얼큰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종종 보일 때쯤이면 우리 역사만의 특수한 광경이 펼쳐진다.

움썩달썩 할 수 없게 여러 사람에게 붙잡힌 새내기들의 바지를 끌어내리는.....

아마도 여학생에게 가해진다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행동이 유독 남학생에게는 문제로 다가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우리는 대개 성추행이나 성폭력 -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성과 관련된 행위 - 의 대상으로 여성을 상정한다. 그러

면서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적인 행동이나, 발언 등은 가벼이 여기고 그 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남성성을 중시 여기고 그것의 표출을 자연스레 여기는 문화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사소한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뭐, 본인이 괜찮다면야 좋지 않아요?"

"좀 썩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흐릴까봐 그냥 웃고 넘어갈 수

밖예요."

삼백근을 장난으로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삼백근을 하게 되는 문화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는 없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성적으로 억압하여 웃고 즐기는 문화는 그 의도가 반드시 의도적인 악의를 품지는 않았더라도 계속 답습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설사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더라도 그 수치심은 보고 있는 타인들에게도 전이되며 타인들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외모에 관한 주절거림들-구별짓기

동아리의 구성원 중 몇몇은 - 특히 저학년의 경우-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절거림들을 많이 듣게 된다.

"너 왜 이렇게 비리비리하냐... 사내자식이..... 나 푸쉬업 몇 번했다....."

"야, 여자애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 남자애 누구 재랑 팔씨름 좀 해봐라."

"넌 왜 그렇게 키가 작냐?(힐끗) 여자애들은 키 큰 애들을 좋아한대더라... 여자친구 아직 없지?"

친해서 하게 되는 장난스런 말일 수도, 웃기기 위해 던져보는 말일 수

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일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에서 여성성, 남성성이라고 규정해 놓고 따르기를 강제하는 기준들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들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여학생들에게 들리는 말들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미인-외모뿐만이 아니라, 연약함, 다소곳함 등도 포함하여-을 기준으로 그에 못미치는 부분



에 대해 평가절하해대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는 성적인 것과 관련된 말들도 들리기도 한다.

남학생들에게는 우리 시대의 남성-육체적인 힘으로 상징되는-을 기준으로 비슷한 평가가 내려진다. -이 경우, 그러한 평가는 여학생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힘이 약한 사람은 알볼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가 있을 법 같지도 않은 무언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지 않는 각 개인을 가치절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여학생들은 잘 꾸미기를, 남학생들은 헬스크럽을 다니는 것 외에는 해결방식이 없을 것 같다. 차이를

주1) '삼백근'이란 본래 배고프고 가난했던 시절, 단백질의 섭취를 위해 고기를 먹고자 시도된 것이다. M.T기간 중 그해 새로 선출된 회장의 힘을 시험해보자는 명목으로 한 새내기를 뽑아 "너를 한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어 아만 내가 회장으로 인준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로 안심시켜 놓은 뒤, 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해 바지벗기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기를 살래 말래, 몇 근?" 이렇게 되면 어지간히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닌 이상 죽을 상으로 먹고싶은 만큼 고기를 사겠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다.

인정하는 문화적 습관을 길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혼적령기 - 20대 중·후반 컴플렉스

우리 사회와 같은 문화속에서 20대 후반에 접어들면 여자건 남자건 주위 사람들에게서 결혼에 관한 수많은 충고(?)를 듣게 되기 마련이다. "결혼을 해야 철이든다", "아이를 낳아 봐야 인생을 안다"는 식의 말들과 관련하여 결혼이 어떠한 완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낭만적인 사랑의 결말이 그러하듯 결혼이 정말 사랑의 결실이고, 20대에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일까? 어떠한 사람사이의 관계이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정이다. 또한 인생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 결혼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다른 과제와 관련해서 신중히 내려야 주체적인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결혼적령기라고 하는 나이에 결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모자란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주위의 시선들은 당사자들을 어쩔 수 없이 움츠러들게 만든다.

우리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20대에 주어진 수많은 과제들 앞에 숨이 막힌다.

직장도 구해야하고, 공부도 해야하고,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해야하고, 집도 마련해야하고...

난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살/ 고/ 싶/ 다/

만남에 대하여-미팅과 소개팅

"미팅? 나 오늘 돈없어서 안돼. 뭐라고? 진짜 괜찮은 애들만 짝 뽑았다고?"

"사람이 하나 모자란다고? 개네들 매너는 좋니? 차값이나 밥값가지고 쪼잔하게 구는 그런 애들은 아니지?" "소개팅이 있는데 여자애한테 어떤 얘기를 하지? 재미없게 하면 날 싫어할텐데..."

"무슨 남자애가 그러니? 썰렁한 얘기가나 해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개를 끌고 다녔대니까."

미팅을 하게 되는 경우, 남학생은 상당히 금전적 부담을 겪게 된다. 무리를 하더라도 돈을 "잘" 쓰는 것이 상대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예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루 돈 걱정 없이 놀고 올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여학생이 지불하려고 하면 남학생의 자존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미팅이나 소개팅의 원래 목적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자란 타인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등한 위치에서 왜곡되지 않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관계를 스스로 만들어나가려는 노력, 그것은 상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을 토대로 한다면 시작부터 어그러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만남이 있을 때는 이 두가지를 마음에 담고 실천해보자.

"Give and Take!" "Dutch!"



97년 여성관련 9대사건

1. 부모성 함께쓰기

-잃어버린, 잊어버린
반쪽을 찾는 시작

1997년 3월 8일 한국여성의날 이후, 이이, 김박, 최전 등의 다양한姓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부모성함께쓰기 운동! 한국과 같은 부계혈통주의사회는 여성을 애나는 기계로 찬양했지만 그녀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참을 수 없어했다. 남자와 정자의 만남을 통해 수정란이 만들어진다는 생물학적지식을 잊은 채, 혹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거의 대부분의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의 육체적 수고를 생각한다면 엄마성만 주어야할 판국에, 너무나 껄껄하게 아빠성만 자식의 성으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한국사회의 부계혈통주의는 남아 선호사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전통이라는 미명으로 남존여비, 더 나아가 성적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엄마성을 함께쓰는 부모성 함께쓰기는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며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기도 하다.

2. 性스럽다 못해 음탕한(?) 순결서약식

1997년에는 상당히 샤킹하고 분개할만한 일이 많았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미 분노하기에도 지쳐버린 상태가 연일 계속되었다. 아마 대통령 기간에 있었던 순결서약식도 그중 한 가지로, 특히 反여성적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다.

순결 서약식은 '혼전순결과 결혼 후 배우자에 대한 일부종사와 결혼을 통한 가족의 소중함을 ...'로 요약될 수 있다. '성'은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하고, 결혼은 남녀의 결합에 근거해야하며, 결혼을 통한 가족만이 이 사회의 공동체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 행위 밖(재생산밖)의 성은 비정상적이고 규제되어야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이성애중심주의,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순결'이라는 개념이 여성의 성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가부장제 사회가 고안해낸

이데올로기라는 것과 그 안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억압을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3. 우조교 승소 판결 확정

1998년 2월 10일 지난 93년부터 끌어오던 우 조교와 신 교수와의 싸움에서 우 조교가 마침내 승리하였다.

이 사건은 1993년 서울대 대학원생인 우씨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신 교수를 고소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사법부의 첫 판결은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3천만원의 보상금을 줄 것을 결정했으나, 신 교수는 항소를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에 대한 보호가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대법원은 신 교수에게 개인 차원의 책임을 질 것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그 동안 괴로워하면서도 동의해야 했던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공론화 시키고 개인 차원의 법적인 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법적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절반의 승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은 성희롱을 방치했던 직장(서울대)과 국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내렸던 것이다. 이는 아직도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인권

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5년간의 긴 세월 동안 겪었을 우 조교의 고통과 그의 용기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

4. 정조교 성추행 사건

93년도의 서울대 우조교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법정 논의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대에서 또다시 발생한 정 조교 성추행 사건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이 사건은 지난 97년 3월 31일, 정 조교(35, 현재 약대 박사 과정)의 아버지가 서울대 총장에게 진정서를 내면서 표면화되었다. 이 진정서를 통해 정 조교는 "94년 4월 28일 지도교수인 구 교수와 경남 마산으로 식물 채집을 갔을 때 구 교수가 호텔방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 반항하자, '너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한다. 우 조교보다 더 악종이다'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진정서의 사본이 약대 학생회를 통해 교내에 공개되면서, 약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구 교수는 정 조교의 주장에 대해 "짐을 날라주려고 호텔방에 따라 올라갔는데 정 조교가 자기방을 따로 구해야 한다는 등 자신을 의심해 나무랐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에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졌고, 구 교수의 수업 거부와 자체 진상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정 조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4월 21일 구 교수가 정씨 부녀를 비롯한 여자 대학원생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지검에 고소하면서 이 문제는 법정까지 번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학내 해결과제로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것은 지도 교수에게 집중된 권력이다. 현재 대학원생에 관한 한 지도 교수가 전권(全權)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 처벌을 위한 학칙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똑같은 사건이 4년 뒤에 같은 학교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대학 체계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5. 포르노... 무엇이 문제라구?

지난해 불어닥친 검열 열풍으로 문화계에서 그리고 여성학계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장정일씨와 이현씨 모두가 노골적인 성묘사로 법정에 올랐다. 이러한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법적규제는 논란의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포르노에 대한 선택은 다분히 소비자의 몫이다. 그들은 이러한 법적규제는 국가가 개인의 팬티속과 머릿속을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성적 자극을 준다고 해서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은 고성방가가 싫어서 금주령을 내리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주의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러한 규제는 여성을 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뿐이므로 좋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반면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건전한 포르노라는 것은 여성의 상품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포르노의 찬성론자들이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남성이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에서 포르노는 당연히 여성의 몸을 점점 더 포르노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기호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직은 포르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상으로 짧게 포르노의 법적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 보았다. 아직까지 무엇이 전적으로 옳고 무엇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이야

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포르노의 규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검열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6. 여성은 정리해고 1순위 - 놀라운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97년 벽두, 전국을 총파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핵심 쟁점은 바로 정리해고제 도입 여부였다. 98년, IMF시대에 정리해고의 칼바람으로 많은 절반 가량의 직원을 집단해고하는 유례없는 고용대란의 와중에서 유일하게 지켜지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여성=감원대상 1순위'이다. 기업들은 "대량감원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생계 책임이 가벼운 여성을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면서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아이 딸린 사무직 기혼 여성이 1차 정리해고 대상"이라며 자진퇴사를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 '아이가 딸린 기혼여성', '사내커플'(부부중한 명은 감원할 수 있기 때문에 더블 복권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장기근속 여직원' 등을 우선 해고하는 기업들의 감원원칙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안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일제히 '여성이 감원 1순위'라는 선

정적인 제목으로 현장의 집단해고 사례를 보도하는 언론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불안과 위기감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도 없을 뿐 아니라 구제절차나 정책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보도들은 마치 여성노동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암시하고 있다.

직장 내의 남성들도 이러한 분위기의 공범으로 지목된다. 한편으로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지만, 돌아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난 먹여 살릴 아내와 자식이 있어"라면서, 어느 누구도 '기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우선 해고'가 남녀고용평등법은 물론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과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무시한 불법행위임을 지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먼저 노동조합 차원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수 있지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거나, 노조가 있더라도 IMF한파 속에서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노동단체와 상담을 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집단 감원, 정리해고 바람이 거의 모든 사업장에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요구는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한 사태인 만큼 구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7. 언론을 휩쓴 '新 현모양처론'

'여성의 성역은 가정'이라는 명제가 여전히 그대로다.

문화방송에서 녹화방영했던 미스 아시아 태평양대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대상을 차지한 한 여성이 이시대 여성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동문서답해 보는 이들을 아연케 했다. 이웃지 못할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여성은 아내, 어머니라는 가정주부의 역할이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느끼도록 훈련시킨 최고의 성과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TV를 시청하던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이는 다름아닌 요즘의 사회가 기대하는 신현모양처에 부합되지 못한 답답한 소리였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알고있는 전통적인 현모양처상은 남편에게 순종한다거나, 학문에 전념하는 지아비를 위해 배를 짜는 등 살림을 도맡아 집안을 꾸려나가는 것, 또는 자녀, 특히 대를 이을 아들 교육에 힘쓰는 모습에서 발견되었다. 물론 시대에 따라 새로운

현모양처상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언제나 결론은 주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성역(聖域)은 가정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가 듣게 되는 신현모양처 상은, 전통적인 현모양처상은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더 많은 능력을 갖춘 슈퍼우먼급 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주부들이 가졌던 파출부, 보모, 유아교육학자, 경조사관리자 등의 역할에 새롭게 첨가된 현대사회에 걸맞는 신종 역할들이란 참으로 다양하다못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남편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신간 및 실용서적을 읽고 요약해 들려주는 이야기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국제화에 맞춰 남편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내조하기도 한다. 영어단어와 숙어, 회화문장을 적어주고 외우게 한뒤 귀가 후에는 제대로 외웠는지 체크하고 쪽지시험까지 볼 정도다. 또한 배가 나오는 것은 비즈니스상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체형관리사의 역할과, 일과 관련되는 자료를 수집, 스크랩해주는 자료수집가의 역할까지 무궁무진하다. 어디 그뿐인가?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편이 벌어들이는 돈만으로 가계를 꾸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재테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남들보다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그야말로 슈퍼우먼 인생이다. 더구나 요즘은 회사의 감원바람으로 인한 명예퇴직으로 고개 숙인 이땅의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한국경영컨설턴트협회 등에서 제시하는 '남편 기살리기 8계명'('남편을 즐겁게 하자, 매일 한번씩 칭찬하자, 남편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자, 신용카드 등의 쓸쓸이를 줄인다, 남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운전, 컴퓨터, 회계는 필수, 남편의 인맥을 소중히 한다,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만든다, 남편의 의견, 결심에 적극 동의한다)은 실추된 명예를 되찾으려는 사람들의 절규처럼 들릴 정도다.

위와 같은 신현모양처의 물꼬를 열어준 것은 TV광고였다. '95년 5월부터 삼성전자가 시리즈로 내놓았던 '신현모양처' 주제는 1편 '주부도 9시에 퇴근해야죠', 2편 '남편의 기를 살려줍시다', 3편 '주부도 컴퓨터를 배웁시다'로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가꿔나가는 미씨와 아내와 엄마의 역

할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현모양처의 대립을 그럴싸하게 조화시켜서 여성들에게 둘다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을 갖게 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스코리아의 입에서 나온 동문서답 식의 공허한 대답보다는 제법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성을 소망하는 사회의 요구를 우리는 TV광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훈민정음' 교육받으러 간다는 남편에게 왜 한글을 다시 배우느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는 아내나, '엑셀' 운운하면 현대자동차에서 엑셀이 다시 나왔느냐고 묻는 아내의 모습이 좋을 리 없다. 평퍼짐한 모습이 아닌 정확한 자기시간 관리로 살림과 자녀교육도 똑소리나게 하고, 재산증식에 기여하며, 현대사회의 필수과목인 컴퓨터

까지 다룬다면 그런 여성이야말로 남편들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온달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내의 능력은 소망하는 이 시대 남성들의 유치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신현모양처는 여전히 여성 자신의 존재가치를 잊고 남성과 자녀에게 집

신현모양처는 여전히 여성 자신의 존재가치를 잊고 남성과 자녀에게 집착하게하는 요소를 그대로 간직한채 그 내용만 방대하고 다양해졌다.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이라는 허울의 칭찬을 통해 언제 또 새로운 현모양처상을 요구하며 더 큰 무게로 여성들을 누를지도 모를 일이다.

착하게 하는 요소를 그대로 간직할 채 그 내용만 방대하고 다양해졌다. 자기계발과 여가선용이라는 허울의 칭찬을 통해 언제 또 새로운 현모양처상을 요구하며 더 큰 무게로 여성들을 누를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 것도 아닌 듯 그저 웃어 넘기고 싶은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8.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중 고용정책

- 여성 핵심공약의 기본 방향

여성정책의 출발은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며 그것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 차별적, 우대적이어도 사실상의 평등이 달성될 때까지 특별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의 과제는 성차별과 억압을 제거하여 여성자신, 가정, 사회전체를 만족시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적인 여성정책은 여성에게 평등하고 동등한 정치, 경제,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여성은 가정, 남성은 사회로 남녀의 영역을 나누는 전근대적인 성역할 구분론을 폐지하고 남녀가 함께 가정과 사회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남녀공동책임론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 여성 고용에 관한 정책의 요지

1) 최소 30%의 여성고용할당제를 강력하게 추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고용에서 직접적인 남녀차별은 제거되어 왔지만 간접적, 구조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고용상의 남녀차별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국가적인 낭비가 심하다. 따라서 여성고용과 승진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고용승진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 11월에 제정되어 1989년 4월에 1차 개정이 이루어졌고 199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는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간접차별과 직장내 성폭력 등을 규제, 예방하는 등의 실질적인 차별개선에는 한계가 많다.

- i.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ii. 남녀고용평등법에 간접차별 금지를 포함.

iii.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금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차별은 사회적 묵인 속에 또는 원론적인 얘기만이 난무하는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위의 정책처럼 선거 기간에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들은 비록 여성 문제의 근본은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범위를 확대시켜 주고 여성의 정당한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미약하다.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금 국제 경쟁 사회 속에 우수한 여성의 사회적 능력 발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여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위의 정책들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9. 가족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들이 불합리한 법속에 살고 있다고 자각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사회든 이미 제도화되고 생활속에 익숙해진 기존 질서에 도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며, 개인의 자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와 함께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사회, 정치,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정도 성숙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초기의 우리나라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이념과 동떨어진 가부장제도를 펼쳐 버리지 못함으로써 혼인, 이혼, 상속 등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이 대부분이었다.

그 후 여러차례 가족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1979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을 뿐, 전면적인 개정을 하기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정부차원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다. 실례로 1983년의 한국여성개발원 발족,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그 뒤를 이어 중장기 여성발전 기본계획,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2천년대를 향한 국가사회발전 구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여건의 조성 과 여성계의 조직화된 노력이 30년 동안 끌어오던 가족법을 1989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폭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을 보면 헌법에 명시된 인간평등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이 우리 가족제도에 반영되어 민주적 가정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쳐졌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며, 특히 이 나라의 남녀평등을 위해 한백년 설움을 딛고 꾸준히 노력해 온 여성들이 피워낸 커다란 꽃송이라 하겠다.

이렇듯 가족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 각도에서 끊임없이 기울인 노력의 댓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 속에서의 실질적 적용을 통하여 법규범과 법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위해 여성은 물론, 모든 사회인이 나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골자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촌수 이내의 친척을 말한다.

개정전의 가족법에서는 아버지 쪽은 8촌 이내, 어머니 쪽에서는 4촌 이내, 결혼한 여자는 시아버지쪽 8촌,

시어머니쪽 4촌 이내가 친족이었고, 결혼한 남자는 처가식구 가운데 장인, 장모만이 친족의 범위내에 포함되어 남녀가 불평등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새가족법에서는 혈족은 남녀 차별 없이 혈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쪽 모두 8촌까지, 결혼후에는 4촌까지로 바뀌었다.

▶ 재산상속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상속을 받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상속의 비율은 호주, 아들, 딸, 기혼, 미혼에 차별없이 아들, 딸은 모두 같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한 자녀 몫의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면 2남1녀의 배우자가 4,500만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해보면 세 자녀는 모두 1,000만원을 상속받게 되며 배우자는 1,500만원을 상속받는다.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이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가운데서 사망자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늘려간 사람은 그 기여도에 따라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아들이 자녀없이 죽은 경우 부모가 며느리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가족법에서는 출가한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가 사위와

공동으로 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이 추가되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된다.

한편 사망자의 유언으로 사망자의 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이 법에 의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적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는 1/3을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는 사망한지 10년 이내에,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친권

친권이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보호하고, 살 곳을 정하며, 교육을 시키고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의 일로 자녀에 대한 법적인 권리이자 의무이다. 양육권은 다만 자녀와 함께 살고 기를 수 있는 권리이다.

개정되기 전의 가족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친권이 주어졌으나 새가족법에서는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가족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과 교육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양육하고 있는 쪽의 청구에 의

해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할 때 결혼 이후에 모은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결혼 후에 같이 모은 재산에서 기여한 크기에 따라 가정법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는 서로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 결혼년수, 남편의 경제적 능력, 여성의 직업유무 등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한가지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여성의 가사노동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

개정전 계모와 전처자녀와의 관계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되어 서로가 친권, 부양, 상속 등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으나 가족법에서는 친자관계가 아닌 인척관계가 될 뿐이다. 그러나 계모와 본인들이 원하면 양자로 들여 친자녀와 자녀관계가 될 수 있다.

한편 남편이 외도를 해서 낳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개정전에는 남편의

임의대로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으나, 새가족법에서는 남편의 자녀로만 인정될 뿐 본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양자로 들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될 수 있다.

▶ 호주 승계제

호주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우두머리이며 가족을 통솔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전 호주상속제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장손이 호주가 되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호주승계 순서의 변화는 없지만 호주승계권을 포기하고 분가할 수 있다.

호주보다 장남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 장남의 아들인 장손이 호주가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으나 개정후에는 차남이나 삼남이 호주가 될 수도 있도록 바꿨다. 그리고 호주의 권리와 의무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남녀차별적인 요소를 대폭 삭제했다.

일반의 경우 호주의 승계순서는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서이며 첩이 있을 경우 본처 소생과 첩 소생의 승계순서는 둘다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본처 소생이 호주가 되고,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소생이 아들일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이 우선한다.

K
의
1
일
보고서 /
여인의
15
am
초
상

자신 스스로를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오스트레일리아 여성 감독' 이라고 묘사하는, 또한 90년대 가장 대표적인 여성 감독중 한 명으로서 칸느가 인정한 제인 캠피언.

그 동안 <스위티>, <내 책상위의 천사>, <피아노>를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억압과 그와 상반된 여성의 내면적 표현에 집착해 온 제인 캠피언이 이번에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자신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다.

19세기 남성의 역사는 여성에게 대해 특별한 성격 규정을 뒤집어 씌우고 말았다. 즉 남성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힘을 갖는 지성에 의해 발명과 진보를 이끌어 내는 반면 여성은 소극적이고 보조적이며 수동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든든한 내적 조력자로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자벨을 가정에 몰아매고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오스몬드는 이러한 19세기 가부장적 남성 권위의 상징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가정은 이자벨을 길고 긴 불행으로 몰아넣고 길들여진 새장의 새처럼 그녀의 자유를 속박하게 된다. 결혼전 이자벨이 입던 정중한 검정 드레스는 점점 화려해 지지만 대신 길어지고 폭이 좁아져 걸을 때마다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이다. 사회구조 유동성을 막고 일상으로의 천착을 유지케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그녀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이 장면은 제인 캠피언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장면. 헨리 제임스의 소설-여인의 초상- 속의 이자벨 보다 영화 속에서의 그녀를 훨씬 어둡게 표현한 것은 "이자벨을 우리가 요즘 만날 수 있는 여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감독 자신의 언급을 살펴볼 때 제임 캠피언은 고전 문학 속의 삶의 복잡함과 인물들에게 현재를 살



아가는 살아있는 삶과 인물들로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 속에서 보편성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여성의 결혼을 좌우할 만큼 가부장적 권위가 강했던 19세기말 남성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랑과 결혼의 틀에서 벗어나려 했던 이자벨의 몸부림과 좌절은 현대 여성의 현실을 좀더 극단화시켜 보여주려 한 것이다. 감독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시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자신을 탐구하고자 하는 제인 캠피언의 이 영화는 화려하지 않고 차분하게 정공법을 제시하며 결혼에 대한 문제제기를 여성들에게 던지고 있다. <참고자료 씨네21 1997년11월4일자>

S : 자료집에 이 영화를 소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K : 고등학교 때이다. 성에 관한 한 가능하면 무지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하고 착한 척 얌전한 척 해야 했던 고등학교 시절 칸느 영화제 수상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목이 풍기는 원색적인(?) 뉘앙스 때문에 선뜻 고를 수가 없었다. 아직도 섹스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낯이 변하는 나로서는 이 영화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가 제시하는 조용하고도 차분한 설득에 매료되기를 바랐다.

S : 영화가 주는 느낌이 남다르지만,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

K : 철저하게 차갑다.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대해 객관적 거리를 두게 하고 있다. 카메라의 기교가 전혀 없고 화면내 구도면에서도 특이할 만한 게 없다. 조명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낮촬영이 대부분이며 사건진행에 있어서도 팽팽하게 긴장되는 부분도 없다. 철저하게 인물들간의 대화와 인터뷰를 화면에 채워넣어 관객이 영화속으로 몰입되기를 차단하고 거리를 두어 인물들을 지켜보게만 한다. 물론 앤이 그레이함



의 이야기를 들을 때, 카메라가 조금씩 밀고 들어가지만 클로즈업을 통한 감정 몰입보다는 그 캐릭터의 심적 상태나 진실을 캐내 들여다보기 위한 자료 제공 정도로서의 침착한 다가섬일 뿐이다.

S : 이 영화의 시놉시스(줄거리)를 간단히 알려주자면....

K : 조용하고 평온한 미국의 중산층의 한 가정에서 남편이 옛친구 그레이함이 머무르게 된다. 근사한 집과 아름다운 부인, 승진... 그 누구도 부러울 것 같지 않은 앤의 남편은 앤의 여동생, 즉 처제와 바람을 피는데 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녀는 목에 금빛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어쩌다 가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일이 없는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남편의 친구 그레이함은 성불능 환자로서 타인의 섹스에 대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위하고 만족을 얻는데....

제목 그대로 섹스와 거짓말, 그리고 그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결말 부분에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힘이 실려 있다.

S : 영화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은?

K : 사랑과 진실이 시작되는 지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들 주위에 널부러진 진실되지 못한 일상과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느껴지는 자신에 대한 자각. 나는 그 순간에 사랑이 시작되고 진실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싶다.

앤과 그레이함의 고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녹화 상황속에서, 여성을 관찰하던 그레이함의 능동적 위치는 앤의 수동적 위치와 뒤바뀌게 된다. 카메라 뒤에 숨어있던 그레이함에게 앤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다. "죽을때까지 이렇게 살 건가요? 왜 그러고 있지요?" 이제 그레이함의 손에서 앤의 손으로 옮겨진 카메라는 우리에게 자신과 마주보기를 요구하고 있다. 앤의 남편이 이러한 녹화 테이프를 바라보며 이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장면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가 자신의 허점과 위선과 무능력을 대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통쾌한 부분이다.

그레이함과 앤이 자신들의 일상과 만나고 자각하는 장소는 바로 녹화의 빨간 불이 깜박거리는 카메라 앞이다. 우리에게 '카프카'를 통해 잘 알려진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에게 있어, 영화란 감독 자신과 관객이 자신의 현실과 직면하도록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의 벽을 부숴버리든 돌아가든 그 선택과 맞부딪게 하는 지점이다.

여성에게 있어 결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화려한 드레스, 꿈결같은 신혼 여행, 새로운 생활로의 출발점. 아내나 어머니로서 완벽한 여성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일까?

못생기고 뚱뚱하고 철이 없는, 게다가 거짓말장이에 다 변변한 직장도 없는, 그래서 주위 친구들로부터 '넌 품위가 없어'라고 비난받는 유리엘에게 결혼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인간 관계들을 끊고 새로운 나로, 즉 '마리엘'로 변신하는 것이었다. 유리엘에게 자신의 가장 큰 꿈은 결혼일 수 밖에 없으리라는 것은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을 볼 때 마찬가지일 것 같다.

아바의 음악을 들으며 끊임없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 '나는 바뀔거야'라고 읊조리는 유리엘. 한편 자신에게 쏟아지는 편견과 폭력적인 인간관계속에서 '왜 나는 결혼할 수 없는 거지'라고 괴로워하는 유리엘. 그러한 그녀 앞에 자신의 옛친구 론다가 등장한다. 자신의 습관적인 거짓말과 속수무책으로 저지르는 엉뚱한 행동 때문에 결국 유리엘은 론다와 함께 시드니로 도망치듯 쫓겨가고 거기서 유리엘은 드디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줄 '결혼'을 하게 된다. 이 철없는



아가씨의 결혼은 예식이 끝남과 동시에 거짓말과 대책없이 저지른 행동에 이제는 책임져야 할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은 주위의 인간관계, 바로 현실로 유리엘을 내몰고 만다. 스스로에게 '마리엘'이라고 정의하는 유리엘과 자살을 선택하는 어머니. 이 영화는 유리엘의 결혼과 어머니에게 족쇄가 되어버린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혼과 가정이라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 그녀의 존재를 가치있게 증명해 준 친구 론다와 함께 다시 시드니로 떠나는 유리엘의 모습을 통해, 일상속에서의 여성의 대안이 솔직한 자기 자신과 용기를 내 마주 대하는 것임을 무겁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

94년 호주 영화제와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토니 켈렛은 이 영화에서 여배우로 성공하는 것이 외모와 몸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다.

얼마전에 쓴 일기를 뒤적이다 이런 글이 나왔다.

'모든 사물은 그대로 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관계는 언제나 유동적이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인데, 내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위의 모든 것들처럼 그대로 이고 고정적이 되어 버릴지 모른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들을 옹아매 버리지나 않을까 이다.'

주위의 인간관계들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과 연대에 대한 의심을 보여 온 나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는 영화는 언제나 대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제8요일>에서의 다니엘 오메이유와 파스칼 뒤편, <결혼 피로연>에서의 새로운 가족,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끝없이 펼쳐진 길을 지금 시작하는 조니 뎀과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안토니아의 공동체 웃음과 여



유가 끊이지 않는 안토니아의 공동체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바로 이 문으로 가부장 사회의 규칙과 관습을 거부하고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농사를 짓고 음악을 창작하며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짓는 생산을 한다. 시간은 시간밖에 생산할 수 없다는 안토니아의 울조림은 나에게, 우리들의 시간에 대해 짐지워준 과도한 절대적 가치의 무게를 덜어주고 상대적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절대성과 보편성에 대한 거부로 보여졌다.

바로 이러한 면이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영화를 단순히 페미니즘 영화만으론 규정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만든다. 물론 영화의 소재는 페미니즘적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주제는 인간의 공동체를 통한 삶 그 자체이다. 페미니즘 역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삶에 대한 담론이듯 말이다. 앞서 말한 내일기에서의 울조림은 크루핑거의 허무주의와 다를 바 없다. 크루핑거의 죽음에 대한 안토니아의 한마디가 떠오른다.

“디디. 인생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야.”

우리는 자멸할 수 없다. 나 혼자 만든 절대적인 시각과 가치관만을 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나와 내 밖의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공동체 속의 나, 사회 속에서의 나라는 이유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대신 다른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이유와 함께 나에게서 희망을 놓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모든 표현수단을 통해 모든 소질을 가지고 관계와 공동체 속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페미니즘 역시 인간의 한 부분인 여성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에 대해 논해야 할 것이다.



K 5
의 일

편 10
지 /
/ 30
M am

·
B
U
T
T
E
R
F
L
Y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우리가 인간인 바에야 어떻게 타인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당신이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녀의 죽음, 그건 순수한 희생이었어요.”

“그렇겠죠. 서양인의 눈에는. 당신들 환상 중 하나가 아닐까요? 순종적인 동양 여성과 잔인한 백인 남성...”

이렇게 시작하는 백인 남자(르네 갈리모어)와 동양 여자(쑤링링)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성적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져 줍니다. 이러한 화두는 인간이 자신의 리얼리티를 창조해 나간다는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끊이지 않는 사유의 흐름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제 막 중국 주재 프랑스 외교관 부참사관으로 임명된 르네와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었던 쑤링링은,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처럼 아주 특별한 사랑에 빠지게 되죠. 르네는 쑤링링의 소녀같은 모습에 매혹되어, 자신이 쑤링링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프랑스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자신이 사랑한 ‘소녀’의 이미지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환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르네는 결국 쑤링링의 존재와 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나의 나비로서, 한 여자로서 그를 사랑한 거야.”

저는 이 사랑의 영화 속에서 쑤링링이 선택한 성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쑤링링은 자신이 남자들이 상상하는 완벽한 여성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가 르네 갈리모어와의 사랑의 결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자궁에서 나왔다고 말할 백인 남자 아기를 찾는 모습, 재판 후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모습으로 르



네에게 다가가 그에게서 거부당했을 때 보여준 수치심. 르네의 뇌리속에 언제나 신비하고 순종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남고 싶어했던 쏜링링의 바람. 이 모든 모습에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결코 허위적이지 않은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쏜링링의 모습이었습니다. 설사 그녀의 모습이 순종적인 전통적인 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였던 쏜링링은 자신이 '그녀'로 불리기를 바랬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남자 곁에 언제까지나 머무를 수 있도록 그가 꿈꾸는 '여성'이고 싶어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적 정체성이라 믿는 모습은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문화가 우리에게 던져 준 것일 뿐이라 생각할 때, 이런 사회에서, '그녀' 스스로 선택한 성적 정체성과 르네와의 관계에 대한 선택 역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까요? 흔히들 동서양의 차이, 빈부의 차이, 계급의 차이 등 존재하는 벽들을 사랑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만의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사랑했던 버터플라이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결국 눈물짓고 자결하는 이 눈부신 제레미 아이언스(르네 역)의 연기에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예감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나아가 그 차이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그 사랑. 나는 그러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브란튼베르그-

- 우뚝선 페니스가 아닌, 말랑말랑하고 다치기 쉬운 페니스를 '페호'로 보호하자!

『근육질의 건장한 움(wom)들은 오로지 지배와 통치만을 할 뿐이다. 그녀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그리고 움은 보편적인간으로 상정된다. 단지 그녀가 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그마하고 뽀얀 맨움(manwom)들은 집에서 꼭 처박혀서(housebound) 섬세한 손길로 가사를 돌본다. 그에게는 아이를 돌보고 부인을 뒷바라지 하는 것이 하나의 천직이다.』

어찌보면 여성, 남성이 뒤바뀐 듯 부자연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평화의 유토피아¹⁾를 상징하는 이갈리아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자연에 의거한 조화로 온 질서이다. 이 책은 여성(움)이 남성(맨움)을 지배하는 사회를 보여줌으로써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신화를 폭로하고 동시에 여성 스스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해준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도 사실 사회적, 문화적인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여성', '남성'으로 생물학적 구분은 우리에게 변화불가능한, 객관적인 '진리'로서 읽혀진다.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 자연이라고 명명함은 더 이상의 논쟁의 여지를 두지 않은채 그것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로 생물학적인 특성들은 언제나 본성으로 여겨졌다. 성과 성별의 특성들에 대해 아무리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결국 여자는 아기를 낳잖아'(맨움은 결국 아기를 낳지못하잖아)라고 그녀/그의 생물학적인 기능을 언급한다면 그 논쟁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시선들이 깔려있기 마련이다. 오히려 가치중립적으로 가정되는 생물학이라는 것은 정치·사회적인 쟁점들을 은

주1) 96년도 KBS에서는 '평화가 숨쉬는 이 땅의 마지막 유토피아'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어느 원주민 부족을 소개한 것이었는데 내용인 즉 죽도록 일하는 여자와 낮잠과 아편으로 소일하는 남자들, '평화롭게' (=싸우지않고) 지낸다는 것이었다. 노예가 죽도록 일하며 노예주에게 반항하지 않는 것도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가부장적인 남성의 시각에 의해 평가되어지고 강요될 뿐이다. 현실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힘들지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또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페미니즘 사상』, 로즈마리 통, 한신문화사

자유주의부터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여성억압의 본질과

해방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본다. 각 이론의 배경철학과 사상 등이 요약돼 있으며 각 이론의 주 논쟁지점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그 이론에 대한 비판까지 정리되어있어 쉽고, 자세히 읽어내릴 수 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 여러 이론들이 어떻게 발달돼 왔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 이론에 대한 어떠한 비판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됐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성해방의 역사』, 앙드레 미셀, 백의

비교적 흔하지 않은 프랑스 페미니스트 저서이다. 구석기 시대에서 현대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여성의 지위와 조건을 저술하여 역사적으로 여성억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은폐되어왔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푸코, 나남

조금 난해한 책이나 성과 권력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논의 지점들을 찾을 수 있다. 성과 관련된 '진리'의 문제, 억압과 저항의 관계, 권력 이론 등... 기존의 성혁명적인

기회들을 비판하면서 성이 역사적·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을 밝혀내며 또한 성애중심적인 '성'의 개념을 탈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성을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는 시각이며, 변혁적 가능성들을 제공해준다. 또한 조직을 고민하는데 있어서 푸코의 권력 이론은 상당히 유효하다.

『Sexuality : 성의 정치』, 제프리 워스, 현실문화연구

성을 자연적 소질이나 선천적 본능·초역사적인 본질로 보던 기존의 성담론을 부정하고 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입장을 취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물학·인류학·정신분석학·사회학·성과학 등의 근대적 과학이 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확정하는지와 성과 관련된 제반 사회적 제도가 성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핀다.

『새로쓰는 성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인간억압과 소외, 그리고 해체현상을 치밀하게 파헤치고 있는 성문화 종합비평서. 성에 대한 봉건적인 무지, 타자화되고 소외된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설들과 성과 사랑의 신화와 허상을 분석하고 성과 사랑에서 주인되기들을 강조하는 글들이 실려있다. 또하나의 문화 시리즈는 남녀가 공존하는 일상을 주체적인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안을 준다.

『새로쓰는 결혼 이야기1(안에서), 2(밖에서)』

그 동안 탈정치화된 공간으로 밀실에 갇혀 있던 경험으로서의 결혼을 담론화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설부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결혼을 선택한 다양한 세대의 여자, 남자가 결혼 안에서 겪는 문제들을 풀어내고 있다. 또문12호인 『새로쓰는 결혼이야기2』는 결혼제도를 넘어서 각자의 삶을 만들어 가려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트베르그, 황금가지

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이라고 가정되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

이 하나의 허구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통쾌하게 보여준다. 사실 여성성/남성성이라는 것은 본성적이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권력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치로 존재하고, 얹혀지게 된다.

패러디를 통한 작가의 상상력과 기발함에 그저 찬탄할 뿐이다. 그리고 계급(스파크스주의)과 성의 문제, 낙태, 모성신화, 동성애 등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적절하게 잘 그려져 있다.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 예문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여성작가들이 직면한 성적, 사회적 제약과 억압적 상황을 다루고 있으나 나아가 가부장제하의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고찰하고 있다. 여성의 독립, 양성성 등에 대한 버지니아 울프의 선지자적 시각을 담고 있으며 가부장제사회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인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큰 공감을 준다. 부드러운 대화체 이면의 작가의 분노의 목소리와 아이러니한 조소가 일품이다.

『페미니즘 이론 사전』, 메기 험 지음, 삼신각

여성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여성학적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철학적 이론의 내용도 첨가해서 페미니즘이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저자가 밝힌 바처럼 지식의 '내용'에 대한 재정의, 페미니즘적 인식론 전개, 새로운 지식의 유형의 가능성이 제시되어있다.

『여성과 사회 8호』한국여성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최근 들어 유행처럼 번지는 성과 육체에 관한 논의들을 실제

여성의 현실로 끌어내리며 성폭력, 임신과 출산, 낙태, 다이어트, 성관계 등 핵심적인 주제들을 여성의 시각으로 논하고 있다. 「나는 착한 여자가 싫다」는 불황이 물고오는 보수주의로의 회귀와 더불어 현모양처와 착한 여자에 대한 향수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페미니스트 저널 if』

여성주의적 여성잡지를 표방한 97년 여름에 창간된 계간지. '웃자! 뒤집자! 놀자!' 라는 짤막한 구호가 보여주듯이 여성임을 긍정하고, 여성임이 즐거울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글들이 실려있다.

편집후기

설레는 마음으로 이 소모임을 만든지가 벌써 4년째이다. 두번째 자료집을 내면서, 첫번째 자료집에서 내 모습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이후 나머지...음! 나는너무 멋진 인간이 된것 같다.

- 진희 -

이번 자료집을 참고한 후배들 모두 에이플러스가 나오길 기대하며...후- 그리고 많은 도움을 준 성일에게 감사한다. 아! 그리고편집후기를 스캔해준 현구에게도 감사!

- 철규 -

이 자료집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진희, 선민언니, 혜영 봉근, 철규, 기타 용재, 광흠, 현종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 소원 -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자료집을 낸다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 혜영 -

너무 많은 것을 남겨준 시간들이었다. 중요한 모든 것은 콜롬비아 커피와 탁자에 있다. 선배님들 그동안 감사합니다.

- 봉근 -

편집후기를 치다가 지쳐버렸다.

속, 시원할 뿐이다.

함께한 친구끼리 사람들에게 고마울 뿐이다.

- 선민 -